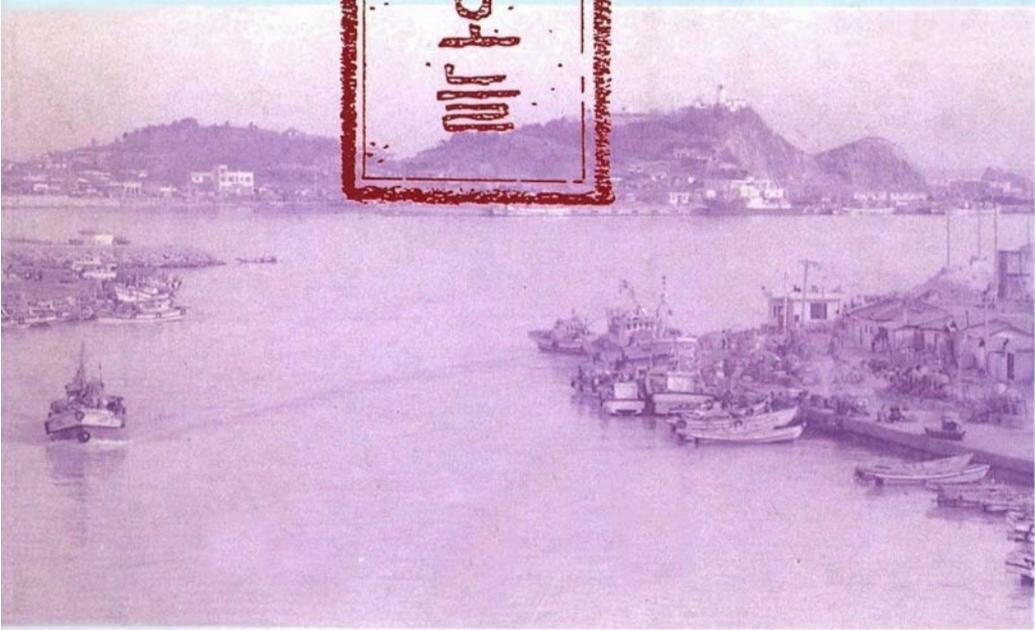


순천의 풍력역사



속초문화원

산천의 풍류역사



속초문화원

속초의 옛과 오늘

속초문화원 1997

인쇄 / 1997년 8월 31일

발행 / 1997년 9월 10일

편저자 / 박영도

펴낸이 / 최용문

펴낸곳 / 속초문화원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화(0392)32-1231, 전송(0392)32-1241

박은곳 / 강원일보사 출판국

비매품

이 도서는 국비와 속초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속초의 옛과 오늘

1997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있다



최 용 문(崔龍文)
속초문화원장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있다. 역사라고 하면 단순하게는 인간 사회가 거처 온 변천의 모습이나 또는 그와 같은 기록과 어떤 사물이나 인물과 조직 따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취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시간과 과거는 물론이며 세월과 미래까지도 관련하여 생각하면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단군 조선으로부터가 그 뿌리라면 이 고장의 뿌리인 역사도 간직하기 마련일 것이다. 물론 오래전의 역사란 세월의 경과로써 어두워졌으므로 진실을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 고장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어떤 연유로 해서 '속초(束草)'라는 지명(地名)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떠한 변천을 거쳐 오늘의 '속초'에 이르렀는가를 찾아 담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꼭꼭 숨어 있었을 성싶은 우리 고장의 속내를 찾아서 알기 쉽게 다듬어 펴냄을 시도해 보고자 함이다.

속초시지(束草市誌) 등 온갖 자료를 찾아 가감하면서 간략하게 엮어 초등학교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읽기 쉬운 우리 고장의 종합 역사지(綜合歷史誌)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올해는 정부가 정한 '문화 유산(文化遺産)의 해'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하는 데에 이 서책은 그 뜻이 한층 크다고 하겠다.

자료의 미비와 지면 관계로 더하지 못함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후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다시 엮어 내는 기회를 갖기 희망하면서 머리말로 갈음한다.

속초의 옛과 오늘



동문성(董文星)
속초시장

속 초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속초를 보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속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속초가 근래에 들어오면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보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속초가 아파트와 콘도의 빌딩숲에 묻혀 있다고 하는가 하면 후진곳을 보면 6·25전쟁 직후의 가난하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중 사회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속초에 첫 발을 디딘 것은 51년 11월 중순으로 16세 때이다. 고성외 남강을 사이에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일진일퇴로 혈전을 벌일 무렵이었다. 원산에서 양양까지 연결되었던 동해 북부선 철로도 그대로 있었던 시기로 전쟁통에 주민들은 남북으로 흩어지고 그나마 남쪽으로 피난갔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은 52년 다 가던 그 무렵이었다.

전쟁 중에 살아난 건물이라고는 지금의 농협 중앙회 속초 지부 자리에 있던 금융 조합(?) 건물 뿐이고 함석지붕과 초가지붕을 한 옛날 모습의 민가들이 고작이었다. 전쟁 중의 속초는 동부 전선에 투입된 국군 사단을 지휘하는 한국군 제1군단 사령부가 조양동에 있었고 동부 전선과 중동부 전선의 한국군과 미군의 병참 지원을 담당하는 미군 항만 사령부가 지금의 농협 지부자리에 있었다.

휴전이 임박한 무렵에는 월비산 전투에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피나는 격전이 벌어져 군인들의 구급차가 밤낮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부상

병을 제10이동 외과 병원 등으로 후송하던 시기이었다. 국군의 수복으로부터 휴전이 성립되었던 50년대 중반까지 속초의 경제 중심지는 영랑동이었다.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한 영랑 시장은 당시 속초 상권의 상징이었다. 당시 속초읍 1구라 불리던 영랑동에는 '망향' · '신고아라' 등 7개의 다방이 밀집되어 있었고 '밀림 극장' 과 '속초 극장' 도 서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 속초 상권은 중앙동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중앙동에서 중심 상권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속초 현대사의 반세기는 한산했던 농어촌에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할 면모의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틀을 갖추었다고 본다.

미래사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도시를 세계가 선망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속초의 역사는 진취적이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강한 욕구가 결집되어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도시로 발전될 날을 기대해 본다.

학생과 속초 시민의 반려자



민 태 식(閔泰軾)
속초 교육청 교육장

우 리 속초시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설악산과 동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랑호와 청초호 등 두 개의 호수는 마치 연인의 두 개의 눈동자처럼 깊고 그윽하여 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속초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향기에 넘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는 큰 아픔을 지니고 태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족상잔으로 인해 실랑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정착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관문이라 할 동명항 수복탑 모녀상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며 오늘도 북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곳에서 속초의 어제와 오늘을 읽을 수 있고 속초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속초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딛고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속초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중앙동의 몇 채 안되는 판자집과 질퍽거리던 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호동에 즐비하던 따개비집 풍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반세기 동안 속초시는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8만의 동해안 최북단 어업 전진 기지로 발돋움했는가 하면 국제적인 4계절 종합관광 휴양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작금에는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 시계를 가로막을 정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외부 생활 환경의 변화는 자칫 개발 지상주의를 낳게 되어 지나친 물신주의 경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신주의는

환경 파괴라는 또 다른 역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는 과거를 되짚어봄으로써 다가올 앞날의 질높은 삶을 창조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감으로써 천혜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속초의 옛과 오늘은 이러한 속초의 미래를 새로이 바라보는 가늠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초의 과거와 오늘을 한눈에 바라봄으로써 속초에 몸을 기대고 살아가는 속초인들의 정신적으로 가치있고 풍요롭게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속초시민들의 따뜻한 반려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적 제약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속초의 옛과 오늘”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해주신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님을 비롯한 집필 ·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

1 속초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19
구석기 시대/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	
2 동예 군장 국가	27
동예라는 나라 있었네	
3 고대 사회(古代社會)	31
고대사회/속초의 변천 과정/속초 부근 군·현 관계/화랑도와 영동	
4 고려 시대(高麗時代)의 변천	39
고려 시대 이 고장의 변천/당시 양양·고성의 행정구역/강원도의 토대, 강릉도/ 고려와 외세의 침입/거란유족의 침입/몽고의 침입/왜구의 침입	
5 속초(束草)의 변천	49
속초의 변천사/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정치, 사상, 이념에 크게 영향끼친 유 학/동학 농민 운동/국난 극복의 의병 항쟁	
6 일제 강점기와 속초	61
1910년 8월 29일, 그 치욕의 날/속초시의 기초가 되는 도천면/지명의 세 가지 변천/청초호 개발과 읍으로의 승격/이 고장의 3·1운동/대포리와 논산리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대포 공립 보통 학교가 설립되다/독립 운동의 조직과 확대/신 간회 양양지회 발족	
7 공산당 치하에서의 속초	73
공산당 치하의 속초/속초애국 동지회 사건/속초의 90인 사건/설악산 핏골 전투	
8 북한 공산군의 남침	79
육이오 전쟁과 속초/제1군단 적진 넘어 북진/5인의 용사들과 그 용맹/민족의 엑 소더스	

차례

9	1954년 11월 17일	85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양/속초, 읍에서 시로 승격/제1공화국과 수복 지구	
10	문헌상 속초 지명의 등장	93
	속새와 속초의 지명/전설 속의 속초	
11	이 고장에 몰아친 사건과 사고	97
	북한 정낙현 공군 소위 귀순/우리 해군 56함 피격 침몰/북한, 어선 10척에 어부 60명 납치/해외 원정 등반 훈련대 조난/KAL기 납북 미수 사건/74년 해경 경비정 피격 침몰/설악산 설악골에 묻힌 산악인들/대화퇴어장의 해난	
12	속초 지방의 지형과 지질	107
	설악산의 지형/수계/경관/설악산의 지질/지질구조/토양/속초해안선의 지형	
13	속초 지방의 기후	117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강수량의 특성/4계절 강수량/속초 지방의 기온/바람의 풍향과 그리고 폭풍	
14	속초 지방의 계절 관측	123
	기후, 식물, 동물, 계절로 관측/태풍의 특징과 영향/기상 특보	
15	속초 지방의 동식물	133
	만주 아구와 시베리아구의 공생(동물)/제주도 다음으로 특산 식물이 많다(식물)	
16	초등 학교에서 전문 대학까지	137
	속초 교육의 여명/이 고장에 닥쳐오는 신학문/강원도 속초 교육청/초등 학교로 불러오기까지의 속내/속초에 불러 오는 중등 교육의 열기/동우 전문 대학	

차례

- 17 **문화(文化)란 무엇인가** 149
문화의 보편적 관념/문화재의 정의/우리 나라 문화재의 분류/속초 문화의 특성/
실향민의 유입으로 문화의 혼합/일반 대중의 문화 향수
- 18 **내 고장 소재 지정 문화재** 157
속초시 소재 지정 문화재/신홍사와 불교 문화재/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설악동 소
나무/조양동 선사시대 사적지/극락 보전/도문동 고가옥/보제루/신홍사 부도군
- 19 **내 고장 문화의 실체** 171
문화의 전달 기능은 튼실한가/내 고장의 문화·예술 행사/내 고장 예술인들 활동
상
- 20 **설악 문화제(雪嶽文化祭)** 177
향토 축제/설악 문화제의 뿌리/설악 문화제의 변천사/속초 시민의 대축제
- 21 **종교 그 어제와 오늘** 183
기독교에서 무속신앙까지
- 22 **내 고장 체육** 191
속초 체육의 싹이 트다/속초 체육회의 탄생과 부흥
- 23 **속초항(束草港)과 수산업** 195
속초항/속초의 수산업
- 24 **내 고장의 농업과 상업** 199
속초의 농업/채소류 생산량/특용 작물/과실류 생산/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예상
작목/속초의 상업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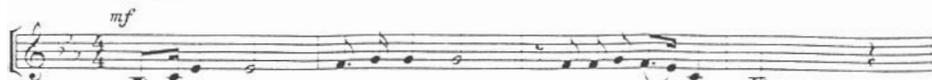
- 25 **아! 설악산** 205
설악산은 관광 자원의 보고/속초 지역의 관광과 그 특성/속초 지역의 관광
- 26 **산수 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213
청초호/영랑호/보광사/척산 온천/영금정/갯배/새섬
- 27 **설악의 진경이 어디에 있을까** 221
설악산 케이블카/권금성 안락암의 무학송/학무정/권금성/토왕성
- 28 **그 높은 뜻을 새기었나니** 227
담과 비(유물재비에서 해경 충혼담까지)
- 29 **내 고장의 전설** 249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울산바위를 지킨 동자승/권금성에 얽힌 이야기/계조암 부근의 매미떼/계조암과 목탁바위/도문동 벼락바위에 얽힌 효심/노학동 파명당과 학/영금정과 징바위/수음바위
- 30 **그 옛날 성터와 남긴 자취** 267
계조굴이라는 각자/비선대 각자/덕산 봉화/대포성터/장골성터/수군 첨사가 거느린 부대터/어느 시대의 군량일까
- 31 **향토 인물(郷土人物)** 273
(가나다순)

속초시가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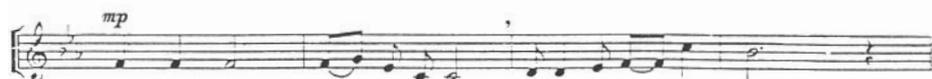
♩ = 92 - 96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이 굽이 아 칠 때 떠 오 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에 새 백 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등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물 네
 이 슬 젖 은 발 - 이 길 로 바 닷 가 거 날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운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늘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 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닳 이 그 - 우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뭍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들 짓 - 자 산 으 로 바 다 향 - 해



우 리 일 짓 - 든 곳 여 기 가 내 고 - 향



속초시의 표상(表象)

시기(市旗)

1. 기면 상반색은 간결하고 신선한 감각으로 결백하고 소박함을 의미하며 유구 평정한 시민성을 나타냄
2. 중앙의 모형 는 녹색으로 밝아오는 동해의 새 아침을 의미하며 향도의 무궁한 발전과 수자원 개발의 어항을 의미한다.
3. 상청 하백의 모형 는 선체의 선단을 표시하며 수자원 개발을 위한 진취성을 의미한다.
4. 위 각모형을 겹친 모형 은 산(山)자를 표시하며 설악산을 배경으로 국제적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의미한다.



시화 국화(市花菊花)

1. 국화는 번식율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속초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2.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회구하는 시민 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목 은행나무(市木銀杏)

1.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2.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 발전을 의미하며 시가 오래도록 보존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시조(市鳥) 비둘기

1.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2. 군서 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 단결을 의미한다.

속초시(束草市)

강원도 북부 동해안의 관광·수산 도시



속 초시(束草市)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면한 항구 도시로 근래에는 설악산(雪嶽山·1,708m)을 비롯한 아름다운 경관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크게 각광을 받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활기찬 도시이다.

면적 104,844km²으로 1995년 현재로 인구 7만 8,549명이며 인구 밀도 750명/km², 총가구수 2만 4,375, 13개 동이다. 시청 소재지는 중앙동(中央洞). 북쪽은 고성군(高城郡), 서쪽은 인제군(麟蹄郡), 남쪽은 양양군(襄陽郡)에 접하며 동쪽은 동해에 면한다.

자연 환경은 서부는 태백 산맥(太白山脈)의 동사면(東斜面)으로 설악 산맥

(雪嶽山脈)이 뺀어 대청봉(大靑峰)·세존봉(世尊峰 1,025m) 등 높이 1,000m 내외의 산지이나 동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져 해안 가까이에서는 높이 200m내외의 구릉과 해안 평야(海岸平野)가 분포되어 있다. 하천은 서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되는데, 유로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양양군과의 경계를 따라 쌍천(雙川)이 흐르고, 중앙에는 청초천(靑草川)이 여러 지류를 합류하여 청초호(靑草湖)로 흘러들며, 유역에는 넓고 비옥한 농경지가 전개되어 있다. 해안에는 석호(潟湖)인 영랑호(永郎湖)와 청초호가 있으며, 이 두 호수 사이에 시가지가 전개되어 있다. 특히 청초호는 천연의 양항(良港)으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어선의 대피 정박항으로 이용되었으나 근래에는 동명항(東明港) 방파제 구축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

남부 동안형 기후에 속하며 겨울철에는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핀Föhn' 현상과 동해안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동위도의 황해안 지방보다 따뜻하다. 강수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 강우량이 적으나 가을과 겨울에 많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2.3℃, 1월 평균 기온 -2.2℃, 8월 평균 기온 24.3℃이며 연평균 강수량 1,313mm이다.

1

선사시대¹⁾

속초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구석기 시대/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舊石器時代)²⁾

우 리 나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70만~1만 년 전으로 뎨석기(타제 석기·打製石器)³⁾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를 채집하여 식생활을 하였던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충북 단양(忠北丹陽)의 금굴 유적으로 70만 년 전의 것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의문시 되었으나, 1940년 일본인 학자(直良信夫)에 의해 지금 북한 땅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咸鏡北道 鍾城郡 潼關鎭)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무시되었으며, 1963년 함북 웅기(雄基)·굴포리(屈浦里)와 1964년 충남 공주 석장리(忠南公州 石莊里)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구석기시대에 일찍이 사람이 살았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고장 속초(束草)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되어 학계에 보고된 것은 없다. 1987년 양구 파로호(楊口 破虜湖) 지역이 구석기 시대 유물의 보고(寶庫)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양구 상무룡리(上舞龍里) 일대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스물 두 군데나 발견되어 우리 나라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몇 군데에서는 찌개·주먹도끼·사냥돌·긁개·망치돌·찌개·밀개·뚜르개·모룻돌 사람 얼굴 모양의 석기(石器)가 수집되었다. 특히 흑요 석제 석기(黑曜石製石器)도 출토된 바 있다.

이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다녔던 석재이므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이동 상황이나 문화의 교류 경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도 가까운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襄陽郡 巽陽面 桃花里)에서도 1984년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溟州郡 江東面 深谷里)에서도 유적지가 발견되어 이런 점으로 헤아려 볼 때 앞으로 속초시 지역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지 발굴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우리 속초에서도 구석기 시대로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氷河期)와 그 사이의 간빙기(間氷期)⁴⁾가 반복되어 자연 환경의 변화가 심했다. 빙하기에는 해면이 낮아져 중국(中國) 대륙과 한반도, 일본(日本)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간빙기에는 기온의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 해안선에도 큰 변동이 있었다.

구석기인들은 '뎨석기'를 이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여 식생활을 했다. 또한 가족 단위로 떠돌아 다니며 동굴과 강가에서 살았다.

주(註) 1) 선사시대(先史時代)

고고학에서의 시대 구분의 하나. 보통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문헌적 사료가 전혀 없는 시대임. 즉 역사시대 이전.

2)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석기 시대에서 보다 오래 된 시대로 대개 70만~1만 년 전에 해당하는데 전기·중기·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뎨석기"를 이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를 채집하여 식생활을 하였던 시대.

3) 뎨석기(一石器)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돌을 두드려 쳐서 만든 도끼·칼·화살촉 등의 도구. 찌개류와 주먹도끼 등이 있음. 타제 석기(打製石器).

4) 간빙기(間氷期) interglacial Period

두 빙하기(氷河期) 사이에 끼어 있는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시기. 저위도(底緯度) 지방에까지 있던 빙하가 녹아서 고위도(高緯度) 지방까지 물러감. 현재는 제4간빙기에 해당함.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대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¹⁾

이 시대는 B.C²⁾ 6000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멘석기' 즉 돌을 때어서 사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 (磨製石器)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제 흙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土器)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생활의 발전된 틀을 갖추게 된다.

속초 지역에서 조사 보고된 신석기 시대 유물이나 유적은 구석기 시대와 같이 발굴된 것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빗살무늬 토기³⁾(즐문 토기·櫛文土器)와 간석기(一石器·마제 석기(磨製石器))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襄陽郡 巽陽面 鰲山里).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江陵市 連谷面 領津里), 사천면 방동리(沙川面 方洞里), 가둔지(加屯地)등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임을 감안하면 속초시 지역에도 사람이 거주했음은 틀림없으며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앞으로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강이나 바닷가라면 더욱 그 발굴 가능성은 높다.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토기(土器)와 석기(石器)가 이전에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한편 양양 오산리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대학교에서 상호 동편 모래 언덕을 발굴, 우리 나라에서 가장 햇수가 앞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밝혀졌다. 주거지에서 발굴된 목탄(木炭)을 햇수 측정한 결과 B.C 60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유적지로 밝혀져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 시작 연대를 2000년 가량 앞당겼다.(전에는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 시작은 B.C4000년 경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유물로는 점토제 안면 조각상(粘土製 顔面彫刻像)·조합식 어구(組合式漁具)·흑요 석제 인기(黑曜石製 刃器)⁴⁾·간돌도끼(磨製石斧)·돌툽·돌살촉

(石鏃)·어망추(漁網錘)·빗살무늬 토기·덧무늬 토기(隆起文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흑요석은 형광 렌트겐 분석 결과 그 원산지(原產地)가 백두산(白頭山·2,744m)지역으로 알려져 당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농경 생활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조·피 등이 재배되었고 농기구로는 돌괘이·돌삽·돌보습 등이 사용되었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아 경계를 이루었던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식량은 큰 몫을 차지하였다. 연장의 발달과 농사의 시작으로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움집이 일반화되었다. 이 시대는 부족 사회(部族社會)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血緣)을 바탕으로 한 씨족(氏族)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이들 씨족은 각각 폐쇄적인 독립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점차 씨족과의 족외혼(族外婚)을 통하여 부족을 이룬다. 그러나 부족 사회 역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 사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원시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註) 1) 신석기 시대(neolithicage)

고고학상의 시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고대 문명에 의하여 종료된 시대로 인간이 정주 생활(定住生活)을 영위하였고, 간석기(마제 석기)가 보급되었으며 생산 단계가 목축 농경으로 이행하던 시대임. 석기와함께 토기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음.

2)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전 서력 기원 이전.

3) 빗살무늬 토기(Kammkeramik)

신석기 시대의 북방계 토기의 하나로 표면에 빗살 같은 평행선이나 물결 모양을 이룬 점선 따위의 무늬를 넣어 알파하게 만들었음. 즐문 토기. 목문 토기.

4) 흑요 석제 인기

유리질의 화산암, 흑색 또는 어두운 회색이고 때로는 적갈색. 선사 시대에 석기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구워서 분말로 하여 단열재에 이용함. 오석(烏石), 흑요석(黑曜石), 흑석(黑石)으로 이 화산암을 이용하여 사냥에 필요한 연장 도끼·칼·화살촉 따위와 같이 날이 선 기구들을 말함.

청동기 시대(靑銅器時代)¹⁾

B.C 1000년경 청동기를 주요 기구로서 사용하던 시대로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鐵器時代)의 중간 시대이다. 서아시아(西Asia)²⁾에서는

B.C 3000년경에 비롯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은(殷)³⁾·주(周)⁴⁾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씨족과 부족이 더욱 넓게 형성되고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선사 시대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는 속초시 지역도 선사 시대로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980년 12월, 나기봉 씨에 의해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磨製石劍)⁵⁾ 1점과 돌살촉(石鏃)⁶⁾ 6점이 현재 강원도 향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1992년 5월 10일, 강릉대학교 백홍기(白弘基) 교수(박물관 관장)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조양동(朝陽洞·옛 溫井里) 택지 개발 지역 3천여 평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고인들은 1992년 10월 13일, 사적 제 376호로 문화부는 지정 고시했다. 이는 선사 시대의 살림집 구조,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의 전환기 만주 요령성 문화(遼寧省文化)의 확산 경로 등의 귀중한 자료로 학계에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조양동 선사 유적과 함께 전남 장성군 장성대도리 백자 요지(白瓷窯址)를 사적 제377호로 지정 고시했다.

강원일보사 김종화(金鍾華) 편집국 부국장은 속초 문화(束草文化) 1992년 발간 제8호 특집 '청동 유적지 및 유물'에서 "선사 문화 연구에 획기적 기회를 마련한 조양동 유적지 발굴 조사는 속초 지역 문화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것으로 흥미해 볼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완벽한 집터가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동기 시대의 집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함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B.C 5세기로 추정되는 고인돌 2기 중의 1기는 길이 194m, 폭 130cm, 두께 19cm, 뚜껑돌 밑에 남북의 길이 172cm 동서의 폭 60cm, 깊이 32cm의 할석으로 만든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바닥위에서는 청동제 부채꼴 주머니·도끼 1점·돌화살촉 등 부장품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무문 토기(無紋土器)가 출토되었다.

속초 부근의 유적으로는 양양군 서면 범부리(襄陽郡 西面 凡阜里)에 고인돌(지석묘 支石墓) 2기, 손양면 금강리(巽陽面 金崗里)에 1기, 손양면 수여리(水余里)에 1기가 남아 있고, 고성군 화진포(高城郡 花津浦) 부근 현내면 죽정리(縣內面 竹亭里)와 거진읍 화포리(巨津邑 花浦里) 등에 여러 기가 남아

있으며, 또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기정리(甘谷里·基丁里), 강현면 정암리·적은리(降現面·釘岩里·積銀里), 손양면·송전리·가평리·학포리·밀양리·하양혈리(松田里·柯坪里·鶴浦里·密陽里·下陽穴里),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杆城邑 新安里), 거진읍 거진리, 화포리, 현내면 죽정리 초도리 송현리(草島里·松峴里), 등지에서 당시 유물인 세형동검(細形銅劍)·간돌검·반달돌칼(半月形刀)·돌도끼·돌살촉·민무늬 토기·가락바퀴(방추차·紡錘車)⁷⁾ 등이 출토되었다. 농경 사회의 진입으로 벼를 재배하였으며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개인 소유와 빈부의 차이와 계급이 발생하며 우세한 부족은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여 원초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를 이루었다. 경제력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당시의 지배층은 고인돌과 같은 큰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다.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주거지는 움집에서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져 갔다.

주(註) 1)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제조·사용한 시대로서 석기 시대의 다음, 철기 시대의 앞에 해당함. 이 시대를 겪지 아니하고 바로 철기 시대로 들어 간 곳도 있음.

2) 서아시아

아시아의 서남부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보통 서쪽은 터키에서 동쪽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까지와 키프로스 및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를 포함함.

3) 은(殷)

중국의 고대 왕조(?~1100?) B.C 탕왕(湯王)이 하(夏) 나라를 몰리치고 세움. 기원전 11세기경, 제30대 주왕(紂王) 때 주(周)의 무왕(武王)에게 망함. 황하(黃河)의 중류 지역을 지배한 부족 국가로 갑골 문자,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점복(占卜)에 의하여 제정(祭政)을 행하였음.

4) 주(周)

중국의 고대 왕조(1050~256B.C) 은(殷)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문왕(文王)이 다스린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무왕(武王)이 은왕(殷王) 주(紂)를 멸망시키고 건국함. 호경(鎬京)에 도읍을 정하고 봉건제를 펼침. 기원전 771년 견융(犬戎)의 침입을 받아 낙읍(洛邑)으로 동천(東遷)함. 동천 이전을 서주(西周)라 하고 그 이후를 동주(東周)라 하는데 제후(諸侯)가 분립하는 춘추전국 시대에 해당함.

5) 간돌검 : 돌을 갈아서 만든 칼.

6) 돌살촉 : 석기 시대에 쓰던, 돌로 만든 화살촉.

7) 방추차 : 물레의 가락. 베틀의 북.

철기 시대(鐵器時代)¹⁾

인류 문화의 발전 단계에서 석기 시대·청동기 시대에 이어 철기를 사용하게 된 시대로 넓은 뜻에서 현대(現代)도 이에 포함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C 400년경 중국계로부터 우리 나라에 철기 문화의 보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로서는 이 시대가 원시 및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추는 고조선(古朝鮮)²⁾의 시기이다. 동양으로서는 이미 B.C 525년에 페르시아 제국³⁾이 오리엔트(orient)⁴⁾의 통일을 이루었으며, 서양은 B.C 509년 로마 공화정의 성립으로 고대 사회(古代社會)가 펼쳐지고 중국이 B.C 400년경에 철제(鐵製)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 영향이 확산되었다. 중국은 이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⁵⁾가 왕성하던 시기이다.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에 초기 국가 동예(東濊)가 있었다.

주(註) 1) 고고학에서, 연모의 재료에 따라 구분한 일류 발전의 한 단계로 석기·청동기 시대의 다음 단계로서 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연모를 만들어 쓰던 시대.

2) 고조선(古朝鮮)

우리 나라 최초의 부족 국가(2333~108 B.C). 단군 왕검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한반도 북서 해안에 위치하였음. 위만이 집권한 이후로 상당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으나 한(漢) 나라에게 멸망당하였음. 단군 조선(檀君朝鮮).

3) 페르시아 제국(persia 帝國)

고대 이란에서 일어난 제국(559~330 B.C) 키루스 2세가 건국하여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을 이룩,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페르시아 전쟁 후 기울어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멸망함.

4) 오리엔트(orient)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로마 시대부터 동방(東方), 곧 서(西)아시아와 이집트를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켜 오던 말.

5) 춘추 전국 시대

중국 기원전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원시 및 초기 국가

동예(東濊) 군장 국가

동예라는 나라 있었다

강원도 동해안에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

동예(東濊)라는 나라 있었다

연맹 왕국 단계의 초기 국가

원시 및 초기의 국가로 강원도(江原道) 동해안에 동예(東濊)라는 나라가 있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군장(君長)¹⁾이 지배하는 군장 사회의 나라가 형성된다. 군장 국가는 연맹 왕국(聯盟王國)²⁾의 과정을 거쳐 중앙 집권 국가인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맹 왕국에서는 족장(族長)들이 자기 부족에 대한 독자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넓은 영토를 직접 통치한다. 동예는 군장 국가와 연맹 왕국(聯盟王國) 단계의 초기 국가 형태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에 고구려(高句麗)에 합치게 된다.

'사기(史記)'³⁾ · '한서(漢書)'⁴⁾ · '후한서(後漢書)'⁵⁾ · '삼국지(三國志)'⁶⁾

등 중국 옛 문헌에 예(濊)에 대한 기록이 많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문헌들에서 '예'를 가리키는 곳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예(濊)'는 맥(貊)·예맥(濊貊)⁷⁾과 함께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사용되지 못한 까닭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지리에 대한 지식 부족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 민족이 중국 서북쪽에서 만주 한반도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이동 전부터 그 이후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한 곳 아닌 여러 곳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에 고구려, 부여(扶餘)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예맥족(濊貊族)은 일찍 나라를 이루지 못하여 계속 '예'라는 민족 이름으로 또는 '동예'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뒤에 이것이 나라의 정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나라의 생활 모습은 '단단 대령(單單大領·-령領은 -령嶺으로 파악되며 지금의 태백 산맥(太白山脈)'의 동쪽에 위치하였다. 전체를 통솔하는 대군장(大君長)은 없고 후(侯)·읍군(邑君)·삼로(三老)⁸⁾ 등 족장들이 각자 자기 부족들을 다스렸다. 고구려와 같은 종족으로 언어와 풍속이 같았으나 의복은 다르다. 땅이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농경·어로 수렵 등으로 경제 생활은 윤택했다.

특히 '산누에'를 쳐서 명주를 짜고 '삼베'도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檀弓)이라는 활과 '과하마(果下馬·조랑말)'·반어피(班魚皮·바다표범 가죽) 등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대개 매년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의식(祭天儀式)을 열었다. 족외의 혼율은 엄했으며 각 씨족마다 생활권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씨족의 경계 안에서는 수렵·어로·경작을 하지 못했다. 만약 침범했을 때는 노비나 소·말로 배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책화(責禍)라고 했다. 동예는 문화면에서는 고대 왕국(古代王國)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달하였으나 씨족 사회(氏族社會)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註) 1) 군장(君長)

원시 부족 사회의 우두머리·군주(君主). 군장 국가는 씨족 사회가 붕괴하면서 세력이 강한 부족장이 여러 읍락(邑落)을 통일하고 점차 그의 권력을 강화하여 이룬 국가. 즉 삼국 시대 이전의 국가 형태.

2) 연맹 왕국

국왕이 출현(出現)하고 국가 조직이 갖추어졌으나 군장 세력이 아직까지 자기 부

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 시대의 초기 단계에 속함.

3) 사기(史記)

중국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이 적은 역사책으로 황제(黃帝)로부터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까지의 역대 왕조의 사적(史蹟)을 기전체(紀傳體)로 기술하였으며 사서(史書) 및 문학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며, 중국 정사(正史)와 기전체의 시초로서 24사(史)의 하나임. 기원전 91년 경에 완성됨. 130권.

4) 한서(漢書)

중국의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기전체로 편찬되었음. 조선전(朝鮮傳) 등이 있어 우리 나라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됨. 120권.

5) 후한서(後漢書)

중국 후한(後漢)의 정사(正史)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송(宋)나라의 범엽(范曄)이 편찬함. 본기(本紀) 10권. 열전(列傳) 80권. 지(志) 30권은 진(晉)나라의 사마표(司馬彪)가 지음.

6) 삼국지(三國志)

여기에서 말하는 삼국지는 정사(正史). 24사(史)의 하나. 서진의 진수(陳壽)가 엮음.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한 것으로, 원(元)나라의 나관중(羅貫中)의 통속 역사 소설, 삼국지 연의(三國志演義)와는 구별됨.

7) 예맥(濊貊)

만주에서 한반도 북동부에 걸쳐 살았던 고대 통구스계 민족. 수렵·목축을 주로 하고, 농경도 행하였음. 그 중에서 부여·고구려 등이 갈려 나왔음.

3

고 대

고대 사회(古代社會)

고대사회/속초의 변천 과정/속초 부근 군·현 관계
/화랑도와 영동

고대 사회(古代社會)

원시 사회와 봉건제 사회와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회로 정착 농업의 발전·농업으로부터의 수공업(手工業)의 분업화·금속기의 사용 등 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씨족이 가족으로 분해되어서 가장(家長)에 의한 생산 수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간이 인간을 수탈하는 가능성이 생기고, 계급 관계의 발생과 더불어 노예제를 가져 오고, 노예 소유자 집단의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형성을 가져 오게 한 사회이다.

부족 사회에서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 작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면서 왕권(王權)이 확대됨에 따라서 율령(律令)이 선포되는 시대이며 불교(佛敎)가 수용되어 중앙 집권하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안으로는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룩하고 밖으로는 정복을 통해 영역을 넓혔던 시대이다.

속초(束草)의 변천 과정

양양과 간성의 연혁은 속초의 변천 내력

속초가 1963년 시(市)로 승격되기까지의 변천 과정은 시 승격 이전은 양양(襄陽)에 속하였으며, 지금 장사동(章沙洞) 지역은 간성(杆城)에 속하였으며, 전통적으로는 고성군(高城郡)과 별도로 간성군이 있었던 것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간성군을 폐지하고 그 영역을 고성군과 양양군에 나누어 속하게 한 것으로 지금도 간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옛 간성군 땅을 고성군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양양과 간성의 연혁(沿革)은 속초의 변천사 내력이 된다. 강원도 동해안의 초기 국가 동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군장 국가·연맹 국가의 단계에서 고구려에 합치게 된다.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太祖王) 때 벌써 함경도(咸鏡道) 동해안 지역의 옥저(沃沮)¹⁾를 정복했으며, 4세기 말, 광개토 대왕(廣開土大王)²⁾때 역시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신라(新羅)에 침입한 왜(倭)를 격퇴시켰다. 동에는 이 무렵에 고구려의 직속 영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양양·고성의 삼국 시대 지명(地名)

양양은 고구려 때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으로 간성은 수성군(遼城郡)으로 일명 가라홀(加羅忽)이었다.

그 후에 속초·양양·간성 지역은 신라의 북상으로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신라에 속하게 된 때는 언제부터인가. 신라 진흥왕(眞興王)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郡)을 취한다는 '삼국 사기(三國史記)'³⁾ 권(卷)4 신라 본기(新羅本紀) 진흥왕(眞興王) 12년 조(十二年條)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 남도(咸鏡南道) 안변(安邊)에 비열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볼 때 진흥왕 12년(551)이나 늦어도 진흥왕 17년(556)부터는 신라에 속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뒤에 고구려의 반격으로 신라의 영역이 남하함에 따라서 종래의 비열홀주는 폐지되고 대신 남쪽 고성(高城)에 진흥왕 29년(568) 달홀주(達忽州)가 설치

되었다.

신라 때에는 양양은 익현(翼峴)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간성은 수성(遼城)에서 수성(守城)으로 고쳐져 9주 가운데 명주(溟州)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으며 영역은 지금 영동(嶺東) 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통일 후에 신라는 문무왕(文武王) 때부터 시작하여 신문왕(神文王) 7년(687)까지 지방 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9주 5소경(小京)으로 완성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는 주(州)·군(郡)·현(縣)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주에는 오늘날의 도지사(道知事)격으로 총관(總管), 후에는 도독(都督)이 있었고(통일 전에는 군주(軍主)라고 하였음.) 군에서는 태수(太守), 현(縣)에는 현령(縣令)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註) 1) 옥저(沃沮)

함경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고조선의 한 부족, 또는 이 족속들이 세운 나라. 남옥저·동옥저·북옥저 등이 있어 다 같이 고구려 제6대 태조왕(太祖王) 때부터 고구려에 속했으며 사회·풍속·제도 등이 고구려와 흡사했다. 옥저는 남옥저를 일컫는다.

2) 광개토 대왕(廣開土大王)

고구려의 제19대 왕(374~413). 휘는 담덕(談德). 불교를 신봉하였고, 영토를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 시대를 이룩하였음.(재위 391~413). 호태왕(好太王). 영락 대왕(永樂大王).

※광개토 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 만주 집안현(輯安縣) 통거우(通溝)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비석.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비석임. 호태왕릉비(好太王陵碑).

3) 삼국 사기(三國史記)

고려 인종 때 김부식(金富軾)이 기전체로 엮은 신라·고구려 백제의 정사(正史). 왕실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삼국 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우리 나라 최고의 사서(史書)임. 1145년에 편찬함. 50권 10책.

속초 부군 군(郡)¹⁾ · 현(縣)²⁾ 관계

지 금 양양인 익령현(翼嶺縣)은 현재 간성인 수성군의 영현(領縣)이었다. 수성군은 익령현과 지금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高成郡 縣內面 山鶴里)에 치소(治所)가 있던 동산현(童山縣)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고구려 때의 지명은

승산현(僧山縣)으로, 일명 소물달(所勿達)이었으며, 고려 때는 열산현(烈山縣), 일명 봉산(鳳山)으로 불리면서 간성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고성군 현내면과 거진읍(巨津邑)이 그 지역이다.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襄陽郡 縣南面 銅山里)에도 익령현과는 다른 동산현(洞山縣)이 있었으며 명주의 직할 영현이었다. 이 현의 고구려 때 이름은 혈산현(穴山縣)이었고 고려 때부터는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에 예속되었다.

삼국 시대에 속초는 속토현(束吐縣)·촉제현(楸堤縣)·동제현(棟堤縣)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오류이며 '삼국 사기' 지리지(地理志)에 명주의 직할 영현으로 촉제현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 때는 속토현(束吐縣)이라고 했다. 한편 신라의 촉제현이 고려 인종(仁宗) 23년(1145)에 펴낸 삼국 사기에 당시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오늘에 와서 속토현·촉제현을 가지고 어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를 속초 지명의 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금 양양인 익령현이 현재 간성인 수성군의 영현이었는데 양양 보다 북쪽에 자리한 속초를 지금 강릉(江陵)인 명주의 영현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속초·양양·고성 변천 내력

고 구 려	신 라		고 려		조 선	현 재
승산현 일명 소물달	수 성 군	동산현	간성현 후에 간성군	열산현 일명 봉산	간성군	고성군
수성군 일명 가라홀		수성군		간성현 후에 간성군		
익현현 일명 이문현		익령현	익령현 후에 양 주	익력현 후에 양주	양양도호부	속초시
혈산현	명주	동산현	동산현	양양군		

군(郡)·현(縣) 밑에는 촌(村)이 있어서 토착인 출신의 촌주(村主)가 그 촌의 행정 업무를 주관하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서원경(西原京)³⁾ 부근 네 곳의 민정 문서를 보면 남녀 별·연령별의 정확한 인구와 소·말·뽕나무·호도나무·잣나무 등의 수를 3년마다 한번씩 통계를 내는 등 노동력과 생산 자원이 철저하게 편제되고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초에도 촌(村)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촌의 속내는 알 길이 없다.

주(註) 1) 군(郡)

우리 나라 행정 구역의 하나로 도(道) 아래, 역사·고제도에서 군아(郡衙)의 준말이며 현재는 군청(郡廳)의 준말. 고을.

2) 현(縣)

고제도의 하나로 지방 행정 구역. 일본의 지방 행정 구역, 한국의 도(道)에 해당함.

3) 서원경(西原京)

통일 신라 시대, 5소경⁴⁾(五小京) 중의 하나로 지금의 청주(淸州).

4) 소경(小京)

신라 때, 정치상·군사상 중요한 지방에 특별히 두었던 작은 서울.

화랑도와 영동 지방

화랑도(花郎徒)의 순례와 영동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영동(嶺東)¹⁾은 신라 화랑도(花郎徒)들이 많이 찾은 유명한 고장이다. 영랑호(永郎湖)라고 불리는 호수의 이름도 신라 화랑의 한 사람인 영랑(永郎)²⁾의 이름에서 붙여진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영랑동(永郎洞)·영랑 초등 학교(永郎初等學校)라고 하는 명칭 또한 이에 연유한다.

신라의 화랑도는 이전부터 있었던 당시의 청소년 조직을 신라 진흥왕(眞興王)³⁾ 37년(576)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었다. 지도자인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낭도(郎徒)⁴⁾로 구성된 화랑도는 그들 일상 생활의 규범과 옛 전통을 배우며 여러 가지 제전 및 의식에 관한 훈련을 쌓고 수렵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 협동과 단결된 정신을 기르며 체력을 연마하였다.

수양에 대하여는 《삼국 사기(三國史記) 권(卷)4·신라 본기(新羅本記) 진

흥왕 37년 조(條)·권(卷)47 열전(列傳) 김흠운(金歆運) 전(傳)》에

“그들은 서로 도의(道義)를 연마하고(或相磨以道義) 혹은 가락(歌樂)을 즐기면서(或相悅以歌樂) 산수(山水)를 찾아다니며 유람하는 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遊娛山無遠不至)”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랑도는 국토 순례(國土巡禮)를 중시했다. 그 가운데 금강산(金剛山)과 관동 팔경(關東八景)⁵⁾의 강원도(江原道)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즐겨 찾은 고장으로 유명하다. 속초의 영랑호(永郎湖)를 비롯하여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사선봉(四仙峰)·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선유담(仙遊潭)·강릉(江陵) 경포대(鏡浦臺) 한송정(寒松亭) 등에는 화랑들에 얽힌 고사(古事)⁶⁾들이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주(註) 1) 영동(嶺東)

강원도 대관령(大關嶺 865m) 동쪽의 땅. 강원도 동해안을 가리킨다.

2) 영랑(永郎)

영랑 선인(永郎仙人), 실존했던 인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선도(仙道)를 닦아 선계(仙界)로 들었다는 화랑도의 한 사람.

3) 진흥왕(眞興王 534~576)

신라 제24대 왕. 성은 김(金). 휘는 삼맥종(三麥宗). 신라 불교(佛敎)의 총본산인 황룡사(皇龍寺)를 지었으며 화랑제도를 두어 화랑 정신을 장려하였음.

· 황룡사(皇龍寺)

경상북도 경주(慶州)에 있던 절(寺). 신라 왕궁을 지을 때 왕룡(王龍)이 나왔으므로 제일 좋은 곳이라 하여 절을 지었으며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에는 9층탑이 세워졌고 백고좌회(百高座會)가 으레 여기서 열려져서 신라 호국신앙(護國信仰)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4) 낭도(郎徒)

지도자인 화랑(花郎)을 따르는 청소년 무리.

5) 관동 팔경(關東八景)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군데의 명승지(名勝地)로 ①간성 청간정(杆城淸澗亭)

②강릉 경포대(江陵鏡浦臺) ③고성 삼일포(高城三日浦) ④삼척 죽서루(三陟竹西樓)

⑤양양 낙산사(襄陽洛山寺) ⑥울진 망양정(蔚珍望洋亭) ⑦통천 총석정(通川叢石亭)

⑧평해 월송정(平海越松亭). 월송정 대신에 흠곡 시중대(歆谷侍中臺)를 넣어 치기도 하며, 영동 팔경(嶺東八景)이라고도 함.

6) 고사(古事)

여기에서는 옛적부터 전해 내려 오는 화랑들에 대한 영동과의 얽힌 이야기를 말함.

이 고장의 불교 문화(佛敎文化)

이 고장은 빼어난 자연 경색(景色)으로 화랑도의 순례지임은 물론, 이름난 고승(高僧)¹⁾들이 즐겨 찾아 찬란한 불교 문화(佛敎文化)를 꽃피웠던 산하(山河)를 가진 자랑스러운 명승지이다.

신라 진덕 여왕(眞德女王) 6년(652) 자장 율사(慈藏律師)에 의하여 신흥사(神興寺)로 변하기 전의 본체(本體)의 향성사(香城寺)가 지금 켄싱턴 호텔 자리에 창건되었으며, 법흥왕(法興王) 7년(520)에 아도 화상(阿道和尚)²⁾에 의해 건봉사(乾鳳寺)³⁾의 변하기 전의 본체 원각사(圓覺寺)가 세워졌으며,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 대사(義湘大師)⁴⁾에 의해 양양에 낙산사(洛山寺)가 세워지고 신문왕(神文王) 8년(688)에는 원효 대사(元曉大師)⁵⁾에 의한 영혈사(靈穴寺)가, 혜공왕(惠恭王) 5년(769)에는 진표 율사(眞表律師)에 의해 화암사(禾巖寺)가 중창(重創)되었다. 선종(禪宗)의 대사찰 진전사(陳田寺) 선림원(禪林院)도 이 당시에 세워진 사찰이다.

옛 형성사 터에 남아 있는 3층 석탑은 보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속초 인근에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신라의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양양 강현면 둔전리의 진전 사지(陳田寺址) 3층 석탑은 국보 제122호로 진전 사지 부도(浮屠)는 보물 제447호, 양양 오색리(五色里)의 성국사(城國寺)의 3층 석탑은 보물 제497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설악(內雪嶽) 장수대(將帥臺) 부근의 한계 사지(寒溪寺址) 3층 석탑 등이 남아 있다.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慶州) 일대를 제외하고는 당시 석탑이 이처럼 남아 있는 고장은 드물 것이니 당시 이 고장에서의 불교 문화의 찬란함을 엿볼 수 있다.

주(註) 1) 고승(高僧)

학덕이 높은 중을 일컫는다. 상대방의 중을 높이어 부르는 말.

2) 아도 화상(阿道和尚)

속초 시지(束草市誌) 45쪽 셋째 행의 첫머리 '아도 화상(阿度和尚)'은 (阿度和尚) 이기에 바로잡는다. 고구려의 승려로 연대 미상. 신라에 불교를 전하려다 실패하여 숨어 있었으나 신라 성국 공주의 병을 고쳐 준 후 미추왕으로부터 불교의 전도를 허락받았다. 화상은 수행을 많이 한 승려를 가리킴. 중의 높임말.

3) 건봉사(乾鳳寺)

현재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신라 법흥왕 7년, 아도(阿道)가 창건한 원각사를

고려 공민왕 7년에 나옹(懶翁)이 중수 개칭. 우리 나라 불교의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성지이며, 임진 왜란 때는 호국 불교의 산실로도 유명했던 사찰임. 사명당(四溟堂)의 의병장으로서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

4) 의상 대사(義湘大師)

신라 통일 시대의 승려. 문무왕 때에 당 나라에 건너 가 지엄(智嚴) 밑에서 화엄(華嚴)을 공부하고 귀국 후 신라 화엄종(華嚴宗)에 공헌한 바 큼.

5) 원효 대사(元曉大師)

신라의 승려. 설총(薛聰)의 아버지 해동종(海東宗)의 시조. 신라 10성(聖)의 한 사람. 민중 불교의 보급에 노력했으며,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을 금하였다.

4

고 려

고려 시대(高麗時代)의 변천

고려 시대 이 고장의 변천/당시 양양·고성의 행정구역/강원도의 토대, 강릉도/고려와 외세의 침입/거란 유족의 침입/몽고의 침입/왜구의 침입

고려 시대(高麗時代) 이 고장의 변천

고려(高麗)¹⁾는 신라 말(新羅末),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豪族)들이 연합하여 이룩한 나라이다. 전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지방 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거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그 지방의 백성들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성주(城主) 또는 장군(將軍)이라 칭하면서 사병을 보유하여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졌다.

최초로 성종(成宗) 2년(983)에 전국 주요 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어, 이 때부터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목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강원도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다. 강원도 지방은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군정(軍政)이 베풀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동북면(東北面) 병마사(兵馬使)²⁾가 다스렸다. 병마사는 함경 남도까지를 맡고 있었으며, 서북면

(西北面) 병마사는 평안도(平安道)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다.

성종 14년(995) 10도(道)가 설치되었는데, 강원도 지역은 대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도는 행정 구역이 아니고, 순찰·감찰 구획에 불과하여 상주하는 장관이나 행정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곧 폐지되었다.

당시 양양·고성의 행정 구역

현 종(縣宗) 9년(1018)에는 4도호(都護) 8목(牧) 56지주군사(知主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설치하였다. 지방 행정 중심지인 4도호부(都護府)³⁾와 8목 이 외에 새로 56개의 주(州)와 군(郡)·28개의 진(鎭)·20개의 현(縣)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력이 비로소 현종 9년에 이르러서 침투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 있었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주와 군이 더 많았다는 것은 완전 통제가 아직은 미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지방 관제 개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志)의 《동국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⁴⁾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현은 현남면 동산리에 있었던 동산현(洞山縣)을 속현으로 거느렸음을 알 수 있다. 또 신라의 수성군이었던 간성에도 고려 시대에 간성현(杆城縣)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현령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성현은 오늘날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高城郡 縣內面 山鶴里)에 있었던 열산현(烈山縣)을 거느리고 있었다.

지금의 양양인 익령현(翼嶺縣)은 고종(高宗) 4년(1217)에 몽고에 쫓긴 거란(契丹)의 침입을 격퇴시킨 공으로 고종 8년(1221)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고을 이름은 양주이고 지방관은 방어사)로 승격되었다. 고종 40년(1253)에는 몽고에 항복하였으므로 고종 41년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고종 44년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으나, 원종(元宗) 1년(1260)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었다.

고려 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前期)에는 익령현, 후기(後期)에는 양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성현(杆城縣)은 그 후에 간성군(杆城郡)으로 승격되어 고성현(高城縣)까지 관장하였으나, 공양왕(恭讓王) 원년에 다시 분리되었다. 고려 시대에 간성은 대체로 간성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은 다섯 개의 도(道), 양계(界)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 행정 구역으로 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양광도(楊廣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이며, 양계는 국경에 설치된 군사 행정 구역으로 북계(北界)·일명 서북계(西北界)와 동계(東界)·일명 동북계(東北界)가 그것이다. 장관으로는 도에 안찰사(按察使, 계에는 병마사(兵馬使)가 임명되었다. 5도와 양계의 설치 시기에 대하여 전에는 현종(縣宗) 연간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양계는 국초(國初)부터 있었고 5도는 그 후에 설치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5도는 근세 조선(近世朝鮮)과 같은 행정 구역이라기 보다는 이전의 10도(道)와 같이 순찰·감찰 구획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강원도(江原道)의 토대, 강릉도(江陵道)

속 초를 비롯한 영동(嶺東) 지방은 동계(東界)에 속하여 동북면 병마사 관할 아래 있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도의 명칭, 소관 구역의 변동이 극심하였다. 명종 8년(1178) 연해 명주도(沿海溟州道)·원종(元宗) 4년(1263), 강릉도(江陵道)·충렬왕(忠烈王) 16년(1290), 강릉 삭방도(江陵朔方道)·우왕(禔王) 14년(1388)에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 등을 통해 추정하면 영동 지방도 계속 동계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 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분리되다가 강릉도가 우왕(禔王) 14년에 영서(嶺西)의 교주도와 합쳐 교주 강릉도가 되어 오늘날의 강원도(江原道)의 토대가 되었다.

주(州)·군(郡)·현(縣) 밑에는 자치적인 행정 조직으로 촌(村)이 있었다. 몇 개의 촌이 합쳐 주와 군과 현을 이루었다. 촌에는 주민 가운데서 뽑힌 촌장(村長)이 있어 수령의 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속초에 어떤 촌락이 있었으며 그 실태가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주(註) 1) 고려(高麗)

한국 고대 왕조(古代王朝). 태봉(泰封)의 장수 왕 건(王建)이 임금 궁예(弓裔)를 내어 쫓고 개성(開城)에 도읍(都邑) 하여 세운 나라로 후백제(後百濟)⁵⁾를 없애고 신라를 항복(降伏)시켜 935년에 한반도를 통일함. 이 시대에는 불교(佛敎)가 전성하고 건축·미술이 한창이었음. 이성계(李成桂)에게 망하여 근세 조선이 되기까지 34대 475년을 누렸음.

2) 병마사(兵馬寺)

고려 때부터 '외직(外職)의 하나로 품질(品秩)은 삼품(三品). 성종(成宗) 8년에 처음으로 동북면과 서북면 쪽에 두었다.

3) 도호부(都護府)

고려 때부터 있던 지방 관아의 하나. 대도호부의(大都護府)의 다음 가는 고을에 두었다. 근세 조선 고종(高宗) 32년(1895)에 없어짐.

4) 동국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근세 조선 성종(成宗)의 명을 받들어 노사신(盧思愼) 등이 대명 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본떠 각도의 지리·풍속 그 밖의 특기 할 만한 사실을 기록한 책. 중종(中宗) 때에 와서 새로 증보(增補)한 것이 있음.

5) 후백제(後百濟)

후삼국(後三國)의 하나. 신라 말기 진성 여왕(眞聖女王) 6년에 상주(尙州)의 농부의 아들 출신인 진훤(甄萱)이 완산주(完山州)에 세운 나라. 처음에는 자못 국세를 떨치다가 건국 후 44년 만에 부자(父子) 사이의 불화(不和)로 견훤이 고려 태조(太祖)에게 항복하고 그 아들 신검(神劍)이 왕이라 칭하다가 고려 태조 친수(天授) 19년에 고려에게 항복하였음.

고려와 외세의 침입

동여진/거란/몽고/왜구

1. 동여진의 고려 침입

고려 시대는 외적의 침입이 극심했던 시대이다. 초기 거란의 침입을 비롯해서 동여진(東女眞)¹⁾의 해적 행위, 거란 유족의 침입과 홍건적(紅巾賊)²⁾ 침입, 왜구(倭寇)³⁾의 침입등이 그것이다. 고려 초기 거란의 세 차례 침입 때 이 고장은 직접 관계는 없었고 그 후 동여진의 해적 행위로 피해를 입는다. 발해(渤海)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女眞族) 가운데 일부가 함경도 일대와 압록강 부근으로 남하하여 반농 반목(半農半牧)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남쪽 농경 사회를 동경하여 추장의 인술로 무리를 지어 고려에 붙어살기를 바라는 바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경도 일대의

동여진(일명 동번 '東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로(海路)를 통해 해적 행위도 자행하였다. 고려사 등 현존 사서에서 찾아도 현종(縣宗) 2년(1011)부터 숙종(肅宗)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로 기록되어 있다. 그 피해 지역은 북으로 문천(文川)·덕원(德源)·안변(安邊)·통천(通川)·고성(高城)·간성(杆城)·속초(束草)·양양(襄陽)·강릉(江陵)·삼척(三陟) 등 함남(咸南)·강원도(江原道) 동해안 및 남으로는 경상도(慶尙道) 해안 지역이었다. 이들 해적은 우리 나라 동해안 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여러 차례 짓밟고 일본 쓰시마(對馬島)·이키(臺岐)·북 규슈(北九州) 연안까지 출몰하였다. 일본 역사에서는 이들을 도이(刀伊)의 적이라 일컫는다.

현종(縣宗) 20년(1029) 5월에 동여진의 무리 400여 명이 동산현(洞山縣·양양)에 침입하였고, 덕종(德宗) 1년(1032) 3, 4월에는 간성 백석포(白石浦·현재 지명 미상)를 노략질하다 90명이 생포되었으며, 문종(文宗) 4년(1050) 6, 7월에는 열산현(烈山縣) 영파수(寧波戍·현재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속초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종 20년 7월에는 삭방도 등주(朔方道 登州·현재 함남 안변), 명주(溟州·현재 강릉) 등 관내 19현이 모두 침략을 받았으므로 조세 감면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이를 섬멸하기 위해 해군 기지로 덕원에 진명 선병 도부서(鎭溟船兵都部署)·정평(定平)에 원흥 진도 부서(元興鎭都部署)·김해(金海)에 동남 해도 부서(東南海都部署) 등을 설치하였다. 또 여진의 침략을 당한 취약 지역에 성(城)을 축조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서북면 보다는 동북면과 동해안 해안에 성을 쌓아 해변의 농장을 보호하게 하였다.

속초 장안골에 남아 있는 성터도 이때 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척산(尺山)에 남아 있었다는 만호 침사(萬戶僉使) 터나, 오늘날의 청초호(靑草湖)인 쌍성호(雙成湖)에 만호영(萬戶營)이 있었다는 신증 동국여지승람(神增東國輿地勝覽)의 기사는 이 사적들이 당시 동여진의 해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 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주(註) 1) 동여진(東女眞)

10세기 이후 만주 지방 동부에 살던, 수렵·목축을 주로 하는 퉁구스계의 민족.

숙신(肅慎)·말갈(靺鞨)과 같은 계통으로 12세기 초에 완안부(完顔部)의 아구다(Aguda)가 요(遼)에서 자립하여 금나라를 세우고, 그 계보를 계승한 누루하치는 17세기 초 나중에 청조(淸朝)로 발전한 후금을 세웠음.

여기에서 '동여진'은 함경도 일대에 출몰하여 해적 행위와 노략질을 일삼던 여진족의 일부를 가리킨다.

2) 홍건적(紅巾賊)

중국 원(元)나라 말기에 허베이(하북·河北)의 한산동(韓山童)을 두목으로 하던 도둑의 무리. 홍두적(紅頭賊)이라고도 함.

3) 왜구(倭寇)

13~16세기에 중국과 우리 나라 근해를 자주 침범했던 일본 해적.

4) 발해(渤海)

고구려의 유장(遺將) 대조영(大祚榮)이 고구려의 유민(遺民)과 말갈족(靺鞨族)을 거느리고 동모산(東牟山)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698-926). 9세기 선왕(宣王) 때 가장 번영하여 중국으로부터 '해동 성국(海東盛國)'이라는 말을 들음.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함. 수도(首都)는 상경 용천부(上京龍泉府).

거란¹⁾ 유족(契丹遺族)의 침입

고려 초기 성종(成宗·고려 제6대 왕 960~997) 때로부터 현종(縣宗·고려 제8대 왕 992~1031) 때까지 세 차례의 거란족의 침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몽고(蒙古)의 침입 직전에 있었던 고종(高宗·고려 제23대 왕 1192~1259) 때 거란족의 침입을 거란 유족의 침입이라 한다.

여진족은 후에 완안부(完顔部)²⁾를 중심으로 강성하여 금(金)을 세워 중국 북쪽을 지배하고, 이전에 요(遼)를 세워 중국 북쪽을 지배했던 거란족을 복종케했다. 그러나 금나라 말기에 거란족은 반란을 일으켜 대요수국(大遼收國)³⁾을 세워 독립을 시도하고, 몽고 고원(高原)에서는 몽고족이 떨치고 일어난다. 이때 거란족은 몽고에게 쫓겨 생활 근거지를 잃고 새로운 땅을 찾아 고종 3년(1216) 고려에 침입해 왔다. 일종의 피난적인 침입이었기에 그들은 처자를 데리고 왔으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식과 가축등을 약탈하였다.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온 거란족은 고종 4년(1217) 5월에 동주(東州·지금 철원)·안양(安陽·지금 춘천)과 원주를 함락시켰다. 그러나 7월에 김취려(金就勵)·최원세(崔元世) 장군 등에게 지금의 원주시 부론면 법천

리(原州市 富論面 法泉里)와 맥곡(麥谷)·제천(堤川)·박달재(朴達峴)에서 크게 패한 거란족은 노약자와 많은 무기를 버려둔 채 남진을 포기하고 대관령(大關嶺·865m) 방면으로 방향을 돌려 강릉(江陵)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가축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거란족은 양양에서 읍민과 지방군에게 크게 패하고 여진(女眞) 땅 함경도로 올라갔다. 양양 향토지(鄉土誌)에는 당시 거란병이 곳곳에 모여 임시 생활을 하였고 현북면 하광정리(縣北面 下光丁里)와 호사평(胡沙坪·되잇불)에서는 간혹 당시 기구가 출토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면 범부리(西面 凡阜里) '되너미고개'는 거란족이 패하여 쫓기어 이 고개를 넘어간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양은 이때의 공으로 고종 8년(1221) 익현령에서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다. 이어 거란족은 고종 5년(1218) 재침했으나 북상하는 고려 군사와 남하하는 몽고 군사에게 쫓기어 평남 강동성(平南 江東城)에 자리잡은 뒤 성의 함락과 함께 모두 포로가 되었다.

주(註) 1) 거란(契丹)

글단→글안·거란. 키타이. 나라 이름.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세움. 뒤에 나라 이름을 요(遼)로 바꾸었음. 9대 210년 만에 금(金)나라에 망함.

2) 완안부(完顔部)

12~13세기에 금(金)나라를 세운 여진의 일족.

3) 대요수국

고려 고종 3년(1216)에 거란 유민 야사불(耶斯不)을 중심으로 걸노(乞奴)·금산(金山)·금시(金始) 등이 지금의 만주 해성(海城)에 세운 나라 금(金)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 건국하였으나, 한 달 만에 부하 청구(靑狗)의 난이 있었으며, 걸노가 감국(監國)이 되어 나라를 다스림.

몽고족(蒙古族)¹⁾의 침입

대 제국을 건설한 몽고는 고종 18년 고려를 침입한다. 이보다 앞서 거란 유족의 침입 때 고려와 함께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던 몽고는 고려에서 몽고로 돌아가던 몽고 사신 저고여(著古與)의 피살 사건²⁾을 구실로 고

려에 쳐들어 온 것이다. 이후로는 고종 46년(1259)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왔으며 고려는 이에 원종(元宗·고려 제24대 왕 1219~74) 11년(1270) 개경³⁾ 환도(開京還都) 때까지 약 40년간 몽고와 항쟁하였다.

고종 40년(1253) 예구(也古·일명 也窟)에 의한 제5차 침입 때 강원도에도 침입한다.

몽고의 침입을 일곱 차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고종 41년(1254)에서 고종 46년(1259)까지 차라대(車羅大)의 침입을 제5차·제6차·제7차의 세 차례로 세분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고종 40년, 예구의 침입은 제4차 침입이 된다.

예구는 개경 방면으로 남하하면서 몽고 헌종(憲宗·몽고 제국 제4대 황제)의 동생 송주(松柱)로 하여금 병력을 이끌고 고주(高州·지금 함남 고원)와 화주(和州·지금 영흥)를 거쳐 철령(鐵嶺)을 넘어 강원도로 남하, 이들은 등주(登州·지금 안변), 통주(通州·지금 통천), 양주(襄州·지금 양양)를 함락시켰다. 이것으로 인하여 양주는 고종 41년(1254) 현(縣)으로 강등되었고 다시 고종 44년(1257) 덕령 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원종 원년(元年·1620) 지양 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었다.

고려 왕정에서는 몽고와의 오랜 항전을 위해 고종 19년(1232) 강화도(江華島)로 피난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산성(山城)과 섬에 들어가 항전할 것을 명하고 각 지방의 산성에 방호 별감(防護別監)을 파견하여 민중의 항전을 독려했다.

고려 승(僧) 익장(益莊)이 쓴 '낙산사기(洛山寺記)'·'신증 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양양 도호부 고적 권금성(權金城)과 불우 낙산사(佛宇 洛山寺)에 인용되어 있다.)에는 '원(元)나라 군사가 우리 강산을 침입,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雪嶽山)에다 성을 쌓아서 이를 막았다.' 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서는 또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권금성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주(註) 1) 몽고족

몽고 제어(諸語)를 사용하는 민족의 총칭으로 전형적인 황색 인종이며 좁은 뜻으로는 몽고 인민 공화국의 할아족(khalkha族)과 중국의 차하르족(chakhar族)을 가

리키며 13세기에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주로 목축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라마 교도임.

2) 저고여(著古與)의 피살 사건

고려 고종 12년(1225)에 우리 나라에 왔던 원(元)나라 사신(使臣) 저고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진족의 습격을 받아 피살 당한 사건으로 후일 원나라는 이것을 고려에 대한 침입의 구실로 삼는다.

3) 개경

지금 개성(開城)으로 고려 때의 이름.

왜구(倭寇)¹⁾의 침입

왜 구는 고려 후기에 전국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방화·살인·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된 것은 충정왕(忠定王·고려 제30대 왕 1337~52) 2년부터인데, 고려 말기(1392)까지 무려 42년 간에 걸쳐 471회의 침략 기록을 조선사(朝鮮史·조선사 편수회)²⁾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그 횟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강원도 지역만도 32회에 걸친 침략의 기록이 남아 있다. 우왕(禑王·고려 제32대 왕(1364~89) 때는 더 극심하여 그 당시만 378회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속초 인근의 침입 기록을 살펴보면 우왕 9년(1383) 10월, 왜구가 동산현(洞山縣·지금 양양 동산銅山)에 침입한 것을 격퇴시킨 기록이 있는데, 원수(元帥)³⁾ 이을진(李乙珍)·부원수 권현룡(權玄龍) 병마사(兵馬使) 곽충보(郭忠輔) 등이 왜구 20여 명을 잡아 목을 베고 말 72필을 노획하였으며 이로써 왜구는 나머지 무리를 거두어 고성포(高城浦)로 물러갔고 또 동북면 출신으로 우왕 3년(1377)에 강릉도 원수(江陵道元帥)와 우왕 6년(1380) 강릉도 상원수(上元帥)⁴⁾로 활약하면서 왜구를 격퇴한 조인벽(趙仁璧)이 말년에 지금 낙산(洛山) 해수욕장 부근 조산리(造山里)에 은거해 그 후에 그를 모시는 동명 서원(東溟書院)이 세워진 것을 볼 때, 이 부근에서의 조인벽의 왜구를 격퇴시킨 활약상을 쉽게 짐작케 한다.

고려 왕정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비책으로 공양왕(恭讓王·고려 마지막 제34대 왕 1345~94) 3년(1391)에는 해변 주민 3정(丁)을 1호(戶)

로 정하고 수군(水軍) 1명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연해 각 지역에서 수군을 두고 수군 도만호(水軍都萬戶)·만호·천호(千戶) 등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다.

현재 청초호(靑草湖)인 쌍성호(雙成湖)에 수군 만호영(水軍萬戶營)이 있었다는 '동국 여지 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은 이 때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세 조선 성종(成宗·근세 조선 제9대 왕 1457~94) 때에 편찬된 '동국 여지 승람'에 이전이라고 하였으므로 고려 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혹 이보다 앞서 동여진(東女眞)의 해적 행위의 방비책으로 설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註) 1) 왜구(倭寇)

13~16세기에 중국과 우리 나라 근해를 자주 침입했던 일본 해적.

2) 조선사(朝鮮史)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 간행한 책으로 우리 나라 고대로부터 고종(高宗) 31년(1894) 6월까지의 편년체*(編年體)의 국사. 각 사항에 연월일을 붙여 연대순으로 배열했고 건명(件名)·사료(史料)를 덧붙임.

* 편년체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연대 순으로 기록하며 중국에서는 '춘추(春秋)'에서 시작됨.

3) 원수

고려 시대에 전시(戰時) 또는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장수.

4) 상원수

고려 시대에 출정군을 통솔하던 대장. 또는 한 지방의 병권을 쥔 장수.

5

근세 조선

속초(束草)의 변천

속초의 변천사/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정치, 사상, 이념에 크게 영향끼친 유학/동학 농민 운동/국난 극복의 의병 항쟁

속초(束草)의 변천사

속 초는 근세 조선(近世朝鮮)¹⁾ 당시에는 강원도 양양 도호부²⁾ 도문면과 소천면(江原道 襄陽都護府 道門面 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점차적으로 행정 구역의 조정과 함께 개편이 진행되어 태종(太宗·조선의 제3대 왕 1369~1422) 13년(1413)에 8도(道)제가 성립되었다.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太祖·조선의 제1대 왕 1335~1408 근세 조선의 창건) 4년(1395)에 충청도(忠淸道) 소속이던 원주(原州)를 이곳으로 옮겨 감영(監營) 소재지로 정하고 종전 명칭인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를 강원도로 개칭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에 일시적으로 현종(顯宗·조선의 제18대 왕 1641~74) 7년(1667)부터 원양도(原襄道)로, 숙종(肅宗·조선의 제19대 왕 1661~1720) 9년(1683)부터 28년(1702)까지 강양도(江襄道), 영조(英祖·조선의 제21대 왕 1694~1776 탕평책을 씀.) 11년(1735)부터 14년(1738)까지 강춘도(江春道), 정조(正祖·조선의 제22

대 왕 1752~1800 인재의 등용과 서적의 보관 및 간행을 위한 규장각을 설치함.) 6년(1782)부터 15년(1791)까지 원춘도(原春道)로 개칭되었던 때가 있었을 뿐 그 밖에는 계속 강원도라 불리웠다. 양양 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의 이전 이름은 고려 고종 8년(1221) 이래 양주(襄州)이었으며 수령(守令)의 직위는 원종 1년(1260) 이래 지사(知事)이었다. 그러던 것이 근세 조선에 와서 태조 6년(1397) 왕의 외가 고을³⁾이라는 이유로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1413)에는 도호부가 되었다. 이어 태종 16년(1416)에는 양주에서 양양(襄陽)으로 개칭되었다. 일시적으로는 광해군(光海君) 10년(1618)부터 인조(仁祖) 1년(1623)까지, 숙종 14년(1688)부터 숙종 23년(1697)까지, 정조 7년(1783)부터 16년(1792)까지, 현(縣)으로 강등되었을 뿐 계속 양양 도호부로 존속되었다. 그 후에 우리 나라 근대화의 분수령을 이룬 갑오경장(甲午更張)⁴⁾때 그 개혁안 중 하나로 1895년 5월 26일 칙령(勅令) 제98호에 의해 종래의 8도의 도제가 폐지되고 23부(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강릉부(江陵府)에 속하게 되었으며, 부(府)·목(牧)·군(郡)·현(縣)이 군(郡)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양군(襄陽郡)으로 고쳐졌다. 갑오경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성이 작용하였으며 곧 아관 파천(俄館播遷)⁵⁾이 발생하여 친러 내각이 수립되자 ‘갑오경장’ 때 시행된 시책의 일부가 바뀌어졌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23부(府)는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로 되어 13도 밑에 7부 1목 331군으로 고쳐진다. 이에 따라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근세 조선에서부터 면(面)·리(里)제가 실시되었다. 종전의 촌(村)이 리(里) 또는 동(洞)으로 개편되었고 몇 개의 ‘리’를 묶어 ‘면’ 또는 ‘사(社)’·‘방(坊)’이라 하였다.

‘면’과 ‘리’는 ‘군’·‘현’과 백성 사이에서 정치적인 명령을 알리고 특히 조세를 독촉하는 등의 지방 관청의 심부름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 자치적 행정 단체이었다. ‘면’·‘방’·‘사’의 ‘장(長)’은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면임(面任)·방수(坊首)·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정장(里正長)·관령(管領)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동(洞)’·‘리(里)’·‘촌(村)’의 장(長)은 존위(尊位)·약수(約首)·동수(洞首)·동장(洞長)·이정(里正)·두민(頭民)·좌상(坐上)·영좌(領

坐) · 통수(統首) 등으로 불려져 지방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주(註) 1) 근세 조선(近世朝鮮)

조선(朝鮮)을 고조선(古朝鮮)과 대비하여 이르는 말.

2) 도호부(都護府)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지방 관아의 하나. 목(牧)의 아래, 군(郡)의 위임.

3) 왕(王)의 외가(外家) 고크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의 고조부(高祖父)인 목조 이안사(穆祖 李安社)라고 양양 읍지(襄陽邑誌)에 기록됨을 가리킨다.

4) 갑오경장(甲午更張)

근세 조선 고종(高宗 · 1894년 갑오년) 31년에 개화당이 집권하여 구식 제도를 진보적인 서양식 제도로 개혁한 사건으로서 일본측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세력을 몰아낸 뒤에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음. 갑오혁신(甲午革新)이라고도 한다.

5) 아관 파천(俄館擄遷)

근세 조선 말기인 1896년 2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 25일까지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서 거처하게 된 사건으로 친러파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Waeber)가 짜고 일으킨 일로, 이 기간에 친러파 내각이 집권했음. 약 1년 후 고종은 내외의 권고와 압력으로 환국함.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

양 양도호부는 부내면(府內面) · 동면(東面) · 부남면(部南面) · 서면(西面) · 현북면(縣北面) · 현남면(縣南面) · 위산면(位山面) · 사현면(沙峴面) · 강선면(降仙面) · 도문면(道門面) · 소천면(所川面) · 남면(南面)과 같이 12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도문면에는 상도문리(上道門里) · 하도문리(下道門里) · 물치리(勿縑里) · 대포리(大浦里) · 웅진리(甕津里)와 신흥사(神興寺)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論山里) · 부월리(扶月里) · 속초리(束草里) · 속진리(束津里)가 있었다.

영조(英祖) 36년(1760)에 '여지 도서(輿地圖書)'와 그 후에 나온 읍지(邑誌)에 동리(洞里)별 호수(戶數) · 인구(人口)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시대 속초(束草)의 호(戶)수와 인구

면	문헌		1760년 여지도서(輿地圖書)				1870년경 추정 관동읍지(關東邑誌)				
	기록사항 동리	양양으로 부터의 거리(수)	호 (戶) 수	인 구			양양으로 부터의 거리(수)	호 (戶) 수	인 구		
				남	여	계			남	여	계
도道 문門 면面	상도문리(上道門里)	30	20	33	33	66	30	61	95	145	240
	하도문리(下道門里)	25	35	44	82	126	25	24	33	58	91
	물치리(勿蠟里)	20	18	19	33	52	20	21	25	41	66
	대포리(大浦里)	25	34	35	69	104	25	23	24	42	66
	웅진리(甕津里)	25	78	107	131	238	25	35	53	74	127
	신흥사(神興寺)	40	20	僧49		僧49	50	21	僧38		僧38
계		205	287	348	635		185	268	360	628	
소所 천川 면面	논산리(論山里)	30	20	39	58	97	30	38	51	54	105
	부월리(扶月里)	30	18	48	38	86	35	52	72	105	177
	속초리(束草里)	35	86	90	182	272	35	47	99	111	210
	속진리(束津里)	35	58	79	96	175	35	51	70	106	176
	계		182	256	374	630		188	292	376	668

면	문헌		1887년경 추정 양양읍지(襄陽邑誌)				1989년 峴山誌	1910년경 추정 현산지(峴山誌)			
	기록사항 동리	양양으로 부터의 거리(수)	호 (戶) 수	인 구			호 (戶) 수	호 (戶) 수	인 구		
				남	여	계			남	여	계
도道 문門 면面	상도문리(上道門里)	25	57	112	111	223					
	하도문리(下道門里)	20	24	28	42	70					
	물치리(勿蠟里)	20	41	69	92	161					
	대포리(大浦里)										
	웅진리(甕津里)	25	29	49	37	86					
	신흥사(神興寺)	50	22	僧48		僧48					
계		173	306	282	588	155	185	237	347	584	
소所 천川 면面	논산리(論山里)	30	16	22	57	79					
	부월리(扶月里)	35	51	71	88	159					
	속초리(束草里)	35	77	103	153	256					
	속진리(束津里)	35	35	40	57	97					
	계		179	236	355	591	201	182	265	374	639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명의 변화이다. '부월리'의 명칭이 가장 오래된 '여지 도서'에

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읍지에서부터는 '부월리'로 기록되어 있다. '외옹치(外甕峙)'의 명칭은 옹진(甕津)이었고 물치(勿淄)의 '치(淄)'자를 이 때에는 '치(緇)'자로 썼다.

둘째, '속초리'와 별도로 '속진리'가 있었다는 점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속진(束津)이 속초(束草)의 옛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셋째, 과거에는 대포(大浦)가 속초보다 컸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제의 강점기 전반에 한정된 것일 뿐이며 이 시대에는 '대포'는 조그만 포구였고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대포는 '속초' 혹은 옆의 '옹진'보다 인구가 적은 동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기록에 속초는 대포영(大浦營)에 속하였고 그 부대장인 수군 만호(水軍萬戶)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대포영'이란 해군 부대는 오늘날의 '대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襄陽郡 襄陽邑 造山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름이 같다는 것만을 가지고 '대포영'이 오늘날의 '대포'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부대장인 '수군 만호'는 지방관 수령이 아닌 까닭에 일정 지역을 통치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장사동(章沙洞) 지역은 간성군 토성면(杆城郡 土成面)에 속했다. 현재 남한 고성군은 간성군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럼에도 군명이 고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제 강점기 초기인 1919년 간성군을 폐지하고 그 대부분 지역을 고성군(高城郡)으로 묶음으로써 비롯한다. 간성은 고려 후기부터 간성군(杆城郡)이었다.

군내(郡內)·해상(海上)·대대(大代) 후에는 '대대(大垔)·오현(梧峴)·오고점(梧古岾)·현내(縣內)·왕곡(旺谷)·죽도(竹島)·토성(土城)의 8개 면(초기에는 '방坊'이라고 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현재는 군내면(郡內面)과 해상면(海上面)을 합쳐 간성읍(杆成邑)으로, 대대면(大垔面)과 오현면(梧峴面)이 합쳐 오대면(梧垔面)을 거쳐 거진읍(巨津邑)이 되었으며 왕곡면(旺谷面)과 죽도면(竹島面)을 합친 죽왕면(竹旺面)으로 현내면(縣內面)·토성면(土城面)과 함께 군(郡)을 이루었음.)

그 중에서 토성면(土城面)은 토성리(土城里)·현재 운봉리(雲峰里)·학야동리(鶴也洞里) 현재 학야리(鶴也里)·원기리(院基里)·현재 도원리(桃

院里 ‘원院터’)) · 동로동리(東老洞里 현재 성대리 <城垔里>) · 인각리(仁角里 현재 인흥리 <仁興里>) · 원암리(元巖里) · 장천리(獐川里) ·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 현재 속초시 장사동 東草市 章沙洞 · 사진리 <沙津里>) · 사야지리(沙也只里 현재 용촌리 <龍村里>) · 광포리(廣浦里 현재 봉포리 <鳳浦里>) · 청간리(淸澗里) · 백촌리(栢村里) 등 12리(里)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천리(獐川里)와 ‘사야진리’가 지금 속초시 장사동 구역이었다.

정치 사상 이념에 크게 영향을 끼친 유학(儒學)¹⁾

근세 조선 왕조(王朝)를 지배한 사상은 유학으로 그 가운데서도 중심은 성리학(性理學)²⁾에 있었다. 고려 말기 신진 사대부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성리학’은 근세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 주자 가례(朱子家體)³⁾의 보급과 가묘의 설립으로 사대부(士大夫)⁴⁾들의 이념과 생활을 지배하였으며, 일반 민중 사회에까지 깊이 영향을 끼쳤다.

이 때의 지방 교육기관으로는 우선 향교(鄕校)⁵⁾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 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과 간성에 향교가 있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향교에는 선성(先聖)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成殿)⁶⁾이 있고 그 당하(堂下) 좌우에는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신 동서양무(東西兩廡)⁷⁾가 있었다. 대성전과 동서양무를 합하여 문묘라⁷⁾ 하였다. 문묘의 앞뜰에는 강학의 명륜당(明倫堂)⁸⁾이 있고 그 좌우에 유생을 기숙시키는 동서 양재(東西兩齋)가 있어 동재(東齋)는 양반, 서재(西齋)는 양반 이하를 수용하였다.

양양 도호부 향교는 종육품(從六品) 교수(教授) 일인(一人)에 교생(校生) 정원은 70이었고, 간성군 향교는 종구품(從九品) 훈도(訓導) 일인(一人)에 교생 정원은 50명이었다.

또 사립 학교로서 중종(中宗) 38년 1543년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⁹⁾이 영풍군 순흥(順興)에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¹⁰⁾을 세운 이후 각지에 서원·향사(鄕祠)가 많이 세워졌다.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造山里)에는 고려 말의 무장 조인벽(趙仁璧)을 모시는 동명 서원(東溟書院)이 있었으

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內勿淄)에 남은 유물재비(兪勿齋碑 원명 물재유 선생 유허비(勿齋兪先生遺墟碑))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희일(勿齋兪晦一)을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던 향현사(鄉賢祠)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書堂)이 있었다. 1911년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¹¹⁾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으며 속초에도 여러 개의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오윤환(吳潤煥)·이석범(李錫範) 같은 한학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주(註) 1) 유학(儒學)

중국의 공자(孔子)를 시조(始祖)로 하는 학문. 요(堯)으로부터 주왕(周王)에 이르는 성천자(聖天子)를 이상으로 하고 인(仁)과 예(禮)를 근본 개념으로 하여, 수신(修身)에서 비롯하여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에 이르는 실천을 그 중심 과제로 함. '역경(易經)'·'서경(書經)' 등이 그 경전임. 우리 나라에도 '논어(論語)'가 도래한 이래 정치·사상·이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 성리학(性理學)

중국 송·명대(宋代)의 유학의 한 계통으로,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논한 유교 철학.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집대성하였음. 우리 나라에는 고려 말기에 들어와 조선시대에 특히 성하였음.

3) 주자 가례(朱子家禮)

중국 명(明)나라 때, 구준(丘濬)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4) 사대부(士大夫)

사(士)와 대부(大夫). 벼슬·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5) 향교(鄉校)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근세 조선 왕조 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 기관. 중앙의 4부 학당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 중기 이후 서원(書院)이 발달되자 그 기능이 약화됨.

6) 대성전(大成殿)

문묘(文廟) 안에 공자의 위패(位牌)를 모신 전각(殿閣).

7) 문묘(文廟)

공자를 모신 사당. 공자 이외에 사성(四聖) 이하 중국 역대의 대유(大儒)와 신라 이후의 우리 나라의 큰 선비를 함께 모심.

8) 명륜당(明倫堂)

유학을 가르치던 곳.(원래는 성균관 안에 있었던 것을 이룸)

9) 주세붕(周世鵬)

조선 시대의 문신·학자(1495~1554). 중종 17년(1522)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 중종 38년(1543) 주자(朱子)의 백록동 학규(白鹿洞學規)를 본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움. 저서로는 '무릉 잡고(武陵雜稿)'가 있고 작품에 '태평곡(太平曲)'·'육현가(六賢歌)' 등이 있음.

10)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

조선 중종 38년(1543년)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에 세운 서원 우리 나라 서원의 시초. 뒤에 소수 서원(紹修書院)으로 개칭됨.

11)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최고 행정 관청.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음. 총독 밑에 정무 총감, 그 밑에 총무·내무·탁지·농상공·사법의 5부가 있었고, 다시 그 아래에 9개의 국이 있었음.

동학 농민 운동(東學農民運動)

1 876년 개항 이후 우리 나라는 근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게 된다. 1894년 전통적인 유교 중심 사회를 개혁하고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난 동학 운동(東學運動)¹⁾은 삼남(三南)²⁾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봉기하였던 농민 항쟁 운동이다.

동학(東學)이란, 근세 조선 철종(哲宗·조선의 제25대 왕 1831~63) 11년(1806)에 최제우(崔濟愚)³⁾가 '제세구민(濟世救民)⁴⁾의 뜻을 가지고 창건한 민족 종교로서 성리학(性理學)과 불교(佛敎)를 배척하고 천주학(天主學)인 서학(西學)을 반대하며 유교·불교·도교는 물론 천주교의 교리까지 흡수하여 인내천 사상(人乃天思想)⁵⁾을 전개하였으며 그 후 민중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아 교세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탄압을 받은 뒤에 천도교(天道敎)와 시천교(侍天敎)로 분리되었다. 천도교(天道敎)라는 명칭은 제3대 교주인 손병희(孫秉熙)⁶⁾가 개칭한 것이다.

천도교인 이돈화(李敦化)⁷⁾의 '천도교 창건사(天道敎 創建史)'에 의하면 이 당시 속초 인근 양양·간성에도 동학이 전래되어 있었다. 1869년 2월에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⁸⁾이 영양 일월산(英陽 日月山)에 은거할 때에 양양 사람 최혜근(崔惠根)·김경서(金慶瑞)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입도한 지 오래되었으나 도를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찾아 왔나이다."

라기에 최시형은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으로 향하여 30여 호를 전도하고 이듬해에 이르기까지 양양 산중(山中)에 2년간 머물렀으며

1872년 1월, 강수(姜洙)와 함께 양양 소밀원(蘇密院)에 나아갔다.

1889년 겨울, 최시형은 간성군 김하도(金河圖)의 집에서 전도를 했고, 90년에는 양구(楊口)·간성(杆城)·인제(麟蹄) 등지를 돌며 전도했다.

1894년 동학 농민군(東學農民軍) 봉기 당시에는 영동(嶺東)보다 영서(嶺西)에 동학이 크게 전도되어 항쟁이 드높았다. 영월·평창·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는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강릉 읍민(江陵邑民)들에게 패하여 평창(平昌) 등지에 주둔한다. 한편 홍천(洪川)에서는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5읍(邑)의 동학 도접주(東學都接主)인 차기석(車箕錫)이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東倉)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양양·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돌려 동지를 모으며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림(儒林)⁹⁾을 중심으로 반격할 조직을 만들어 각 영(嶺)에 배치하여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 농민군을 공격한다. 이때 양양에서는 속초 도문동 출신 이석범(李錫範)이 동생 이국범(李國範)·김익제(金翼濟) 등과 민병(民兵)을 조직하여 구룡(九龍)·신배(新排)·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부연동과 홍천군 내면 조개리를 연결하는 고개 이름)과 응봉(鷹峯)의 세 령으로 출동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 농민군을 공격했다.

주(註) 1) 동학 운동(東學運動)

동학 운동·동학란·동학 혁명으로 부르는 '동학 농민 운동'은 근세 조선 고종(高宗) 31년(1894) 전봉준(全琫準)을 비롯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 운동으로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횡포와 착취에 농민들이 항거한 데에서 발단함. 제폭 구민(除暴救民)·보국 안민(補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척왜 양이(斥倭攘夷)를 주장함. 한때는 관군을 무찌르고 삼남 지방을 휩쓸었으나 청과 일본의 군대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실패로 끝났으며 안으로는 갑오경장의 정치적 혁신을, 밖으로는 청일 전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2) 삼남(三南)

충청도·전라도·경상도를 통틀어 이르는 총칭이다.

3) 최제우(崔濟愚)

천도교 제1세 교주(1824~64) 호는 수운(水雲). 동학의 창설자로 16세 때 출가. 37세 때 동학을 창도(唱導)하였는데, 동학을 포덕한 지 5년 만에 '사도 난정'의 죄목으로 참형되었으며 유저로는 '동경 대전'·'용담 유사'가 있음.

4) 제세 구민(濟世救民)

-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함.
- 5) 인내천 사상(人乃天思想)
천도교의 기본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
 - 6) 손병희(孫秉熙)
항일 독립 운동가로,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1861~1922). 1882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5년 만에 제3대 대도주(大道主)가 됨. 1908년 대도주직에서 물러나, 보성(普成)·동덕(同德)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다가, 3·1운동을 일으킴! 투옥되어 병보석으로 요양 중 사망함.
 - 7) 이돈화(李敦化)
천도교인(1884~?). 1920년 천도교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6월 '개벽'지를 창간, 편집을 주재함. 6·25사변 때 납치됨. 저서에 '인내천 요의(人乃天要義)'·'동학지 인생관(東學之人生觀)' 등이 있음. 호인 '백두 산인(白頭山人)'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8) 최시형(崔時亨)
근세 조선 말기 동학 제2세 교주(教主·1827~98). 교주 최제우의 뒤를 이어 포교에 종사, '등경 대전'·'용담 유사' 등 경전을 저술하여 교리를 확립하였고 교단 조직을 강화하였음. 전봉준·손병희 등의 동학 혁명이 일어나자 동학 교주로서 배후 조종을 담당. 1989년 체포되어 서울에서 처형됨. 1907년 고종의 특지(特旨)로 최제우와 함께 억울한 죄를 씻음.
 - 9) 유림(儒林)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들. 사림(士林).

국난 극복의 의병 항쟁

대한 제국(大韓帝國)¹⁾의 시기에 민족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의병(義兵) 항쟁과 애국 계몽 운동이었다. 의병 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²⁾과 단발령(斷髮令)³⁾에 대한 항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각 지방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는 등 항쟁하였으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권고 조칙(詔勅)⁴⁾으로 9개월 후에는 그 활동이 종식된다.

당시 영동 지역의 의병장(義兵將)으로는 민용호(閔龍鎬)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 곳에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 9군 창의소(關東九郡倡義所)를 설치, 항쟁을 계속했다. 양양 향토지(襄陽鄉土誌)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유진장(留陣將)으로 정학시(鄭學時)가 선출되었고, 후에 이명규(李明奎)로 대체되었다. 민

용호 의병장은 1896년 3월에는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을 계획하여 함남 원산(咸南元山)에서 70리 떨어진 신평장(新坪場)에 집결, 원산을 공격했으나 안변과 선평(仙坪)에서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그 후에 관찰사(觀察使)⁵⁾, 서정규(徐廷奎)의 공격으로 삼척(三陟)으로 남하했다가 태백 산맥을 따라 북상하여 황해도 곡산(黃海道 谷山)·함경도 함흥(咸鏡道 咸興)을 거쳐 만주로 들어가서 재기를 다짐하게 된다.

‘양양 향토지’에 의하면 민병호 의병장이 북상할 때 양양에서 의병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읍(邑)에서 임천리(林泉里)에 이르기까지 전투장화되었으며 민가 30여 호가 불타 버렸다. 이 때에 춘천(春川) 의병 성익현(成益顯)도 합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립 신문(獨立新聞)⁶⁾ 건양⁷⁾ 원년(建陽元年·1896) 6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군수(郡守)가 의병에게 처형되어 중대장(中隊長)이었던 조관현(趙觀顯)이 군수로 정식 부임하게 된다.

러일 전쟁(Russia 日戰爭)⁸⁾ 이후 일제 침략이 적극화되어 ‘을사조약(乙巳條約)’⁹⁾이 체결되자 유생과 농민들이 합세하여 다시 의병을 일으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의병의 구국 운동은 1907년 고종(高宗·조선의 제26대 왕 1852~1919)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우수한 최신 무기와 군대식 훈련을 받은 일본과 대적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박장호(朴長浩)·원용팔(元容八)·민금호(閔肯鎬)·이강년(李康季)·허위(許葦)·이인영(李麟榮) 등을 들 수 있다. 또 인근의 의병장으로는 주광석(朱光錫)·어득수(魚得水)·김해석(金海石)·윤기영(尹起英)·성인호(成仁浩)·김군명(金君明)·우수길(禹守吉) 등이 크게 활약했다.

주(註) 1) 대한 제국

조선의 고종 30년(1897)에 정한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국왕을 황제라 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음.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으로 1910년 멸망함. 대한(大韓)·한국(韓國).

2) 을미사변

고종 32년(1895)에 일본의 자객(刺客)들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민비(閔妃)를 죽인 사건으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등이 친러파 세력인 민비 일파를 거세하고 자기네 세력을 펴기 위해 일으켰음. 이로 인해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파

천함. '민비 시해 사건'.

3) 단발령

고종 32년(1895)에 종래의 상투의 풍속을 폐하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명령. 이로 말미암아 '올미사변'의 왕비 시해 사건을 분노했던 민심이 더욱 자극받아 거족적인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음.

4) 조칙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로 제서(制書), 조명, 조책(詔冊), 금문(金文), 단서(丹書), 등으로 불렀다.

5) 관찰사

조선의 외관직 문관의 종2품 벼슬로, 각 도의 지방 장관으로 지방의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음. 감사(監司), 도백(道伯), 방백(方伯) 줄여서 '관찰'. 관찰 출척사(觀察黜陟使)의 준말.

6) 독립 신문

여기에서는 건양(建陽) 1년(1896) 4월 7일에 독립 협회의 서재필·윤치호가 창간한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을 말하는 것으로 순 한글 신문이며 영자판(英字版)과 함께 발간되었음. 광무 3년(1899) 12월 4일자로 폐간됨.

※ 1919년 이광수(李光洙)가 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창간 발행한 임시 정부의 기관지와는 다름.

7) 건양

고종 때 처음 사용한 연호(年號)로 1896년부터 97년까지 사용하였음.

8) 러일 전쟁

1904~05년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1905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함. 그 결과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묵인 받게 되었고, '라오둥 반도'를 차지하여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노일 전쟁(露日戰爭).

9) 을사조약

조선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으로 한국의 외무 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 특별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체결됨. 다섯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보호 조약, 을사 보호 조약,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 협약,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6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의 속초

1910년 8월 29일, 그 치욕의 날/속초시의 기초가 되는 도천면/지명의 세 가지 변천/청초호 개발과 읍으로의 승격/이 고장의 3·1운동/대포리와 논산리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대포 공립 보통 학교가 설립되다/독립 운동의 조직과 확대/신간회 양양지회 발족

1910년 8월 29일, 치욕의 날

경술 국치(庚戌國恥)

1 910년 8월 29일은 근세 조선 왕조가 제국주의 일본(帝國主義日本)에게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¹⁾으로 일본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침략을 일삼아 오다 ‘청일 전쟁(淸日戰爭)’²⁾과 ‘러일 전쟁(Russia日戰爭)’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국권을 빼앗는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도발과 함께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조선(朝鮮)은 일본의 내정 간섭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³⁾를 강제로 체결하

었다.

그 후에 전세가 유리해진 일본은 우리와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⁴⁾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행정 각부에 일본 고문이 파견되는 이른바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로 러시아(Russia)와 '포츠머스 조약(Portsmouth條約)⁵⁾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식민지화의 계획을 추진하여 보호 정치를 강요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Hague密使事件)⁶⁾을 구실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⁷⁾을 체결하여 정부의 각 부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하는 소위 차관 정치를 행하였다.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 군대를 해산시키고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으며 마침내는 우리의 국권을 빼앗는다. 이로부터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1945년까지 강점하에 놓이게 되었다.

주(註) 1) 강화도 조약

고종 13년(1876)에 우리 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수호 조약으로 '운양호 사건(雲揚號事件)'을 계기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임. 병자 수호 조약

2) 청일 전쟁

1894~1895년에 걸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조선 진출 정책을 취하는 일본은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와 대립하고, 동학 혁명을 계기로 양국은 조선에 출병.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남. 일본군은 평양·황해·웨이하이웨이 등지에서 승리하고,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함.

3) 한일 의정서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한일간에 맺어진 조약으로 일본은 대한 제국을 보호국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주권의 침해가 많았음.

4) 제1차 한일 협약

내정 개선(內政改善)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으로 재정 및 외교에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 사람과 외국 사람을 고문으로 할 것과 일본의 승인 없이 외국과 협약을 맺지 말 것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임. 한일 협약.

5) 포츠머스 조약

1905년 미국 포츠머스에서 조인된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으로 일본 전권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와 러시아측 전권 비테(vitte)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 승인. 관동저우(關東州)의 조차권(租借權), 장춘(長春)과 뤼순(旅順) 사이의 철도 양도, 사할린 남반부의 할양(割讓), 연해주의 어업권을 허락하여 준다 는 것 등이다.

6) 헤이그 밀사 사건

조선 말기, 광무(光武) 11년(1907)에 고종이 이상설(李相高)·이준(李儁) 등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萬國平和會議)에 출석시켜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체결이 일본의 강박(強迫)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 파기하려 했던 사건으로 이준 열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사(憤死)하였음.

7) 한일 신협약

1907년에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한일간에 맺어진 조약.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행정 사법 사무가 통감부(統監府)의 손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합병과 다름없는 내용임. 정미 칠조약(丁未七條約).

속초시의 기초가 되는 도천면(道川面)

제 국주의 일본에 의한 강점기에 일본은 중앙에 총독부를 두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령(府令) 제111호로 전국의 군(郡)을 317개 군에서 220개 군으로 그 밑의 면(面)은 4,338개 면에서 2,521개 면으로 축소 정리하였다.

군의 면적은 약 40방리(方里)¹⁾로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면은 면적 4방리, 호수(戶數)는 800호를 최저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당시의 지방 행정 조직은 전국을 13개도로 크게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가 있었으며, 말단 행정 단위로 읍(邑)·면(面)을 두는 3단계 조직이었다.

이 때부터 양양군 도문면·소천면(襄陽郡 道門面 所川面)이 도천면(道川面)²⁾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束草市)의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고성군(高城郡)은 간성군(杆城郡)에 합쳐졌다. 그러나 1919년에는 반대로 간성군이 고성군에 합쳐져 간성군은 없어지고 간성군 가운데 토성면·죽왕면(土城面·竹旺面)이 양양군에 병합되었다.

1926년에 발행한 도천면의 '면세 일반(面稅一斑)에 의하면 면장(面長)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이 합동으로 면이었다가 1914년에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면사무 직원은 면장 1명·서기 5명, 그리고 면협 의원(面協議員) 10명을 두었다. 면협 의원은 면 협의회 의원으로 일본이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 정치(文化政治)를

실시한다면서 마치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자문 기관 형식의 어용체의 하나이었을 뿐이다.

당시의 도천면은 장항리(獐項里)·상도문리(上道門里)·중도문리(中道門里)·하도문리(下道門里)·내물치리(內勿淄里)·대포리(大浦里)·외옹치리(外甕峙里)·부월리(扶月里)·논산리(論山里)·노리(蘆里)·속초리(束草里)의 11개의 리(里)로 되어 있었다.

주(註) 1) 방리

가로 세로 1리가 되는 면적. 약 3.927km². 전날에, 약 393m²를 한 단위로 이르던 말.

2) 도천면

양양군·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서 도천면이 되는 오늘날 속초시의 바탕으로 기초.

지명의 세 가지 변천

첫째, 속진리(束津里)라는 명칭이 행정 동리에서 사라졌다. 속초리(束草里)와 속진리는 인접한 동리이었으므로 속진리는 합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읍지(邑誌)에도 두 동리가 양양으로부터 거리가 35리로 같게 기록되어 있으며 속진이라는 이름은 속초를 뜻하는 '속(束)' 자에 나룻가를 의미하는 '진(津)' 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도 인접한 동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속초리와 속진리는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하였을까 궁금하다. 속초가 커지기 전까지 속초의 중심지는 지금 등대에서 수복탑(收復塔)까지이다. 일시적으로 영랑동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시가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속초리와 속진리는 등대에서 수복탑 사이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속진(束津)은 나룻가를 뜻하는 '진(津)' 자가 든 것을 보아 지금 등대 부근인 '마쪽'·'새쪽' 마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속초리는 그 서쪽 수복탑 일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속진은 행정 동리 명칭에서 사라졌지만 당분간은 계속 불리워졌다. 이런 뜻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초의 옛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리(蘆里)·중도문리(中道門里)·장항리(獐項里)가 신설되었으며 노리는 지금 노학동(蘆鶴洞) 지역으로 과거에 습지대이었던 곳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늘어 분리 독립되었을 것이며 전에는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엔 상도문리와 하도문리 밖에 없었으나 그 중간에 중도문리가 이 시기에 생겨났다.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지명으로 노루목고개 일대 즉 현재 설악산(雪嶽山·1,708m) 신단지 B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설악동 일대를 가리킨다.

셋째, 물치리(勿縑里)가 내물치리(內沕淄里)로 웅진리(甕津里)가 외웅치리(外甕峙里)로 바뀐다. 이 가운데 위치한 대포리(大浦里)를 중심으로 내물치(內沕淄)·외웅치(外甕峙)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물치(勿淄)의 한자(漢字)가 물치(勿縑)에서 물치(沕淄)로 바뀌었다.

1942년 10월 1일

청초호 개발과 읍으로의 승격

1구(區)에서 4구까지

당 시 대포리(大浦里)는 도천면(道川面)의 면사무소 소재지로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외의 교통이 활발해짐으로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당히 큰 항구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후기에 청초호(靑草湖)가 항구로 개발되고 이 호수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1937년 7월 1일, 면의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명칭도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뀐다. 이 때부터 속초는 면임과 동시에 동리의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府令) 제104호로 속초면은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었으며 속초리는 1구(區)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蘆里)는 도리원리(桃李源里)·이목리(梨木里)·척산리(尺山里)로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고 행정상으로는 17개리가 되었다.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襄陽)은 아직은 면이었으나 속초는 이미 읍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초가 6·25사변 후 실향민들의 남하로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속초의 발전은 속초항(束草港) 개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고장의 3·1운동

유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속 초읍(東草邑)이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운동사를 가지고 있다. 양양의 만세 운동 계획은 유교 계통과 개신교·감리교 계통의 두 갈래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계획은 지금 속초시 도문동(東草市 道門洞)의 이석범(李錫範·중도문리 출신)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일찍이 이석범은 동학 혁명(東學革命) 때 양양 지방의 유학자를 규합하여 영월·평창·정선 등지에서 동학군을 진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관(議官)의 벼슬도 받았던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이었다. 또한 그는 중도문리(中道門里)에 쌍천 학교(雙川學校)를 세워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그가 3·1운동의 양양 지방의 총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련한 유학자로 함평 이씨(咸平 李氏)의 좋은 가문이었고 동학군의 진압과 의관·면장(面長) 등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나, 참여 세력 가운데 쌍천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했을 것이다. 점차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여 후에는 신간회 양양 지회장(新幹會襄陽支會長)으로도 활약하였다.

이석범은 고종(高宗)의 장례에 참례하고 돌아와 3·1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돌아올 때 버선 속에 '독립 선언서(獨立宣言書)'를 숨겨 와서 처음에는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운동을 추진하였다. 동생 이국범(李國範)과 아들 이능렬(李能烈)을 앞세웠고 도천면에는 김영경(金英經)을 강현면에는 장세환(張世煥) 등 쌍천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신은 양양읍 임천리에서 양양의 3·1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석범의 지휘는 물론 또 다른 양양 감리 교회의 세력이 합세해 양양에서는 1919년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 등지에서 4,000여 명 이상의 면민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날의 시위중 손양면 가평리 함홍기(咸鴻基)는 경찰 서장에게 무력 진압을 항의하다 피살되었으며, 경찰의 야간 기습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權炳淵)과 상평리의 김학구(金鶴九) 역시 일본 경찰에 의해 피살되는 등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양양의 시위에 호응하여 도천면과 강현면에서도 4월 5일과 6일에 걸쳐 합동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5일, 물치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계획하

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음력 삼월 삼진날(삼월 초사흘) 4월 5일, 중도문리 이종황(李鍾黃)의 집에서 열린 친목계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러 도천면에서 중도문리 일대는 김국범·김영경이 맡고 대포리와 부월리 방면은 이종순(李鍾淳)·박사집(朴士集)·김정진(金廷鎭) 등이 맡아서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대포리와 논산리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

1 919년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운집하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서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大浦里)로 모여들었다. 주재소는 도천면과 강현면을 관할했는데 도천 면민이 대포리로 모이니 강현면 방면은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군중이 일본인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경찰 이외의 일본인들은 새벽부터 배에 태워 바다에 머물게 하였다. 오전에는 도천 면민들이 대포에 모이며 시위를 펼쳤으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이며 시위하던 강현 면민들이 대포로 몰려와 합세하였다. 당시 강원도 장관(江原道長官)의 4월 6일자 전신 보고에 의하면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이었을 때는 8백 명이라고 했으니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아무튼 군중이 주재소 주변에 모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하니 주재소 수석 이시다(石田喜川郎)는 군중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빌기까지 하였다. 군중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칠 때는 거꾸 절을 하며 돌아가겠다고 굴복하여 쌍방에 무력충돌은 없었다.

4월 6일, 도천 면민과 강현 면민들은 삼베에 도시락을 싸서 망태에 넣어 걸머메고 마을과 마을이 모여 양양읍으로 향하였다. 일부는 4월 4일, 읍에서 만세를 외칠 때 피살당한 김학구의 장례식에 참례하고 소위 장례식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김학구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 사람인데 서면 상평리(西面上坪里) 권성심(權聖心)의 데릴사위로 4일, 만세를 외치다 경찰서 마당에서 일본 경찰의 총탄에 쓰러진 청년으로 면민들은 이 사람의 장례식을 3일 장으로 결정하여 6일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을장으로 치르었다. 상평리에서 침교리(砧橋

里)로 가는 물갑리(勿甲里) 고개에는 침교리 사람들이 빈 상여를 메고 와서 김학구의 시체를 인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날은 도천면과 강현면에서 양양 경찰서를 공격하기 위하여 많은 면민들이 물갑리 고개를 통과하던 중이라 김학구의 시체가 인계 인수되던 현장은 통곡의 마당이었다. 그런데 6일은 사정이 달랐다.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점점 기세를 올리니 이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증원 부대를 보냈는데 4월 5일, 일본군이 원산항(元山港)에 도착하여 1개 중대는 제20사단 제79연대에 편입되어 강릉 방면으로 왔으며 그 가운데서 1개 소대 정도가 양양 지방에 배치되어 양양읍 입구 연창(連昌)에 다다랐을 때 뜻하지 않게 면민들과 일본군이 맞서게 되었다. 시위 군중의 규모는 일본측의 기록으로 볼 때 1,200~1,300명이었다.

면민들은 제지하는 일본군을 밀고 읍내로 진격했으며 경찰서로 몰려 들었다. 마침 손양면 시위 면민 약 300명과 합세하게 되어 그 기세는 더욱 등등하였으나 서로 무력 충돌은 없었다. 경찰 서장은 일본은 물러갈 터이니 면민들은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청하므로 면민들은 만세 시위만 펴고 저녁 때쯤 해산하였다. 이 때에 군수 이동혁(李東赫)을 잡아내라는 면민들의 함성도 높았다고 한다.

4월 8일, 도천면 논산리(論山里)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당시의 구장 김주철(金周哲)과 황명찬(黃明燦) 고을주(高乙柱) 등이 주동하였으며 이 마을에서 술장사를 하던 손계원의 힘을 합쳐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한 농민과 어린이등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8일, 대포리 주재소로 가려했으나 부월리 앞에서 면사무소의 회계 서기 김우규(金字圭)가 만류하여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동 인물들은 태형(笞刑)으로 90대 씩을 받는 고초를 겪었으나, 운동의 성격은 5일과 6일의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대의 명분(大義明分)을 앞세웠을 뿐이며 사실은 소극적이었다. 단 술장사하던 손계원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며 그 후에 자취를 감추었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와 같이 의병(義兵) 출신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말(韓末) 의병 출신들이 술장사 등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 3·1운동 때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뒤로는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포 공립 보통 학교가 설립되다

일 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식민 정책을 가장 악랄하게 적용시킨 것이 교육 분야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합방 직후 1차 조선 교육령을 1911년 8월에 그들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정책을 일본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우민 정책(愚民政策)¹⁾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들의 교육 방침은 ①보통 교육, ②실업 교육, ③전문 교육에 제한되었다. 대학 교육은 일체 허용치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우민 정책을 증명할 수 있다.

학제에 있어서도 자기들 제도와는 사뭇 다르게 편제하였다. 초등 학교의 경우 일본은 소학교 6년제이었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편제는 4년에서 5년으로 하는 보통 학교이었다. 중등 교육 기관은 일본이 5년제 중학교이었던 데 비하여 4년제 고등 보통 학교로 편제, 여자는 3년제로 하였다.

이에 만족치 못한 일본은 다시 사립 학교 규칙을 공포함으로써(1911. 10) 사립 학교의 인가 조건을 강화하여 사립 학교를 줄여 나갔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교육 시설과 우리들 교육 시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인 학생의 취학률이 91.5%이었던 데 비하여 우리의 학생 취학률은 3.7%에 머문다.

3·1운동의 자극으로 1922년 2월에 일본은 소위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 교육령에서는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과 같이 6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 보통 학교는 5년으로 여자 고등 보통 학교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제도의 변화는 3·1운동으로 고양된 우리의 민족 감정을 달래어 식민지 지배 체제를 더욱 굳히자는 그들 문화 정책의 하나이었으며 이로써 교육 시설은 어느 정도 확대되어 갔다. 일본은 당시에 3면 1교(三面一校)를 제도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인 1919년에 대포 공립 보통 학교(大浦公立普通學校)가 세워져 양양군에는 양양 공립 보통 학교(襄陽公立普通學校)에 이어 두 번째 학교로 등장했다. 당시 '면세 일반(面稅一班)'에 1925년, 이 고장 교육에 대한 도표가 실려 있다.

학교별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수	교육비
			남	여	남	여		
공 립	보통학교	1	5		316	19	5	4,523
	소 학교	1	1		11	12	8	2,443
사립 사 속		15	16	1	164	42		1,398
계		17	22	1	491	73	13	8,364

주(註) 1) 우민 정책

지배 계급이 안정적인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비판력을 없애려는 정책으로 체육·연예·오락 등을 조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제국주의자나 독재자들이 즐기는 정책으로 지금은 흔히 '3에스 정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 3S란, 스포츠(Sports)·스크린(Screen)·섹스(sex) 또는 ·스피드(Speed)의 로마자 첫머리 글자를 딴 말이다.

독립 운동의 조직과 확대

대한 독립 애국단

3 · 1운동 후에 상해(上海)에서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고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 투쟁이 활발해졌다. 나라 안에서 독립 투쟁이 전개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鐵原)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 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이 조직되어 임시 정부 지원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속초가 속한 양양 지역에서도 이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대한 독립 애국단은 처음에 서울의 신현구(申鉉九)와 권인채(權仁采)에 의해 조직되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강원·충청·전라도에 도단(道團)을 두고 있었다. 강원 도단은 권인채와 철원의 김상덕(金相德)이 합의하여 철원에 군단을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으며 그 뒤로 철원을 본부로 강원 도단이 결성되었다. 애국단의 임무는 ①임시 정부에 대한 지원. ②독립 운동에 대한 고취(鼓吹). ③일제(日帝) 관직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퇴직 권유. ④임시 정부의 재정 자금 모집과 송금 등이었다.

속초가 속했던 양양에서는 감리 교회(監理教會)의 김영학(金永鶴) 목사가

중심이 되어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양양 감리 교회는 3·1운동 때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김영학 목사는 철원에서 파견된 조종대(趙鍾大)와의 접촉으로 애국단 조직에 박차를 가한다. 목사는 토성면 아야진리(土城面我也津里)의 김형석(金亨錫)을 가입시키고 이어서 토성면 운봉리(雲峯里)의 이근옥(李根玉)·이석규(李錫圭)·이연수(李延洙)·문명섭(文命燮)도 따라서 가입시켰다.

이근옥 같은 사람은 3·1운동 당시에 토성면 일대에 선전지 전단을 배포하면서 항쟁을 계속하였고 애국단 가입 후에는 임시 정부와의 연락이며 건봉사(乾鳳寺)의 자금 조달 등에 힘을 쏟은 애국 지사이었다. 그러나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일본 경찰에 의하여 대한 독립 애국단을 끝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

강원도 최초의 신간회 조직

신간회 양양지회 발족

1 927년에 조직된 민족 운동 단체로 민족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사이에 대립이 생기자, 이에 대비하고자 민족주의자들이 이상재(李商在)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결성한 신간회(新幹會)는 항일 투쟁에 민족 단일 전선을 펴는 것이 그 목적으로 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②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신간회는 본부보다 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전국 각지에 약 140개소의 지회를 두고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1927년 창립 이후 약 5년에 걸쳐 노동·농민 운동과 학생 운동을 지도하였다.

신간회 지회(新幹會支會)의 활동은 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양양에서도 1927년 4월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지회가 결성되었다. 양양면 남문리(襄陽面南門里) 김병주(金炳周)의 집에서 이석범(李錫範)을 회장으로 김현락(金顯洛)·김병환(金炳煥)을 부회장으로 노병례(盧炳

禮)·최완집(崔完集)·이원희(李源熙)·이건충(李建忠)을 각 부서 책임자로 하여 30여 명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가졌다.

신간회 양양지회는 1928년 4월 낙산사(洛山寺)에서 제2차 총회를 가졌을 때는 200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8월 29일을 국치일(國恥日)로 정하고 이 날의 국치를 마음에 새겨 밥 대신에 죽을 먹는 날로 지켰고 그 외의 사업으로 조선 본위 교육 운동·인권 옹호 운동·만주 이민 반대 운동 등 대체로 중앙의 목적과 같이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일제는 양양지회에 대한 집회 금지령을 내렸으나 신간회 회원들은 그 뒤로도 현산 청년회(峴山靑年會)·일초 청년회(一草靑年會)와 농민 조합(農民組合) 등의 이름을 내걸고 항일 운동을 계속 하였다.

7

공산 치하

공산당 치하에서의 속초

공산당 치하의 속초/속초애국 동지회 사건/속초의
90인 사건/설악산 핏골 전투

소련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으로

공산당 치하의 속초

제 이차 세계 대전(第二次世界大戰)¹⁾의 종식과 함께 제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광복(光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깐이었으며 준비없이 맞은 광복이라서 정치 조직은 물론 이를 이끌어 나아갈 핵심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 단체가 난립되어 혼란한 사회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와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내고 있을 때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북으로 진주하였다. 양군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나뉘어 먹기 식으로 점령하였다.

38선 북쪽에 위치한 속초 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북한(北韓)에서는 소련군의 군정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주

도권을 잡고 조만식(曹晩植) 등 민족주의자들을 축출하여 공산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남한(南韓)에서는 대한 민국(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에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토지 개혁(土地改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감행하였다. 1948년 8월에 대한 민국이 정식으로 성립되자 북한은 9월에 이른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독재를 강행하여 북한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47년 말까지 80만 명의 북한 동포가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 사실이 공산 독재 잔혹성의 일면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산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는 한국에 유격대를 침투시켜 유격전을 전개하고 선동과 폭동으로 대한 민국을 전복하려는 야욕을 오늘날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註) 1) 제이차 세계 대전

세계 경제 공황 후에 파시즘 체제를 확립한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주축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개시되어, 독소 전쟁·태평양 전쟁이 이어지는 등 세계적인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주축국이 우세하였으나, 1942년경부터 연합국측의 총반격이 시작되어 1943년 9월에 이탈리아, 1945년 5월에는 독일, 그리고 일본도 소련의 참전과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원자 폭탄 투하 후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여 종전을 맞게 되었다.

반공 투쟁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애국 동지회(愛國同志會)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김종한(金琮漢)·김근진(金近鎭)·김흥종(金興宗)·김종호(金鍾昊)·김태영(金兌泳)·김갑수(金甲壽)·이종석(李鍾奭)·장현중(張鉉重)·박지석(朴智石) 등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 단체이었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이겨 굳은 각오로 지하 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던 중에 탄로되어 이튿날인 2월 19일, 위의 10명 애국 동지 회원들이 모두 양양 내

무서(지금의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를 받다가 다시 소련 점령군 정치 보위부로 넘겨졌다. 증언에 의하면 고문이 가혹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찔러 잠을 못자게 하며, 자루를 씌우고 대나무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한 뒤 찬물을 부어 다시 깨어나게 하는 등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며 심지어 총으로 위협해 화장실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 척하며 유언이 무엇이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성격을 두고 소련 점령군과 인공(人共)의 관할권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이 반소(反蘇) 사건이라면 소련 점령군이 다룰 문제이며 반공(反共)이라면 인공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1개월 동안 끌다가 결국은 반공으로 인정되어 인공으로 넘겨졌다. 그리하여 김중호·김태영·이종석·장현중 등은 양양 내무서에 이감되었고 고재덕·김근진·김홍중·김종한 등은 주동자들이라고 하여 1946년 3월 15일, 원산 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다시 원산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중에 가담 정도가 덜한 김갑수·박지석은 수감 10일 만에 풀려났다.

10일 가운데 고재덕은 주모자라고 하여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이 독방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있던 곳이라고 한다. 마침 고재덕의 매형되는 사람이 강원도 검찰청 소장으로 있어 백방으로 힘쓴 결과 1946년 6월 19일, 사건 기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검찰청 소장으로 고재덕의 매형되는 노재용(盧在容)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高城郡土城面龍村里) 사람으로 평양 대동공업 전문 학교(平壤大同工業專門學校)를 나와 일제(日帝) 때 사회주의 운동(社會主義運動)을 하다가 청주 형무소에 2년 6개월간 복역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반공 투쟁

속초의 90인 사건

속 초 지방에서 일어났던 반공 투쟁으로 일본이 패망하여 일본인들이 몰려가면서 남긴 적산 가옥(敵産家屋)을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 데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김환기(金煥基)·박상희(朴祥喜)·속초읍 초대 읍장)·강래병

(姜來乘)·김용기(金鎔基)·김문수(金紋洙)·김인용(金麟龍) 등 90인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 사이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일부는 하룻밤 고초로 풀려났으나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잡혀갔다고 한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사건의 전모는 상세하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호림 유격대의 반공 투쟁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虎林) 제5대대는 1949년 7월 1일, 봉정암(鳳頂庵)에서 철수하여 대청봉(大靑峰)에서 화채봉(華彩峰)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 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7월 8일, 강현면 상복리(降峴面上福里)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金鍾模)와 김정배(金正培)의 집에서 4일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였으나, 김정배의 조카딸이 남편인 공산 극렬 분자 이종구(李鍾九)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기에 이른다.

호림 부대는 발각된 후에 마을 근처 공산 분자를 색출하여 사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한군과 상복리 핏골(지금 속초시 설악동 C지구) 방면에서 크게 교전하였다. 호림 부대는 이 전투에서 북한 보안 대원 6명, 열성 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들의 희생도 컸다.

주민들의 피해도 많아서 상복리·중복리(中福里)·하복리(下福里) 양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양민들은 대원들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적의 정보까지 탐지하여 유격대를 적극 도왔다. 그러나 반공 청년들은 그 후에 반동죄로 체포 투옥되었으며 6·25 당시 국군이 진격할 때 후퇴하면서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 호림 부대 제5대대는 핏골 전투를 끝내고 계속 북상하여, 9일에는 신선봉(神仙峰)·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1,183m)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추격해오던 적 1개 소대를 맞아 6명을 사살하고 퇴각시켰다. 12일에는 마산봉으로 이동하여 다시 추격하는 적 1개 소대를 맞아 8명을 사살하고 이어 13일은 진부령(珍富

嶺·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간성읍 사이의 태백 산맥을 넘는 고래. 길이 약 60 km.)으로 향하던 중 인제~간성 도로상에서 북괴군 트럭 1대를 공격하여 적 6, 7명을 폭사시켰으며, 15일에는 삼치령(三峙嶺)에 이르러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적진을 기습하여 48명을 사살하고 장총 38정·다발총 6정·기관총 2정과 그 외의 실탄·수류탄과 식량 등을 노획하였다.

제5대대는 금강산(金剛山)의 지류를 따라 북상하여 밧무재를 거쳐 내금강(內金剛)의 국토봉(國土峰) 삼각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아깝게도 북한군 정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백(白) 대장을 포함한 많은 대원이 전사하였다. 100여 명의 전사자를 뒤로 한 채 대원들은 1개월여 화전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8

6·25전쟁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육이오 전쟁과 속초/제1군단 적진 넘어 북진/5인의
용사들과 그 용맹/민족의 엑소더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육이오 전쟁(六二五戰爭)과 속초

육이오 전쟁(六二五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 선 전역에 걸쳐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어 판문점(板門店)에서 오늘날까지도 정전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다.

육이오 전쟁 당시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낙동강(洛東江)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황이었다. 이 때에 유엔(United Nations)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군사적으로 원조할 것을 결정, 유엔군(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군대가 유엔의 깃발 아래 국군과 합동 작전으로 인천(仁川) 상륙 작전에 성공, 뒤이어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고 10월 1일부터는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을 계속하여 동부 전선으로는 청진(淸津)까지 중부 전선은 초산(楚山) 혜산진(惠山鎭)의 압

록강(鴨綠江), 서부 전선에서는 선천(宣川)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공군(中共軍)의 개입으로 전투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다시 한강선까지 물러났으나 전력을 가다듬어 복진하면서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의 전력을 분쇄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서 유엔군과 북한 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 공산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서해안의 웅진 반도(甕津半島)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 공격을 개시, 7개 보병 사단·1개 기갑 사단·특수 독립 연대로 구성된 병력 11만 1천 명·1,610문의 각종 포는 물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를 앞세워 남침하였다.

동해안은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진격 지점으로 전선을 돌파하게 하고 유격 부대인 제766부대 및 육전대(해병대) 제549부대로 하여금 후방에 상륙하여 해안선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속초는 개전 초기에는 접적 지역이 아닌 북한 공산군의 후방 보급 경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공군 출신 한국인으로 편성된 제5사단은 6월 22일 열차편으로 합경북도 나남(咸鏡北道羅南)을 출발, 원산(元山)·속초(束草)를 거쳐 양양(襄陽)으로 이동하여 동해안 일대에 배치되었다. 육전대 제549부대는 속초에 대기하고 있다가 명주군 강동면 강동진과 삼척군 원덕면 임원진으로 상륙하였다.

1950년 6월 8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의 철도는 비상 사태에 들어가 특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여행이 금지되었다. 6월 8일부터 38선을 향하여 남하하는 열차가 줄을 이었고 열차에는 군인·전차·포·차량·마차 등이 실려 있었으며 도로는 자동차 부대로 메워졌다.

1950년 10월 1일

제1군단 적진 넘어 북진

속초의 수복, '국군의 날'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일로 정해

속 초의 수복(收復)은 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제1군 단장(김백일 준장)은 1950년 9월 30일을 기하여 '북한 공산군 추격을 계속하면서 양양(襄陽)을 점령하는 동시에 수도 사단의 38선 진격로를 확보토록' 하는 작전 명령(109호)을 내렸고 그에 의해 30

일 제3사단 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는 삼척(三陟)에서 LST(landing ship for tank 상륙 작전용의 수송함.)로 출항하여 주문진(注文津)에 상륙, 집결하고 있었다. 38선 돌파를 앞두고 제3사단이 이 날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 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는 38선 남쪽 21km 지점 서림리(西林里)로 진출하여 서림~양양 가도를 따라 양양 서쪽 방향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950년 10월 1일 새벽 5시경에,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 진격을 개시하였다.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10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38선을 넘는 순간 이 지역 주민들은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들고 환호하면서 감격하였다. 국군은 저주스러운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리고 뛰다시피 38선을 넘었다. 1950년 10월 1일,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였고 동해와 태백 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 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 대장으로는 김영제(金瑛濟)가 임명된 뒤 11월 22일 김민하(金敏河)로 교체되었고, 그 후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주하는 북한 공산군을 속초 논산(論山·현재 조양동朝陽洞) 앞 들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한편 국군 제1군단 전면의 북한 공산군 제5·제12·제15사단은 그 주력을 원산(元山)으로 북상시키면서 엄호 부대로 하여금 동시에 아군의 전진을 지연토록 하였다.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의 산악지대로 일부 병력을 잠입시켜 기습을 노리고 있었다. 국군 1군단 사령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단 직할 제3·제5유격대를 조직하여 북한 공산군 패잔병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5인의 용사들과 그 용맹

1 951년 7월부터 개성(開城)과 판문점(板門店)에서는 휴전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선(戰線)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후방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共匪)들이 잔악한 살상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산속에 근거를 둔 공비들의 준동(蠢動)은 1950년 말에서 1951년 봄에 걸친 강력한 토벌 작전으로 그 세가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금강 정치 학원을 설치하고 공비를 양성하여 1952년부터 수백 명을 남파시키고 있었다. 속초 지역에서도 공비들이 밤이면 마을까지 내려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1952년 10월, 영랑호(永郎湖) 부근에서 일어난 오용사(五勇士)의 공비 소탕 작전은 공비들의 준동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 것인가를 말하여 주는 좋은 예이다. 영랑호 공비 토벌중 전사한 오용사는, 북한에서 부모 형제가 공산당에 의해 학살되고 재산을 몰수당한 청년들로서, 영랑호 근처에서 공비와 접전, 20여 명을 소탕한 뒤 납치된 주민들을 구하고, 포위 공격해 오는 한 떼의 공비를 맞아 다시 사투를 감행하여 40여 명의 적을 더 사살하였으나, 모두 장렬히 전사(戰死), 영랑 호반(永郎湖畔)에 잠들고 만다.

다섯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김덕범(金德範) 함경 북도

지창하(池彰河) 함경 북도

이기구(李基九) 함경 남도

김병선(金炳善) 평안 북도

김화수(金化壽) 평안 남도

속초 주민들은 이 오용사의 무덤을 영랑호 동남쪽 보광사(普光寺) 남쪽 언덕에 마련하였으며 그 후에 이를 높이 기리기 위해 1961년 8월 15일 '순국 오용사 추모비'를 세웠다. 매년 10월이면 오용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반공 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1981년 4월 5일 오용사의 유골을 화장하여 보광사에 봉안하고 있다.

민족의 엑소더스(exodus)

실향 함경 도민들의 정착지 속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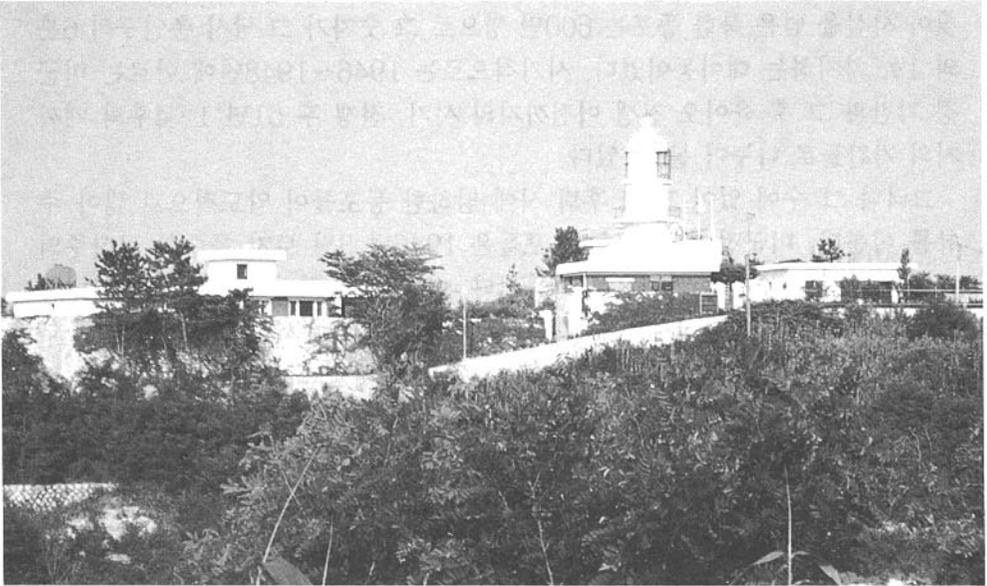
국토의 분단은 북에서 남으로의 민족 대이동을 가져왔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엑소더스(exodus)에 견줄 만한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겪지 못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1951년 1월 4일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북한 동포는 6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그 당시 총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대이동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46~1948년에 이르는 미군정 기간과 그 후 육이오 전쟁 이전까지의 시기, 전쟁 후 51년 1·4후퇴 때까지의 기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에 있어 1·4 후퇴 시에 남하한 동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류를 이룬다. 미군정 때 남하한 동포들은 1946년 3월 토지 몰수와 공산주의자들의 압박에 못이겨 피해온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은 국방 경비대에 입대하여 국군의 기간이 된 이들도 많으며 한편으로는 서북 청년단(西北靑年團)으로 뭉쳐서 남한 각처에서 날뛰던 남로당 세력을 타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1·4 후퇴 때 남하한 동포들은 이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특히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각처에 많은 함경도(咸鏡道) 사람들은 1950년 12월 흥남(興南) 철수 때 미군 L.S.T로 부산에 상륙한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공군이 격퇴되자 국군의 북진과 더불어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가려고 따라 북상하다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이다. 월남한 북한 동포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고향 갈 길이 아득해지자 상흔(商魂)을 발휘하여 속초는 물론이며 각 항구의 상권을 잡았다. 굳센 단결력과 강인한 생활력, 진취적인 활동력으로 각 분야에서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 눈부신 활동을 폈다.

분단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끼는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그들의 염원이 서린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 일명 모자상母子像)이 세워져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 주고 있다. 1954년 5월 10일 제막된, 이 탑은 속초의 상징물로서 김근식(金根植) 당시 속초 읍장(束草邑長)과 이형근(李亨根) 제1군 단장,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노력의 결정이며 탑 정상에 모자상(母子像)은 남루한 치마와 저고리의 여인이 오른손에는 피난 보따리를 들고 왼손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녘을 향해 걷는 모습으로서 있다. 비록 몸은 지쳤

으나 북녘을 응시하는 눈길은 실향민들의 한결같은 눈길이라.



속초 등대/1957년 6월 8일. 첫 점등으로 출발하여 '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 세월을 걸쳐 뱃길의 길라잡이로 성황봉(城隍峰)에 우뚝 솟아 있다.

여기가 속초 1번지. 속초시 영랑동 1의 1번지이며, 1통 1반에 속한다. 성황봉을 경계로 영랑동과 동명동으로 행정 구역이 나누어지고 지금도 토박이들은 새쪽*(영랑동 쪽)과 마쪽*(동명동 쪽)으로 부르는 곳이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8° 12' 06"이며, 동경 128° 36' 01"에 위치한다.

기초상의 높이 10.3m, 둘레 10m, 흰색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축광은 500^w~1000^w로 18초 간격으로 4번의 섬광을 45초 동안 방사한다.

안개와 폭우, 폭설이 내릴 때면 마치 황소의 울음을 연상시키는 공기 압축 무신호가 40초 간격으로 울리며, 1회 울림은 5초 동안이다.

* 동쪽.

* 남쪽을 뜻하는 뱃사람들의 말.

9

민정 이양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양/속초, 읍에서 시로 승격/
제1공화국과 수복 지구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양

육 이오 전쟁(六二五戰爭)으로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 일부 지역이 수복(收復)되었지만 당분간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휴전(休戰) 후에 약 1년이 지나 1954년 11월 17일, 군정에서 민정(民政)으로 행정권이 이양되어 일반 행정 구역이 되었다. 삼 년 간에 걸친 육이오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조인으로 막을 내린 뒤 12시간이 흐른, 밤 10시를 기하여 155마일 전선에서는 포화가 멎고 불안한 정적이 찾아들었다. 이로써 38선은 없어졌지만 군사 분계선이라는 더욱 두텁고 견고한 선으로 남과 북은 대치하게 되었다.

38선이 일직선이었던 데 비해 휴전선(休戰線)은 동쪽으로 높고 서쪽으로 낮은 굴곡선이다. 동해안에서는 38선을 넘어 북진으로 양양·속초·간성·거진·대진 등 잃었던 곳을 회복하였으나 서쪽으로는 38선 이남에 있던 개성

(開城) 등을 잃고 말았다. 강원도는 휴전 성립으로 철원·김화·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일곱 군을 수복하여 판도를 넓히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수복 지구(收復地區)라고 한다. 그러나 양양군(襄陽郡)만이 완전 수복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군(郡)은 일부가 수복되었을 뿐으로 완전 수복된 양양 지구는 1951년 4월부터 군자치 위원회(郡自治委員會)가 다시 구성되고 민정관(民政官)에 박종승(朴鍾勝), 치안 대장(治安隊長)에 김민하(金敏河)가 임명되어 7월 4일 부터 군정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휴전 성립으로 수복 지구의 행정권 이양 교섭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측은 대외적인 정치 문제를 고려해서였는지, 교섭에 소극적이었다. 수복 지구 7개 군은 휴전이 성립된 지 1년, 실제로는 수복 3년 반만인 1954년 11월 17일에서야 비로소 역사적인 행정권 이양에 따라 정식으로 대한 민국 일반 행정 구역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찾은 곳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행정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휴전 직후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세 차례의 절충이 벌어졌고 11월 4일 국회 안에 미수복 지구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권을 점진적으로 인수받도록 하되 방법론이 제기되어 논의를 벌인 결과 제1차로 전지역이 수복된 양양군을 대상으로 삼아 유엔군측과 교섭을 벌이자는 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한

속초, 읍(邑)에서 시(市) 승격

1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미수복 지구에서 수복 지구로 군정에서 민정 이양으로의 역경을 딛고 대한 민국의 일반 행정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민정 이양을 계기로 부월리(扶月里)에서 온정리(溫井里)가, 논산리(論山里)에서 청대리(靑垔里)가 분리되었으며 속초읍 속초리(束草邑束草里)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북한 동포들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1, 2, 3, 4구(區)에서 5, 6구가 신설되었다. 민정 이양된 1954년 당시의 속초읍은 16개 리

(里)로 속초리 1구에서 6구까지 · 부월리(扶月里) · 온정리(溫井里) · 논산리(論山里) · 청대리(靑垚里) · 노리(蘆里) · 도리원리(桃李源里) · 이목리(梨木里) · 척산리(尺山里) · 대포리(大浦里) · 외옹치리(外甕峙里) · 내물치리(內勿淄里) · 상도문리(上道門里) · 중도문리(中道門里) · 하도문리(下道門里) · 장항리(獐項里)가 있었으며, 양양군 토성면의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는 지금 속초시 장사동(章沙洞)으로 1951년 수복될 당시는 속초읍에 속하였으나 1954년 행정 구역 개편에서 양양군 토성면으로 다시 속하게 되었다. 토성면(土城面)은 1919년부터 1962년까지는 양양군에 속했다가, 1963년부터는 고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거 속초읍(束草邑)은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法定里)에 11개 연합리(聯合里)로 되어 있었으나 1966년 1월 1일 속초시의 동명(洞名) 및 구역에 관한 조례(條例)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12개 동(洞)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장사동이 신설 편입되어 현재 법정동 14개 동에 행정동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영랑동(永郎洞 · 면적 0.46km²)
속초리 일구(一區)로 영랑호(永郎湖)에서 영랑을 따서 붙임.
- 동명동(東明洞 · 면적 0.66km²)
속초리 이구(二區)로 동해에서 태양이 밝아 온다는 뜻에서 붙임.
- 중앙동(中央洞 · 0.30km²)
속초리 삼구(三區)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다고 붙인 이름.
- 금호동(琴湖洞 · 면적 1.10km²)
속초리 사구(四區).
- 청학동(靑鶴洞 · 면적 0.24km²)
속초리 육구(六區)를 둘로 나누어 한 곳을 청학동이라 이름하였음.
- 교동(校洞 · 면적 2.43km²)

속초리 육구(六區)가 둘로 나뉘어 그 한 곳을 교동이라 이름을 붙임. 예로부터 향교(鄕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지만 이와는 달리 다만 학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의 옛 지명이 만천동(萬泉(千)洞)으로 교동이라 불릴 만하다.

○청호동(靑湖洞 · 면적 0.29km²)

속초리 오구(五區)로 수복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에 함경도 신향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시 승격과 더불어 동(洞)이름 개편 때 청초호(靑草湖)에서 그 이름을 붙임.

○조양동(朝陽洞 · 5.84km²)

부월리(扶月里) · 온정리(溫井里) · 논산리(論山里) · 청대리(靑岱里)를 합쳐서 소야 팔경(所野八景)의 하나인 논산 조양(論山朝陽)의 “조양”에서 딴 것이다.

○소야 팔경(所野八景)

소야 팔경은 소야천(所野川 · 지금 청초천靑草川)을 중심으로 하는 부근 마을의 경관 중에 빼어난 여덟 가지를 말한다.

○청호 마경(靑湖磨鏡)

청초호(靑草湖)가 깨끗하고 맑아서 마치 갈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는 경관.

○속초 귀범(束草歸帆)

멀리 나갔던 배가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경관. 조도 귀범(鳥島歸帆)으로도 알려져 있음.

○주교 야화(舟橋夜火)

밤에 고기잡이 배의 불이 바다에 비치는 경관. 주교리는 부월리를 구성하는 마을 중의 하나이다. 주교 어화(舟橋漁火)로도 알려짐.

○온정 조하(溫井朝霞)

온정리에는 더운 우물이 있어 여기에서 피어 오르는 수증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서 별갈게 보이는 경관.

○논산 조양(論山朝陽)

논산리에 아침 햇빛이 비치는 경관. 논산 조연(論山朝煙)으로도 알려지고 있음. 이렇게 되면 아침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라는 뜻이 된다.

○청대 화병(靑垚畫屏)

청대산(靑垚山)이 우뚝 솟은 것이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병풍을 둘러 친 것 같다는 경관. 청대 화병(靑垚花瓶)으로도 알려짐.

○노동 명월(蘆洞明月)

노리에는 갈대밭이 넓어 흰 갈대꽃이 만발하면 주위가 밝아서, 마치 밝은 달이 비추는 것 같다는 경관.

○이동 백설(梨洞白雪)

이목리에 흰 배나무 꽃이 핀 것이 눈이 내린 것 같다는 경관.

○도원 홍우(桃源紅雨)

도리원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붉은 꽃이 피었다가 떨어질 때면, 마치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경관.

○척산 야침(尺山夜砧)

척(尺)은 옷감을 재는 자를 뜻함으로, 밤에 옷감을 다듬어질하는 경관을 뜻한다. (현재 노학동 사무소 앞에 소야 팔경이 새겨진 김창흡(金昌翕) 선생의 추념비가 있다.)

○대포동(大浦洞 · 3.06km²)

대포리에 와옹치리 · 내물치리가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대포리는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이 대포(大浦)라고 한자로 표기한데서 유래되었다. 또한 '큰독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문동(道門洞 · 면적 8.25km²)

상도문리(上道門里) · 중도문리 · 하도문리가 합쳐진 동(洞).

○설악동(雪嶽洞 · 면적 54.27km²)

장항리(獐項里)를 설악동으로 개칭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上福二里)를 편입하였다. 종래의 장항리는 노루목고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지금 설악동 B지구를 가리키던 이름으로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의 옛이름인 장항리의 중심 마을이었다.

○노학동(蘆鶴洞 · 20.18km²)

1966년 노리(蘆里) · 도리원리(桃李源里) · 이목리(梨木里) · 척산리(尺山里)를 합쳐서 노학동이라 하였다.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의 학사평(鶴沙坪), '학(鶴)'자를 합자(合字)한 것임. 근세 조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곳으로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인구가 늘어 행정상 노리가 신설되었으며 습지대의 개발과 버dings의 개척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면서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도리원리와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었다.

노리는 노학동의 중심마을이며 '갈골'이라고도 하였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dings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도리원리는 노학동 동북쪽 둔덕에 위치한 마을로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전(口傳)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목리는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을 일컬으며, 돌배나무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전해 오는데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 하던 것이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척산리는 마을뒤 산 이름에서 유래하며 1942년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3년 속초 시승격으로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장사동(章沙洞 · 면적 7.33km²)

장사동만은 과거 고성군 영역이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대통령령(大統領令)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高城郡土城面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가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속초시의 동은 13개가 되었다. 현재 속초시의 법정동은 14개이며 행정동은 13개이다.

장사동(章沙洞)이란 명칭은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의 머리글자에 따른 것이다.

장천리는 영랑호(永郎湖)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는 노루목고개에 유래하는 '노루장(獐)' 자를 썼다고 한다. 앞냇가를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章川)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사진리(沙津里)는 근세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본래 바다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이어 육지가 형성된 것으로 '모래기'라고 불리던 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제1공화국과 수복 지구

초대 이승만 대통령 수복 지구 시찰

1 954년 11월 17일 군정(軍政)에서 민정(民政)으로의 이양이 있기 바로 1년 전인 1953년 11월 8일, 휴전협정 일인 7월 27일로부터는 약 3개월이 겨우 지난 이날 대한 민국의 초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미수복 지구로 육이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속초에 도착했다. 미수복지구를 시찰하고 주민을 격려하려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의 시찰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행정권 인수를 위한 최종적인 복안이 아닌가 해서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비행기 편으로 도착하여 약 6시간 동안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속초·양양 지방의 실정을 살폈다. 대통령의 시찰은 일선 시찰을 겸한 것이어서 미군8군 사령관·손원일(孫元一) 국방부 장관·백한성(白漢成) 내무부 장관·백선엽(白善燦) 육군 참모 총장·이형근(李亨根) 제1군단 단장·최규옥(崔圭鈺) 강원도 지사·홍병식(洪秉寔) 강원도 경찰 국장 등이 수행하였다.

수복 지구의 행정권 이양은 이때까지의 유엔군의 유보적인 미온책으로 휴전 협정후 1년이 지난 1954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8월 12일, 유엔 한국 위원회는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 민국 정부(大韓民國政府)로 정식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8월 28일, 수복 지구 행정 인수 위원회를 조직하여 10월 3일에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에 수복 지구 행정권을 인수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제반 인수 절차가 이루어졌다. 국회는 이에 맞추어 1954년 9월 29일, 제51차 본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법은 정부로 옮겨져 10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수복 지구 행정권 인수식이 1954년 11월 14일에 있었다. 11월 15일 철원(鐵原)·김화(金化), 11월 17일 화천(華川)·양구(楊口)·인제(麟蹄)·고성(高城)·양양(襄陽) 등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찾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시 행정 조치법에 따라서 일반 행정 및 교육 행정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수복 지구는 북한 공산당 통치 아래 있었고, 육이오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쟁 이재민으로 구호 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내려진 이 조치는 다음과 같았다.

- ① 읍면(邑面)에 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② 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세무 서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일반 행정 및 세무 행정 등을 관장하여 일원화를 기한다.

강원도는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즉시 군수(郡守)를 임명하여 행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으로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서둘렀다. 속초가 속한 양양군 초대 군수(郡守)에는 김주혁(金周赫)을 임명하였다. 김 군수는 군정 때인 1953년 11월부터 양양 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때 군(軍)의 민정관(民政官)을 군수로 읍면(邑面)의 민정관을 읍장(邑長)·면장(面長)으로 대체하였다.

10

지명·전설

문헌상 속초 지명의 등장

속새와 속초의 지명/전설 속의 속초

문헌상 속초 지명의 등장

속새와 속초(束草)의 지명

속 초리(束草)는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5리의 거리에 있으며, 집의 수효는 86호이며 남자 90명·여자 182명이다(束草里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여지 도서(輿地圖書). 근세 조선(近世朝鮮) 영조(英祖) 36년(서기 1760년) 편찬.)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속초(束草)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속초는 근세 조선 시대엔 양양 도호부¹⁾ 소천면 속초리(襄陽都護府所川面束草里)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그러면 속초(束草) 지명의 유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967년 한글학회(한글學會)에서 발행한 '한국 지명 총람2' 강원도 속초시(江原道束草市) 편에 "속초(束草)를 일명 '속새'²⁾·'속진(束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또 다른 곳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江原道洪川郡東面東草里)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江原道平昌郡道岩面屏內里)에 '속새골' 일명 '속상동(束上洞) 등으로 불리는 곳에 속새 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속초리는 '속새울' · '속새골' 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새' 가 많은 데서 유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속초(束草)는 '속새' 라는 풀(草)을 한자(漢字)로 표기함으로써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86년 이영택(李泳澤) 이 지은 '한국의 지명(韓國地名)', '음운 지명(音韻地名)' 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속사(束沙) · 속시(木賊) · 속새(銼草 · 어욱새)를 이두(吏讀)³⁾로 속사(束沙)라고 표기한다. 황무지와 들판에서 자라는 속새과(속새과 · 속새 + -人- + 과)⁴⁾ 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사근(沙斤)이나 들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속새' 라는 지명을 가진 곳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속사곶리(束沙串里)

김포군 금단면 왕길리(金浦郡黔丹面旺吉里)

○속사리(束沙里)

진양군 금산면(晉陽郡琴山面).

○속사동(束沙洞)

김화군 원북면 당현리(金化郡遠北面堂峴里) 회양군 상북면 신명리(淮陽郡上北面新明里). 내금강면 병이무지리(內金剛面竝伊武只里). 곡산군 이녕면 추전리(谷山郡伊寧面楸田里). 고원군 운곡면 운흥리(高原郡雲谷面雲興里).

○동속사동리(束東沙洞里)

회양군 내금강면(淮陽郡內金剛面)

○속사참(束沙站)

영월군 대흥면 사창리(寧遠郡大興面社倉里). 강계군 입관면 운송동(江界郡立館面雲松洞).

○속사리(束沙里)

평창군 용평면(平昌郡龍平面). 문천군 운림면 마한리(文川郡雲林面馬汗里). 장진군 상남면(長津郡上南面). 동문면(洞門面). 삼수군 금수면(三水郡襟水面).

이렇게 보면 '속새' 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地名)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속초에도 '속새'가 많으므로 황무지·들판의 뜻으로 '속새' 또는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다가 한자 표기, 속초(束草)라는 지명만이 남고 '속새'는 사라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이 고장의 본토박이 노인들은 속초를 '속새'라고 불렀음을 기억하고 있다.

주(註) 1) 도호부

고려 시대부터 있던 지방 관아. 목(牧)의 아래, 군(郡)의 위임.

2) 속새(Equisetum hyemale)

양치 식물(羊齒植物) 속새과에 속하는 상록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30~60cm. 가운데가 비었으며, 가지는 없으나 마디가 뚜렷함. 잎은 퇴화하여 잎집 같이 되고 잎집에 톱니처럼 생긴 것이 있으며 10~18개씩임. 포자낭수(孢子囊穗)는 원줄기 끝에 달림. 줄기는 규산염이 들어 있어 빨·목재로 만든 가구를 닦는 데 씀. 한방에서는 전초를 장출혈과 지혈제로 씀. 한국·일본·캄차카·만주·시베리아·히말라야·유럽 및 북아메리카 등지에 분포함. 덕옥새, 목적(木賊).

3) 이두

신라 때부터 한자(漢字)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으로 설총(薛聰)이 정리하였다고 함. 넓게는 향찰·구결 등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한문을 국어 문장 구성법에 따라 배열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가리킴. 고려·조선 시대에는 관용(官用) 문서에 서리들이 주로 사용했음.

4) 속새과(Equisetaceae)

속새류의 한 과. 물쇠뜨기·속새·쇠뜨기 등이 이에 속함.

전설 속의 속초 지명

영금정/울산바위/풍수 지리

속초(束草)는 '묶을 속(束)'자에 '풀 초(草)'자를 쓰며,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된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어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또, 풍수 지리(風水地理)적으로 속초 지형이 와우(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마음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草)을 묶어(束)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1983년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가 발행한 '한국의 발견' 강원도 속초시 편에서는 '울산바위' 전설과 함께 '속초 지명의 유래'를 위의 전설과 연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물주가 금강산의 경관을 빼어나게 빚으려고 잘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불렀다. 경상 남도 울산에 있었던 큰바위도 그 말을 듣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으나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 느낌보 걸음걸이다 보니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은 모두 빚어지고 말았다.

울산바위는 그 한 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고향 울산으로 돌아갈 체면도 없어 설악산에 눌러앉고 말았다.

한편 설악산 유람길에 나섰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울산바위에 얽힌 전설을 듣고 신흥사 스님에게 울산 바위는 울산 고을의 소유이니 신흥사에서 그 차지한 대가(對價)로 셋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를 받아 갔는데 어느 해인가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부터는 세를 줄 수 없으니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이에 울산 고을 원님이 바위를 재로 쪼른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하였더니 동자승은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 많이 자라고 있는 풀(草)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매 새끼를 불에 태워 재로 쪼른 새끼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의 원님은 이 바위를 가져갈 수 없었으려니와 세를 내라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가 한자로 '묶을 속(束)'자와 '풀 초(草)'자를 써서 속초(束草)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을 풀과 묶음에서 찾고 있지만 모두 전설적일 뿐이며 그 이상일 수 없다.

11

사건 · 사고

이 고장에 몰아친 사건과 사고

북한 정낙현 공군 소위 귀순/우리 해군 56함 피격 침몰/북한, 어선 10척에 어부 60명 납치/해외 원정 등반 훈련대 조난/KAL기 납북 미수 사건/ 74년 해경 경비정 피격 침몰/설악산 설악골에 묻힌 산악인들/대화되어장의 해난

1960년 8월 3일 속초 비행장

북한 정낙현 공군 소위 귀순

1 960년 8월 3일 12시 36분 북한 공군 정낙현(鄭洛賢) 소위가 MIG15 제트기(jet)를 몰아 속초 비행장(당시 육군 제5비행장·대포(大浦) 비행장)에 착륙, 귀순하였다.

정낙현 소위는 북한 공군 제2사단 제26연대(36875부대) 제1중대 책임 조종사였으며 당시 24세로 평안북도 영변 출신이었다. 평소부터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는 3일 오전 4대의 MIG제트기에 편승한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 중,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고 남하, 속초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다.

우리 해군 56함 피격 침몰

1 967년 1월 19일, 오후 2시 34분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 중이던 해군 한국 함대 동해 경비 분대 소속 PCE56함 당포호(唐浦號·650배수<排水>톤·함장 김승배<金承培> 중령·승무원 79명)가 북한 육상 포대로부터 20여 분에 걸쳐 200여 발의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교전 하던 중에 피격 침몰되었다. 이 교전에서 전사자 39명·중상자 14명·경상자 16명이 발생하였고 회복되어 무사한 장병은 10명 뿐이었다.

이날은 갑자기 추위가 풀린 탓인지 오전부터 속초·거진(巨津)·대진(大津) 등 전국에서 200여 척의 어선이 몰려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56함은 53함·65함·기함(旗艦)인 71함과 함께 가나다라순으로 휴전선을 경비했었다.

오후 1시 30분, 때마침 북한 장전항(長箭)항에서 PBL 스카우 구축함 2척이 시속 20노트의 속력으로 우리 어선단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휴전선에 대기 하던 우리 해군 56함도 어선들의 남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속력을 내어 어선들을 따라가며 5발의 위협 신호를 올려 어선단이 남하할 것을 경고하였다.

우리 해군의 56함은 북한 동굴 기지 육상 포대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았는데, 1시 57분 첫 포탄이 조타실에 명중되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동요하면서 남하하기 시작했다. 다시 적의 집중 포격으로 후부 기관실(B-12 기관실)이 명중되어 56함은 전부 기관(B-11 기관)만으로 남하하다가 90도 각도로 좌회전하여 적의 육상 포대로부터 멀어지려 했으나 계속 되는 적의 포격으로 전부 기관(B-11 기관)마저 파괴되어 완전히 기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56함도 3인치와 40밀리포탄 100여 발을 퍼부었으나 포마저 파괴되어 함체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때가 2시 25분이었다. 기함인 71함의 함장 박 대령은 53함으로 하여금 56함을 예인하도록 명령하고 공중 지원을 요청했다.

적의 파편에 맞아 부상한 함장이 대원에 끌려 브리지에 내리지고 부함장 황소령이 56함을 계속 지휘하며 2시 31분 전원 퇴함 명령을 내렸다. 53·65함으로 부상병을 옮겼을 때는 56함은 완전히 가라 앉고 말았다. 이때가 2시 34분이었다.

기함 71함이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 구조에 나섰고 3시 15분 공군 F5 A기 2대가 공중에서, 지상에서는 탱크가 대기하고 있었다. 조난자들은 71함에 18

명, 53함에 33명, 65함에 1명이 구조되었고 4시 22분에는 56함과 최후를 같이한 28명의 진혼제를 마친 후 5시 32분 71함과 65함은 현장을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56함 승무원 79명 중 51명이 구조되었으나 구조 후 11명이 사망하여 실종자 28명과 도합 39명의 젊은 해군 장병들이 56함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했다.

한편 이같은 만행에 대하여 당시 김영관(金榮寬) 해군 참모 총장은 21일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를 비롯한 해군 전 함정에 비상 전투 태세가 명령되어 적의 도발이 있으면 언제라도 즉각 반격하여 보복할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오전 판문점(板門店)에서는 제239차 군사 정전 위원회 본회의가 열려 유엔군측 치콜렐라 소장이 경고없는 공격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하는 한편 공산군측의 야만적이고도 악랄한 휴전 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나 북측은 오히려 56함의 침범에 대한 자위적인 행위라며 상투적인 수법을 내세웠고 더욱이 56함 침몰 뒤 71·65·53함이 그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처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이같은 적반하장은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다.

56함 피격이 동해안 어민들에게 준 상처는 아직까지도 그 상흔이 아물지 않고 있다. 피격 사건 이듬해인 68년부터 이전 어로 저지선보다 남쪽인 북위 38도 30분에 어로 한계선이 설정되어 그 남쪽에서만 어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활발하던 동해안의 명태잡이는 이 때문에 활기를 잃고 말았다.

오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10리(高城郡巨津邑巨津十里) 뒷동산에는 56함 전몰 장병 충혼탑이 그날 희생된 39명의 젊은 영령을 달래주고 있다.

1967년 11월 3일

북한, 어선 10척에 어부 60명 납치

1 1967년 11월 3일 오전 9시쯤, 동해 어로 저지선 근해상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우리측 어선 200여 척에 대해 북한은 대형 함정 2척과 쾌속정 7척을 풀어 약 40분 간에 걸쳐 기관포와 다발총을 난사하며 기습하여 그 중 해양

호(14t·선장 김성재) 등 어선 10척과 어부 60명을 납치하고, 무차별한 총격으로 어제호(7t) 장상봉(張相奉·36세) 선장의 팔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동해상에서 일어난 북한의 우리 어부 피랍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3일 새벽부터 속초·거진·대진에서 출발하여 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작업 중이던 우리 어선을 장전에서 출발한 북한 함정 9척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총격을 가해 왔는데, 어선 피격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은 부근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드리웠던 낚시도 거두지 못한 채 대부분 탈출했으나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10척이 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어부들에 의하면 이날 우리 해군 함정과 어로 지도선은 1척도 이 해역에 없었으며 만일 해군 함정이 가까이 있었다면 이처럼 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동서 해안에서 어선 납치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1969년 2월 14일

해외 원정 등반 훈련대 조난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10명

1 1969년 2월 14일 설악산(雪嶽山) '죽음의 계곡'에서 일어난 해외 원정 등반 훈련대의 조난 사고는 우리 나라 등반 사상 최대의 조난 사고이었다. 한국 산악회(韓國山岳會·회장 이은상(李殷相))는 1970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해외 원정 등반을 계획하고 2월 6일부터 설악산에서 훈련 중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설악산이 지형이 가장 험하고 완전한 결빙과 빙벽·강풍·혹한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훈련으로 1조 3명씩 A, B, C, D조로 나누고 6명은 본부조(E조)로 편성하여 훈련에 들어갔다.

12일 비선대를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간 A조(한덕정·정현식·이인정)·D조(구인모·오동석·강신영)·E조(전담·이재인)와 그의 촬영차 합류한 동해안 국립 영화 제작소 박대규 등은 주봉인 대청봉(大靑峰) 정상에 캠프를 설치하였고, B조(박은명·변명수·박명수)·C조(오준보·이만수·김

종철)·E조(대장 이희성·부대장 남궁기 임경식)는 죽음의 계곡에 8인용 본부 천막과 3인용 천막 2개를 설치하여 베이스 캠프를 세웠다.

B조·C조·E조는 13일 빙폭 훈련을 마치고 단잠을 자다가 14일 새벽 계곡을 덮은 거대한 눈더미에 묻혀 죽음을 맞은 것이다.

‘설악 산악회’ 이기섭(李基燮) 회장의 신고를 받은 속초 경찰서는 서장의 지휘 아래 경찰 구조대를 편성하여 17일 밤 설악동에 도착했으며 18일에는 한국 산악회 구조대와 육군 제1619부대가 도착, 구조대는 19일 와선대에 전진 기지를 설치하고 20일 귀면암까지 전진했으나 계속되는 폭설로 구조를 포기한 채 철수하고 말았다. 22일 다시 구조 활동을 재개하고 23일은 미군 헬기로 대청봉과 중청봉 중간 지점에 착륙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눈사태의 위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했다.

계속되는 폭설과 강풍으로 구조 활동은 지연되었다. 25일은 천종근(千鍾根) 강원도 경찰 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군경민(軍警民) 합동 지휘 본부가 새로 설치되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되었다. 26일은 ‘죽음의 계곡’에 도착하여 사체 인양 발굴이 시작되어 3월 3일까지 10구의 사체가 모두 발굴되었다.

결단식을 가졌던 신흥사 보제루에서 3월 5일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설악산 입구 노루목에 대원들을 안장하였다. 이희성(李熙成) 대장은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국립 묘지에 안장되었고 부대장 김동기(金東基) 교수는 선영에 묻혔다. 그러므로 노루목 묘지 2개의 봉분은 시신없이 유품만이 매장되어 있다. 조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희성(李熙成·43세 대장 육사 교수 중령)
- 김동기(金東基·39세 부대장 서울대 공대 교수)
- 남궁기(南宮基·40세 부대장 한국전력)
- 변명수(邊明洙·24세 서울대 문리대)
- 이만수(李晩洙·22세 에코클럽)
- 오준보(吳俊輔·24세 연세대)
- 임경식(林京植·29세 아카데미 사진연구소)
- 박은명(朴隱明·23세 육군 본부)
- 김종철(金鍾澈·21세 연세대 수학과 2년)
- 박명수(朴命壽·21세 서울대 문리대 4년)

1971년 1월 23일

KAL기 납북 미수 사건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비상 착륙

1 971년 1월 23일 오후 1시 7분 승객 55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한 대한항공(KAL) 소속 F27기가 속초를 떠나 서울로 가던 중 폭발물을 들고 납북을 강요하는 범인의 위협을 물리치고 2시 18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비상 착륙하여 납북을 모면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7분이 지난 1시 34분경, 오른쪽 앞자리 두번째 창가에 앉아있던 범인 김상태(金相泰·22세 무직·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3리)가 갑자기 선반에서 기름종이에 싸인 폭발물을 꺼내 던지며 월북을 강요했다. 범인이 던진 폭발물로 조종실 칸막이가 부서지고 비행기 복도 앞부분 밑바닥에 직경 40cm 가량의 구멍이 뚫렸다. 이때 기장 이강흔(李康焄·36세)은 납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진했다. 기장은 기수를 강릉으로 돌려 위장 착륙을 시도하였으나 범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시 기수를 북으로 돌렸다. 2시 3분쯤 폭발물을 들고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하던 범인이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최천일(崔天日) 보안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발사, 범인이 총상을 입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김세명(金世明) 수습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점프하며 범인을 덮쳤다. 순간 다시 범인이 들고 있었던 수류탄이 터지고 말았다. 비행기는 크게 동요했고 기체 앞쪽은 수류탄 파편으로 벌집처럼 구멍이 났다. 범인은 즉사하고 수습 조종사의 양팔이 동시에 공중으로 날았다. 근처의 승객 10여 명도 함께 쓰러졌다.

기체는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해안 바닷가에 비행기 착륙을 감행한 것이다. 수습 조종사 김명세는 육군 외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로 향하였으나 옮기는 도중 숨을 거두었다.

KAL기가 아슬아슬하게 납북을 모면한 것은 기내에서 활약한 김명세 수습 조종사의 희생 정신은 물론이며 최천일 보안관의 기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 공군의 활약도 큰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범인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마침 공군기가 근처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었으며 공군기들이 KAL기로부터 에어 투 에어 보이스를 포착한 것과 지상 레이더와 관제탑

이 공군기를 긴급 출동시킨 것은 같은 시각인 오후 1시 43분으로 공군기들은 KAL기를 좌우로 엄호하여 기수를 남으로 돌리게 했다.

남북을 모면한 KAL F27기는 이렇게 해서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비상 착륙할 수 있었다.

북한 함정의 군사 분계선 침범으로

'74년 해경 경비정 피격 침몰

속초 기지대 소속 제863호 초계정

1 974년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군사 분계선 남쪽 해상 어로 저지선 근처에서 어선들의 보호 임무를 띠고 작전 중이던 해양 경찰대 소속 경비정 제863호(200t·정장 안정일(安貞一))가 북한 함정의 기습 공격을 받고 침몰하였다.

경비정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거진(巨津) 동쪽 15마일, 군사 분계선 남쪽 9마일 해상에서 어로 보호 작전중 북한 경비정 3척의 공격을 받고 교전, 군사 분계선 북쪽 3~5마일 해역까지 밀려가 격침당했다. 북한 함정의 공격을 받자 속초 기지로 피격을 타전, 이에 국방부는 사건 발생 보고를 접수, 즉각 해군 함정과 공군기를 출동시키고 박용전(朴用詮) 해양 경찰대 대장이 지휘하는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나 아깝게도 구조하지 못했다. 사고 해상은 이날 아침 짙은 안개로 북한함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만행을 저지르기가 용이한 상태였다.

제863호 해경 경비정은 속초 기지대 소속이었으며 건조된 지 얼마 안되는 시속 20노트의 초계정으로 승무원 정원 34명에 이날은 28명이 탑승했었다.

북한 중앙 통신은 6월 28일 오전 군사 분계선 해상 연장선 부근 해역에서 한국 경비정 1척을 침몰시키고 승무원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몇 명의 승무원을 납치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6월 28일, 남북 조절 위원회 제7차 부위원장 회의에서 장기영(張基榮) 서울측 부위원장은 이를 북측에 엄중 항의하였으며 국회는 국방 위원회와 내무 위원회를 열어 격침 진상을 물었다. 승무원은 대부분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납치된 두 승무원의 허위 자

백 녹음 테이프를 북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에서 공개함으로써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엔 한국 대표부는 6월 28일 오전 북한이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해양 경비대의 초계정 제863호를 격침시킨데 대하여 강경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초계정의 생존자와 전사한 승무원의 유해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늘의 지붕 에베레스트 정복의 꿈

설악산, 설악골에 묻힌 산악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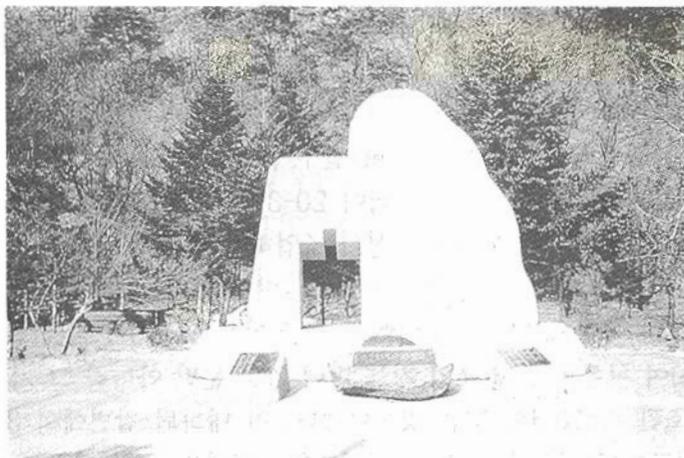
1 977년도에 에베레스트 산(Everest山·높이 8,848m 세계의 최고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던 대한 산악 연맹 소속 산악인 3명이 76년 2월 16일 해발 1,270m 공룡 능선 계곡에서 눈사태로 참사를 당했다.

대한 산악 연맹은 네팔 정부의 초청을 받아 77년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비로 김영도(金永棹) 국회 의원을 대장으로 하는 원정 등반대를 구성하여 2월 11일 설악산 설악골에 30명의 대원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21일까지 심설·막영·빙벽 등반과 기상 변화에 따른 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공격조의 최수남(崔秀男) 부대장 등 6명의 대원이 공룡 능선 지형 정찰에 나갔다가 폭설과 함께 3m 이상의 적설량으로 정찰을 포기하고 하산 중에 높이 200m의 암벽에서 떨어지는 눈더미로 6명의 대원이 묻혔다. 다행한 것은 김호진 대원이 정신을 차려 박홍규·이기용 대원을 구출하였으나 전재운·최수남·송준송(宋準松) 대원은 찾을 길이 없었다.

16일 저녁 8시 30분쯤 관광촌에서 1.4km 떨어진 설악골 베이스 캠프로 하산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난 사고가 밝혀졌다.

조난 신고를 받은 속초 경찰서와 육군 제5319부대, 설악산 관광촌 조난 구조대 등 30여 명이 17일 새벽 6시 30분쯤 조난 현장으로 출동하여 이날 낮 12시 30분쯤 2, 3m의 눈길을 헤치며 현장에 도착하여 최수남 부대장의 시신을 약 2m의 눈 속에서 찾았으나 기상 악화로 더 이상의 수색 작업을 펼 수 없



산악인 추모비

어 오후 4시 구조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하산, 18일 다시 수색에 나섰으나 새벽부터 설악산에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발굴 작업이 늦어져 19일 최수남 대원 시신 발굴 지점으로 부터 50m 아래 6m 깊이의 눈 속에서 송준송 대원의 시신을 발굴하였으며 이어 20일은 전재운 대원의 시신을 조난 지점에서 100여 m 떨어진 계곡에서 발굴하였다.

어선 대형화의 절실한 교훈을 남긴

대화퇴(大和堆) 어장의 해난

파고 5~8m 무서운 삼각 파도

1 97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초속 14~16m의 강풍과 5~8m의 파도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동해 울릉도(鬱陵島) 근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으로 고기잡이 나갔던 속초항(束草港) 소속 금성호(20t) 등 48척이 침몰 또는 귀항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64명이 익사하고 344명의 어부들이 실종되는 국내 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의 원인은 안전 조업 규정을 무시한 소형 선박의 무리한 원해 조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써 어선의 대형화가 당장 실현되어야 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동해안에는 해마다 크고 작은 해난 사고가 그칠때가 없었다. 연안 자원의 고갈로 20t 급 이하의 소형 어선으로 원해 조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사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근해 어장의 어자원 고갈로 조업이 가능한 해역이 갈수록 연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북위 38-40도 사이에 어군이 형성되어 20-30마일 정도밖에 출어할 수 없는 20t 급 어선으로 50t 급 이상의 어선이 조업하는 데까지 나가 위험한 조업을 해야 생활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민들의 비극이 있었다. 동해안 5,211척의 어선 가운데 20t 이상으로 원해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400여 척에 불과하고 나머지 4,800여 척은 연근해 조업 기능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70% 이상이 건조된 지 10년이 넘는 것들이었다. 이 대화퇴 참변에서 30t 이상의 선박은 1척도 없었다. 이 사고로 정부는 30t 미만의 소형 어선 원해 조업을 규제하는 선박 안전 조업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어선의 대형화와 근대화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12

지형과 지질

속초 지방의 지형과 지질

설악산의 지형/수계/경관/설악산의 지질/지질구조/
토양/속초해안선의 지형

설악산의 지형

산계(山系)

설악산은 태백 산맥의 일부로 그 북부에 위치하며 설악산 북북서쪽 약 70 km 되는 곳에 금강산(金剛山·1,638m)이 있고 남남동 약 40km되는 곳에는 황병산(黃柄山·1,407m)이 있으며 설악산의 주봉 대청봉(大靑峰·1,708m)은 태백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금강산보다 70m가 더 높다. 다만 그 주위의 산악이 광범하지 못함이 금강산보다 떨어지나 경관에 있어서는 현재 남한에서 제일을 자랑한다. 높이에서는 한라산(漢拏山·1,950m)·지리산(智異山·1,915m)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다. 태백 산맥은 대체로 남과 북으로 뻗으며 우리 나라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다. 설악산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에서 약 200km, 동해안에서 약 15km로 이 두 거리의 비는 약 13 : 1이며 따라서 설악산 서쪽의 산지는 완만하게 기울어지고 동쪽의 산지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설악산 국립 공원은 설악 산맥의 능선을 경

계로 서쪽은 내설악(內雪嶽)·동쪽은 외설악(外雪嶽)이라고 하며 외설악 중 오색리 계곡 즉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관모봉(874m)에 이르는 능선의 남쪽을 남설악(南雪嶽)이라고 부른다.

설악산의 주요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북방 1.7km지점의 무네미고개(1,060m)에서 북서쪽으로 1.5km지점의 1,275m의 봉, 이곳에서 북서쪽 2km의 지점 마등령(1,326.7m)·북서로 2.5km지점의 저항령(1,110m)·1km지점의 황철봉(1,381m), 다시 북쪽으로 미시령(767m)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며, 그 가운데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은 날카로운 기암 피석과 절벽이 이어지는 능선이라 이를 가리켜 공룡 능선이라고 부른다.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설악 산맥이 연장되어 이어지며 북서쪽으로 1.5km지점에는 귀떼기청봉(1,577.6m), 여기에서 2.5km지점의 대승령(1,190m)과 안산(1,430m)에 이르는 능선을 서북주능이라 한다.

대청봉에서 북동쪽으로 3km 지점에서 화채봉(1,325m)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4km, 이 지점의 송암산(761m)을 지나면 동해에 이르고 북동쪽으로 칠성봉(1,077m)과 집선봉·권금성을 지나면 설악동에 이른다. 대청봉에서 동쪽으로 연장된 능선은 약 5km 지점의 관모봉(890m)을 지나 9km에 다다르면 동해이다.

황철봉과 미시령 사이 동쪽으로 약 2km 지점에 울산바위(873m)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3km 지점에는 달마봉(635m)으로 이어지며 묵우재를 지나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낮은 능선이 뻗어 있다.

설악 산맥의 서쪽으로 융기 준평원(隆起準平原)¹⁾의 특징을 나타내는 곳이 관찰되는데, 한계령에서 장수대에 이르는 곡면²⁾은 해발 500-700m의 곡면으로 한계령 바로 서쪽의 해발 800-900m의 평탄면³⁾, 다시 서쪽으로 해발 600-800m의 평탄면이 있다. 더 높은 평탄면으로는 설악산 서북주능 북쪽 준평탄면으로서 표고 1,200-1,400m의 면이며, 이면은 귀떼기청봉 주변에까지 연장된다. 같은 면은 안산의 동쪽과 북동쪽이 더 현저하다. 또 같은 높이의 평탄면 황철봉 부근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평탄면들은 현재 작은 면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에 불과하나 이들 면은 오래 전 설악산 지역의 침식면으로서 모든 하천은 이들 수준에서 선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한다.

주(註) 1) 용기 준평원

준평원이 용기하여 그 표면을 흐르고 있던 강이 밑부분을 깎아서 골짜기가 발달한 준평원

2) 곡면(曲面)

공·달걀 등의 표면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

3) 평탄화 작용(平坦化作用)

기준화 작용(基準化作用)을 말하는 것으로 침식력이 지표면을 낮게 하여 침식 기준면에 가깝게 하는 작용.

수계(水系)

세 지류가 물줄기를 지배

설 악산을 분수령으로 서쪽으로는 한강의 상류인 소양강에서 북지류인 북천이 원통 부근에서 갈라지고 북천은 한계리에서 한계천이 갈라지고 용대리에서 동남쪽으로 백담 사계·수렴동계·구곡담계라고 부른다. 한계천은 한계령에서 서북 서류하여 장수대를 지나 한계리에서 북천과 합류한다. 설악 산맥의 동사면은 북에서 남으로 쌍천·물치천 그리고 남대천의 상지류가 흐른다.

내설악을 가르는 주요한 수계는 백담사계와 그 상류(수렴동계·구곡담계)이다. 한계령에서 장수대까지의 한계천은 비교적 넓은 곡면을 보이고 있다. 설악산 북쪽 외설악의 수계는 쌍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쌍천은 동해안의 물치리 부근에서 신흥사에 이르는 하천으로 신흥사 부근에서 세 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첫째, 흔들바위 부근과 내원골에 이르고 황철봉에서 북동쪽 능선에 도달하는 북지류이고

둘째, 저항령에 이르는 거의 직선적인 서지류이고

셋째, 비선대를 지나 대청봉에 이르는 남지류이다. 남지류에는 여러 개의 작은 지류를 파생시키고 있다. 공룡능선 사이의 산지에는 용기에 따른 급격한 계류의 하각 작용으로 깊은 골짜기와 절벽, 그리고 곳곳에 폭포를 만들어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물치천은 그 상지류가 대청봉의 동쪽 사면을 가르고 있으나 규모는 작다.

남대천의 상지류는 설악산 남사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오가리와 오색 사이에서 북쪽으로 대청봉을 향하여 갈라진 작은 지류가 몇 개 있으며 오색과 한계령 사이에서 서북주릉의 동부 능선을 향하여 뺨은 상계류 몇 개가 있다.

경관(景觀)

화강암이 설악산의 주체 암석

설악산의 경관을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하나는 설악산·금강산·태백 산맥을 높이 들어올린 힘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설악산은 대청봉을 제외하고는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화강암은 백악기의 화강암, 즉 불국사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화강암은 강원도 간성·속초·인제·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화강암은 지하 수 km 이상 되는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에서 굳어져 만들어지거나 다른 암석이 녹아서 화강암으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러므로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악산의 맥이 1,708m까지 솟은 것은 지각 또는 지면이 높이 솟아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백 산맥은 제3기의 융기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악산은 이렇게 해서 태백 산맥의 일부로 탄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태백 산맥의 융기와 반대로 동해쪽은 함락 내지 침강하여 태백 산맥의 원형은 빠른 속도로 침식되어 들어 갔는데 이로써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악을 형성케 하였으며 화강암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신기한 산악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구조적 특징이 절리인데 화강암에는 주로 3방향의 절리가 발달하는데 수직 절리가 발달하면 설악산의 절경을 이루는 높이 솟아오른 암산을 형성한다.

설악산의 지질

구성 암석

설악산 자연 보호 구역의 내설악은 거의가 여러 종류의 화강암¹⁾(백악기)²⁾으로 되어있고 작은 면적의 중생층이 분포하며 대청봉 정상 부근과 그 동부·서부 및 남부 즉 외설악의 남부는 시대 미상의 변성 암류인 화강암 편마암·반상 변정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봉 정상부와 외설악 남부는 경기 기저 변성암 복합체로 되어 있고 내설악의 대부분과 외설악의 북부는 백악기의 화강암인 불국사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주(註) 1) 화강암(花崗岩·grinite)

석영·운모·사장석 등으로 이루어진 심성암(深成岩), 안정질·등립상으로, 빛깔은 순백 내지 담회색임. 닭오면 광택이 나며 석비(石碑), 건축·토목 용재 등 용도가 다양함. 속돌·화강석.

2) 백악기(白堊紀·cretaceous Period)

지질 시대 구분의 하나. 중생대(中生代)의 마지막 시대로 1억 4천 5백 만~6천 4백 만 년 전. 동물의 세계에서는 유공충(有孔蟲)·암모나이트·공룡(恐龍)이 번성하였는데, 암모나이트와 공룡은 이 시대 말기에 멸종하였고, 식물에서는 양치류·속씨 식물이 무성하다가 겉씨 식물이 출현하여 대체(代替)되었음.

지질 구조

절리(節理)의 발달로 생긴 지형

설악 산맥은 남북 방향의 대단층으로 잘린 지괴가 그 변동이 상승하고 서변이 침강한 지괴 운동의 지배를 받아 생성된 능선으로 다만 설악 산맥 또는 태백 산맥 능선 동사면은 단층 절벽이 아니고 단층선 절벽으로서 단층은 바다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한계 단층과 백담사 단층이다. 앞의 것은 한계령의 서쪽 및 동쪽으로 연장되는 단층으로서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는 이 단층을 따라 쉽게 개척된 계천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층 위치가 계류

의 약 500m 북측을 지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단층의 위치는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 상안의 지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계천으로 뻗어나온 작은 능선에는 말안장처럼 오목한 곳이 여러 군데가 발견된다. 이런 곳을 연결하면 한계 단층이 그어진다. 한계 단층은 홍색 화강암과 일부 설악산 화강암에 형성되어 있고 이 단층으로 인해 가장 낮은 고개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백담사 단층은 내설악 중앙부에서 거의 동서로 달리고 있고 여기에서 혹은 모 화강암과 설악산의 층이 90도 내외까지 경사하고 또한 역전하는 곳이 있는 중생대 백악기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백악기에 그러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소지괴의 급경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즉 편마암류를 부정합으로 덮은 백악기의 설악산의 층은 한 시기에 약간의 변동은 받았으나 20-30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지 않았다. 백악기 중기 내지 말기에 관입한 화강암 마그마 속에 잡힌 설악산의 층, 큰 지괴는 마그마 속에서 회전하여 급경사를 나타낸 채 굳어진 화강암 속에 남아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표에 노출하게 된 것이다.

설악산 지역에서는 절리¹⁾의 발달이 지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수직 절리·수평 절리는 경관 형성에 큰 요소가 된다. 능선이나 독립된 바위는 모두 절리의 방향과 관계가 깊은 지형을 나타낸다.

주(註) 1) 절리(節理)

암석에서 좀 규칙적인 결. 보통 마그마의 냉각에 따르는 부피의 수축에 의하여 화성암에 생기는 일이 많음.

토양(土壤)

대체로 메마른 땅

설악산 지역은 대부분 화강암의 풍화로 형성된 토양이며 지형이 험준하고 복잡하여 토양의 유실이 많아서 지역 전체가 일반적으로 척박하다.

그러나 비교적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자연의 보

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따라서 식생이 자연 그대로이며 중북 이하의 저지대 이면서도 별채나 그 밖의 삼림 피해가 적은 곳에서는 비교적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로 토양층이 얇다.

설악산의 토양의 분류나 형의 분포는 별로 밝혀진 것이 없다. 1972년 산림청이 작성한 간이 토양도에서는 암석지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력 등급에 있어서는 '중(中)'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 간이 토양도는 세밀하지 못함이 흠이다. 토양 단면은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생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내세울 만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삼림형과 관련하여 토양 단면도를 보면 신갈나무 숲·서나무 숲 토양층이 비교적 두껍게 나타나며 식생이 발달한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토양의 발달이 좋을 것으로 추측되며 저지대와 중북 산정의 순으로 토양층이 발달한다.

소나무·혼합·참나무 세 가지 삼림의 각 단계에서 토양층의 발달을 보면 산기슭의 소나무 군락에서는 아직 유기물의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A층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토양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L층이 다른 군락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조사 지역이 경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 또 다른 요인은 침엽의 분해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나무·참나무림의 낙엽의 분해는 낙엽의 양이 반으로 분해되는 기간, 즉 반감기가 소나무잎 경우 5·3년이지만 참나무잎의 경우 2·4년이며 또 낙엽의 분해에 의해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양분의 양이 참나무 군락에서 훨씬 많다.

속초 해안선의 지형

석호와 사빈 해안으로 형성

동 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 구조와 지형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 편마암과 고생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 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砂濱) 해안이다. 특히 남부의 강릉·삼

척 해안은 용기로 말미암아 해안 단구(海岸段丘)가 발달하여 해식 작용으로 단애를 이룬 곳이 많다.

강릉 이북은 남부에 비해 용기가 적으며 강릉과 원산 사이에는 곳곳에 배후지의 화강암 산지가 침식 운반되는 백사가 퇴적하여 연안 조류와 파랑 작용으로 사주(砂洲)·사취(砂嘴)·석호(潟湖)가 발달하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석호는 북으로부터 광포(함남 정평 13.3km²)·소동정호(강원 통천 4.9km²)·천아호(통천 2.9km²)·강동포(통천 2.8km²)·감호(고성 0.3km²)·화진포(고성 2.3km²)·송진호(고성 0.6km²)·영랑호(속초 1.19km²)·청초호(속초 1.4km²)·경포(강릉 1.7km²) 등이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나란히 발달하여 있다. 물론 북부에도 암석 해안이 있으나 대체로 석호와 사빈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빈(sandy beach)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해변으로서, 해변이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 조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이다. 암석 해안에서 해식에(海蝕崖) 밑에 발달하는 얽은 해변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모래와 다량의 자갈 또는 암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빈은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되므로 우리에게 낯익은 지형으로 사빈의 배후에는 해안 사구(海岸砂丘)가 발달되어 있다.

사빈 해안을 구성하는 모래는 대부분 제4기 또는 제3기의 고화(固化)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암층에서 공급되는 경우와 해안으로 유입되는 큰 하천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동해안에 사빈이 넓게 나타나는 곳은 큰 하천의 하구 부근 해안이다.

속초 지역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된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변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 지역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북쪽으로부터 고성군 토성면 용촌천과 양양 남대천으로부터 원유한다.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곡에 발달하였으며 작은 하천의 경우는 토사 운반량이 적어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있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많아 처음부터 석호가 생길 수 없었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하여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며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된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사빈의 확장으로 수로의 입구가 막혀 석호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만 주기적으로 수로가 열린다. 또한 파랑이 거세어지면 모래의 대량 운반으로 석호의 수로가 막히게 되고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 석호의 대부분은 염분 농도가 담수호에 비하여 높고 해수보다는 낮은 기수호(汽水湖)이다.



해돋이 정자/영금정의 팔각정 정자. '97년 4월 25일 착공하여 8월 16일 준공되었다. 3면이 바다에 닿았으며, 1면은 육지에 접한 석산의 영금정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항만 개발에 이 석산을 깨부수어 축항에 이용한 탓으로 옛 모습을 잃었으나 '대동 여지도'와 '신동국 여지승람'에 기록될 정도로 빼어난 절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속초 1번지 등대, 시원하게 뻗은 방파제와 즐비한 횃집들과 난장 횃전이며 건어물상이 어우러지는 관광촌을 이룬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을 갖추에 주민들과 속초시의 안목이 두드러진다.

더욱 자연을 생각하여 솟은 암반에 생긴 그대로 정자를 앉힌 것이며, 콘크리트 교각이 아닌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 등은 자연은 물론 경관을 위해서도 높이 살 만하다.

영금정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에 갈무리한 창신의 팔각정이다.

13

기온 · 기후 · 풍속

속초 지방의 기후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강수량의 특성/4계절 강수량/속초 지방의 기온/바람의 풍향과, 그리고 폭풍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

속 초 지방은 한반도 동쪽 연변에 위치하고 중위도 지대에 속하여 편서풍(偏西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 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 계절풍이 불고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며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속초 지방은 1,708m의 대청봉을 포함한 설악산을 서쪽에 두고 동쪽에는 동해를 끼고 있어 사계절에 걸쳐 변화 많은 기상을 보인다. 따라서 폭풍 · 대설 · 호우 · 가뭄 등 갖가지 기상 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속초에서의 기상 관측은 1966년 11월 5일 강릉 측후소 속초 출장소가 발족, 196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1969년 속초시 중앙동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1988년 12월 27일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로 이전하였다.

영동 북부 지방에 위치한 속초시는 서쪽에 위치한 태백 산맥을 경계로 같은

위도상에 있는 영서 지방(춘천·인제 등)과 판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영서보다는 영동이 훨씬 기온이 높은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강수량의 특성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강수량의 속초

우 리 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수량은 계절적 분포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그 특색이면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어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겨울철 강수량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시아 계절풍 지대의 공통적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남해안으로서 1,400~1,500mm이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경북 내륙 지방으로서 1,000mm정도이다.

속초 지방은 연강수량이 1,330mm로서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4계절 강수량

봄 강수량(3·4·5)

속 초의 봄철 강수량은 207.0mm로 1년 강수량의 16%를 차지한다. 이는 강릉의 232.2mm·춘천의 212.6mm보다 5~25mm 적은 양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봄철 강수량은 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불규칙하여 1970년에는 4월의 경우 0.2mm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하면 1977년 4월에는 238.3mm의 강수량을 보이기도 했다.

여름 강수량(6·7·8)

여름철의 강수량은 해마다 전국에 영향을 주는 장마 전선의 활성화와 장마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다.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605.6mm로 1년 강수량의 46%를 차지하며 이것도 타지방에 비하여 여름 집중율이 적은 편으로 기록된다. 여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86년의 765.8mm로 1년 집중율 56%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해는 1977년 343.0mm로 1년 집중율이 31%이었다.

가을 강수량(9·10·11)

가을철 강수량은 364.8mm로 1년 강수량의 27%를 보인다. 속초의 강수량은 강릉 395.3mm, 29%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춘천 227.8mm 18%의 경우보다는 월등한 양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9월의 평균 강수량 206.8mm는 다른 지방의 150mm 내외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보인다. 이는 9월 태풍의 영향과 가을의 장마 영향으로 집중 호우 형태의 강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겨울 강수량(12·1·2)

겨울철 강수량은 152.6mm로 1년 강수량의 11%를 보인다. 속초의 겨울 강수량은 주로 눈이 많고 적게 내리는 것으로 좌우되며 눈이 123.8cm가 쌓이었던 1969년에는 274.9mm의 강수량을 보이었다.

속초 지방의 기온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다

속 초의 1년 평균 기온은 11.9℃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속초의 기온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온화한 것은 동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에 걸쳐 동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풍(海風)은 속초의 기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기후를 보인다. 이것은 기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해안의 수면 온도가 겨울에는 서해보다 동해에서 높으며 반대로 여름에는 동해의 수온이 낮아 이에 영향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한편 겨울철에 주로 부는 서풍이 설악산을 넘어오면서 '북동풍(높새바람)'¹⁾ 필 현상을 일으켜 나타나는 기온의 상승 효과도 속초의 겨울 기온을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북동풍이 다습한 동해상을 지나 육지로 상륙하여 태백 산맥에 부딪히면서 많은 눈이 오게 되는데 이때 영동 지방은 대설 주의보가 내린다.

주(註) 1) 북동풍(北東風)

동북풍이라고 해야 옳다. '뱃사람'들이 흔히들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기상 전문 용어로는 '필 Föhn 현상'의 일종으로 산기슭으로 불어내리는 고온 건조한 바람. 우리 나라에서는 초여름을 전후해서 영서 지방에 나타나는 동북풍으로 이 바람이 계속 되면 가뭄이 오고 작물의 피해가 크다.

바람의 풍향과 풍속, 그리고 폭풍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풍 향은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특수한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은 어느 일정한 바람이 월등하게 부는 곳도 있다. 또한 계절적인 영향도 크게 받아 여름에는 주로 남풍, 겨울에는 서풍이 우세하다. 풍속 역시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내륙보다는 해안 지방에서 강하다. 지역별 연평균 풍속을 살펴보면 속초가 3.2m/s · 강릉 2.9m/s · 춘천 1.7m/s로 속초의 풍속이 가장 강하다.

속초의 월별 평균 풍속은 사계절에 걸쳐 비교적 균일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가장 강한 달은 1월과 12월의 3.8m/s이고 그 다음은 4월의 3.6m/s로 나타나고 있다.

속초에서 발생하는 악기상(惡氣象)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폭풍

이다. 일반적으로 폭풍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13.9m/s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속초의 연(年) 폭풍 일수는 16일로 어느 지역보다 많다.

겨울철에 폭풍 현상이 많은 것은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며 4월과 5월의 봄철에 폭풍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영동 지방만이 가지는 특유의 현상이다. 이것은 태백 산맥의 지형적 원인과 기상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열적 차이가 많은 태백 산맥과 동해가 가까이 있어 국지적으로 바람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며 골짜기 등을 따라 바람이 집중되어 강력한 폭풍을 발생시키고 있다.

14

기상 관측

속초 지방의 계절 관측

기후, 식물, 동물, 계절로 관측/태풍의 특징과 영향/
기상 특보

기후 · 식물 · 동물 · 계절로 관측

계절 관측의 목적은 계절의 빠름과 늦음, 지역적인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관측하여 통계함으로써 기상 상황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함에 있다.

계절 관측은 기후 · 동물 · 식물 · 계절로 구분되며 그 외에 주요 산악에 대한 관설(觀雪)과 하천(河川)에 대한 결빙(結氷) 관측을 들 수 있다.

1. 기후 계절

서리

속초 지방의 예년 첫서리는 11월 30일이며 마지막 서리는 3월 23일이다. 첫서리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때는 1983년 10월 24일이며 가장 늦게 나타났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다.

눈

속초의 예년 첫눈은 11월 27일이며 첫눈의 극값은 1980년 10월 25일이며 마지막 눈의 극값은 1980년 4월 14일이다.

구분 지명	첫서리	마지막서리	구분 지명	첫눈	마지막눈
속 초	11. 30	3. 23	속 초	11. 27	3. 27
강 룡	11. 15	3. 30	강 룡	12. 4	3. 28
춘 천	10. 14	4. 17	춘 천	11. 19	3. 27

얼음

속초의 예년 첫얼음은 11월 12일이며 마지막 얼음은 4월 1일이며 첫얼음의 극값은 1984년 10월 21일이며 마지막 얼음의 극값은 1984년 4월 20일이다.

관설

관설(觀雪)이란 부근의 지정된 산정(山頂)에 눈이 처음으로 덮인 것을 확인했을 때를 말한다. 속초의 경우 관설 지점은 대청봉(大靑峰)이다. 대청봉의 예년 첫눈을 보인 날은 10월 29일이며 가장 빠른 관설일은 1990년 10월 9일이다. 한편 예년 마지막 관설일은 5월 15일이며 가장 늦었던 관설일은 4월 25일이다.

구분 지명	첫얼음	마지막얼음	구분 지명	첫관설	마지막관설
속 초	11. 12	4. 1	대 청 봉	10. 29	5. 15
강 룡	11. 15	4. 2		11. 10	4. 25
춘 천	10. 20	4. 14			

동물의 계절 관측

동물의 계절 관측은 철새의 이동 상태·휴면 동물의 동태·곤충들의 변태 등 각 지방에서 동물들의 계절에 따른 생활 상태를 관측하는 것이다. 관측 방법은 출현한 것을 본 날과 소리를 들은 날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관측한다. 속

초에서는 제비·종달새·개구리·나비 등을 관측하고 있고 속초의 동물 계절 관측은 표와 같다.

구분 종목	예년의 값	극 값	
		최초일	최종일
제비를 처음 본 날	4. 14	75. 4. 5	79. 4. 27
제비를 마지막 본 날	10. 19	88. 10. 5	78. 10. 29
종달새 첫소리	4. 1	77. 3. 22	87. 5. 29
개구리를 처음 본 날	4. 7	77. 3. 15	84. 5. 25
나비를 처음 본 날	4. 8	77. 3. 12	73. 4. 27

식물의 계절 관측

식물의 계절 관측은 지정된 종목과 현상에 대하여 관측하며 현상으로는 발아·개화·만발·단풍기·낙엽기 등이 있다. 관측 종목은 초본의 코스모스·관목의 매화·개나리·진달래가 있고 교목으로서는 벚나무·아카시아·복숭아·배나무·은행나무·단풍나무 등이 있다.

속초에서 관측한 식물 계절은 표와 같다.

구분 종목	예년의 값	극 값	
		최초일	최종일
코스모스 개화	9. 11	86. 8. 15	74. 9. 20
매화 발아	3. 14	80. 3. 1	76. 3. 24
개나리 발아	3. 22	76. 3. 10	84. 4. 11
개나리 개화	4. 2	79. 3. 22	84. 4. 21
진달래 발아	3. 26	77. 3. 9	72. 4. 8
진달래 개화	4. 4	79. 3. 16	76. 4. 13
벚나무 발아	3. 31	87. 3. 17	84. 4. 21
벚나무 개화	4. 12	79. 4. 4	84. 4. 28
아카시아 발아	4. 24	79. 4. 10	71. 5. 8
아카시아 개화	5. 18	73. 5. 10	75. 5. 23
복숭아 발아	3. 31	78. 3. 18	84. 4. 23
복숭아 개화	4. 14	79. 3. 31	84. 5. 1

태풍(颱風)의 특징과 영향

전선 강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동 지방

기상 관측이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81년간(1904~1985) 영향을 끼친 크고 작은 태풍은 모두 255개이다. 이는 태풍이 북상하여 우리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즉 북위 32~40도 동경 120~138도의 범위내에 도달한 횟수이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연평균
횟수					1	13	73	98	64	6				255	3.1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1년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며
- ② 태풍의 영향이 가장 많은 달은 8·7·9·월의 순이고
- ③ 7·8월 동안에 영향을 끼친 태풍의 횟수는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 ④ 드문 현상으로 6월과 10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의 이동

6월의 태풍은 계속 서진하여 남지나 해상쪽으로 향하고 7월의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진행하거나 중국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서해로부터 우리 나라쪽으로 진행한다. 8월의 태풍은 동지나해로부터 우리 나라를 가로질러 동해로 진행한다. 9월의 태풍은 남쪽 해상으로부터 오키나와 동쪽을 지나 일본 열도쪽으로 진행하며 10월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진행한다.

특히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까지의 태풍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일본 열도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우리 나라쪽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다.

태풍의 강도

태풍은 크기와 중심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초대형(超大型)·대형(大型)·중형(中型)·소형(小型)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표와 같다.

구 분	중 심 기 압	최 대 풍 속
초대형(초A급)	920mb 이하	65m/s이상
대 형(A급)	920~950mb	50~65m/s
중 형(B급)	950~980mb	30~50m/s
소 형(C급)	980mb 이상	17~30m/s

태풍의 명칭

매년 발생하는 태풍은 번호와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다. 번호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 순서에 따라서 1호부터 차례로 붙이며 그 명칭은 표와 같이 괄도에 있는 미국 태풍 합동 경보 센터(JTWC)에서 정한 남성과 여성의 이름을 교대로 붙이고 있으며 알파벳순(alphabet 順)으로 4개 조를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번호와 같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981년 마지막 태풍이 2조의 루스 RUCH이었다면 1982년 첫번째 태풍은 스페리SPERRY로부터 시작된다.

1 조		2 조		3 조		4 조	
ANDY	앤디	ABBY	애비	ALEX	액릭스	AGNES	애그니스
BRENDA	브ренда	BEN	벤	BETTY	베티	BILL	빌
CESIL	세실	CARMEN	카멘	CARY	케리	CLARA	클래라
DOT	도트	DOM	돔	DINAH	다이너	DOYLE	도일
ELLIS	엘리스	ELLEN	엘렌	ED	에드	ELSIE	엘시
FAYE	페이	FORREST	포레스트	FREDA	프리다	FABIAN	페이비언
GORDON	고든	GEORGIA	조지아	GERALD	제럴드	GAY	게이
HOPE	호프	HERBERT	허버트	HOLLY	홀리	HAL	할
IRVING	어빙	IDA	아이다	IKE	아이크	IRMA	어마
JUDY	주디	JOE	조	JUNE	준	JEFF	제프
KEN	켄	KIM	김	KELLY	켈리	KIT	키트
LOLA	롤라	LEX	렉스	LYNN	린	LEE	리
MAC	맥	MARGE	마지	MAURY	모리	MAMIE	메이미

1 조	2 조	3 조	4 조
NANCY 낸시	NORRIS 노리스	NINA 니나	NELSON 넬슨
OWEN 오언	ORCHID 오키드	OGDEN 오그던	ODESSA 오테사
PEGGY 페기	PERCY 퍼시	PHYLLIS 필리스	PAT 페트
ROGER 로저	RUCH 루스	ROY 로이	RUBY 루비
SARAH 사라	SPERRY 스페리	SUSAN 수잔	SKIP 스킵
TIP 팁	THELMA 쉘마	THAD 새드	TESS 테스
VERA 베라	VERNON 버넌	VANESSA 베네사	VAL 벨
WAYNE 웨인	WYNNE 윈	WARREN 워런	WINONA 위노나

태풍의 특징

가)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

태풍 주위의 바람은 그림과 같이 시계 반대 방향을 중심으로 불어 들고 있으며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한 중심역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강하다.

그 까닭은 태풍이 상층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북상하므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상층의 바람과 태풍 중심에 불어드는 하층 바람과 합세하여 풍속이 강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왼쪽에서는 상층 바람과 태풍 중심에 불어드는 하층 바람이 반대 방향이어서 서로 상쇄하여 풍속이 약해진다.

선박이 항해 중 태풍과 마주쳤을 때 그림과 같이 왼쪽으로 피하면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항 반원(可航半圓)이라고 하며 오른쪽 부분은 바람이 강하고 삼각 파도(三角波濤)¹⁾가 발생하여 위험 반원(危險半圓)이라고 한다.

태풍은 대부분 많은 비를 동반한다. 태풍이 북상하여 우리 나라 남해안 부근까지 도달할 때 속초 지방에는 북동 기류에 의한 집중 호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태풍 통과 1, 2일 전에 나타나는 전선 강우(前線降雨)가 있다.

특히 이때는 태백 산맥에 의해서 북동풍이 강제 상승되어 속초·강릉 등 영동 지방(嶺東地方)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태풍이 수자원에 미치는 기여도

태풍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반면에 상수도 용수·농업 용수·공업 용수 등 수자원으로서 인간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기(雨期)는 6-9월로 이 기간 강수량이 연강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천이 짧고 급한 지세로 강우 즉시 77%가 홍수로 유실되어 버린다.

주(註) 1) 삼각 파도

삼각파(三角波)를 말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이 다른 둘 이상의 물결이 겹쳐서 생기는 불규칙한 물결. 파장(波長)에 비하여 파고(波高)가 높아서 삼각형을 이루며, 외양(外洋)에서 폭풍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 또는 해안에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곳 등에서 생기기 쉽다.

기상 특보(氣象特報)

주의보 및 경보

기상 특보는 일반적인 기상 정보보다 차원이 높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상 특보에 상당하는 기상 조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방재 기관이나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경고적인 의미와 방재상의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여 알리는 기상 정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상 특보는 통상적으로 주의보(主意報)·경보(警報)로 나누어진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것이다. 중대한 재해는 폭풍·호우·대설·파랑·태풍 등의 이상 기상 현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기상 재해 중 대규모적이고 파괴도가 높은 것이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속초와 영동 산간 지방 및 동해상에 발표된 기상 특보는 표와 같다.

구분	폭풍 주의보	폭풍 경보	대설 주의보	대설 경보	호우 주의보	호우 경보	태풍 주의보	태풍 경보	파랑 주의보	해일 주의보
횟수	311	49	61	26	34	8	5	7	42	4
평균	31	5	6	3	3	1	1	1	2	0

폭풍 주의보 · 경보

폭풍 주의보는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 경보는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상, 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6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

아래의 표는 속초와 동해 중부 해상에 10년간 발표된 월별 폭풍 주의보 · 경보의 횟수이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폭풍 주의보	4	31	29	28	22	15	14	20	14	24	33	41	311
폭풍 경보	7	6	7	5	2	1	0	3	3	3	3	9	49
월평균	4.7	3.7	3.6	3.3	2.4	1.6	1.4	2.3	1.7	2.7	3.6	5.0	36

대설 주의보 · 경보

대설 주의보는 신적설이 10cm 이상 예상될 때이며 대설 경보는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한다. 아래의 표는 속초 및 영동 산간 지방에 발표된 월별 대설 주의보 및 경보 횟수이다.

속초 지방의 대설 특보 월발표 횟수를 보면 1월에 2.5회 · 2월에 2.2회로 가장 많다. 특히 1월 말부터 2월 상순에 속초와 영동 산간 지방에 큰눈이 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대설 주의보	13	17	14	3							4	10	61
대설 경보	12	5	2								1	6	26
월평균	2.5	2.2	1.6	0.3							0.5	1.6	8.7

호우 주의보 · 경보

호우 주의보는 24시간 강수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며 호우 경보는 24시간 강수량이 15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아래의 표는 속초와 영동 산간 지방에 발표된 월별 호우 주의보와 경보의 횟수이다. 표를 보면 속초 지방의 호우는 7, 8월에 집중되며 호우 경보는 8, 9월에 각 3회 발표되어 8, 9월 집중 호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호우 주의보					1		13	12	4	3	1		34
호우 경보								3	3	2			8
월평균					0.1		1.3	1.5	0.7	0.5	0.1		4.2

태풍 주의보 · 경보

태풍 주의보는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예상되거나 또는 호우·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태풍 경보는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의 폭풍·호우·해일 등으로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표는 속초와 동해 중부에 내려진 태풍에 관한 기상 특보 발표 횟수이다. 월별로 볼 때 8월이 가장 많고 매년 1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태풍 주의보						1		3	1				5
태풍 경보							2	3	1	1			7
월평균						0.1	0.2	0.6	0.2	0.1			1.2

해일 주의보 · 경보

해일 주의보(海溢注意報)는 해저 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 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발표하며 동해 중부 해상의 해일은 10년간 4회 발표되었으며 봄철에 주로 발생되고 있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해일 주의보			2		1	1							4
월평균			0.2		0.1	0.1							0.4

파랑 주의보

파랑 주의보(波浪注意報)는 폭풍 현상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동해 중부 해상의 파랑 주의보는 8월이 월 10회로 가장 많다. 이것은 8, 9월에 내습하는 태풍과 관련이 깊는데 태풍이 통과한 후 북동 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한 높은 파도가 속초 연안에 파랑으로 밀려 오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건조 주의보 · 한파 주의보 등이 있으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발표한다.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파랑 주의보	4	5	2		2	4	1	10	8	3	2	1	42
월평균	0.4	0.5	0.2		0.2	0.4	0.1	1.0	0.8	0.3	0.2	0.1	4.2

15 동식물

속초 지방의 동식물

만주 아구와 시베리아구의 공생(동물)/
제주도 다음으로 특산 식물이 많다(식물)

만주 아구와 시베리아 아구의 공생(동물)

동 물 분포 관계상 한국은 구북구의 동아시아구에 속하고 이것을 다시 두 개의 아구로 나누어 시베리아아구와 만주아구로 나눈다. 함경도의 대부분과 평안도와 강원도의 일부가 시베리아아구에 속하고 한국의 다른 지역은 만주아구에 속한다는 것이 종래의 견해이다. 따라서 설악산 일대는 만주아구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리상으로 시베리아구의 바로 남방에 위치하고 또한 지형상 북한의 고지대와 연결하는 태백 산맥 북부에 위치하는 비교적 높은 지대임으로 시베리아아구적인 동물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포유류(哺乳類)

설악산에는 표범·산양 등 시베리아 아구의 특징적인 포유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백두산을 비롯한 한국 북부에 주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설악산에도 있다. 그리고 희귀종인 산양과 사향노루, 곰 등은 다른 지역에



산양(천기 제217호)



반달기슴곰(천기 제329호)

비해 밀도가 높으며 또 대형종은 인간의 간섭으로 높고 험난한 곳으로 은신하고 있다.

설악산 포유류의 실태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멸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호랑이와 대륙사슴은 2차 대전과 6·25이후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째, 사라져 가는 종류.

하늘다람쥐·곰·산양·사향노루·수달 등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 되었으며 늑대·여우·표범 등은 종족 유지를 위해서도 주요한 종류이다. 날다람쥐는 단 한 번의 기록 뿐이다.

셋째,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멧돼지·오소리·노루·고라니·담비 등 중·대형 포유류는 인간 간섭과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넷째, 환경 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청설모·다람쥐·멧토끼 및 들쥐들은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로 증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설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는 멸종된 것이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14과 37종이다.

조류(鳥類)

속초시는 설악산과 청초호·영랑호가 있고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으로 조류의 분포도 아주 다양하다. 특히 청초호와 영랑호는 고니류의 도래지로 유명하고 많은 갈매기의 무리가 월동하며 각종 오리류도 찾아 오고 있다.

파충류(爬蟲類)

설악산의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9속 13종이 조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지뱀과에 속하는 줄장지뱀·장지뱀은 내설악에서만 채집되고 있다. 따라서 속초 지역의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9속 11종이다.

양서류(兩棲類)

설악산의 양서류는 지금까지 2목 5과 6속 10종이 조사되었다. 꼬리치레도롱뇽은 전 계류에서 상류까지 유생이 서식하며 무당개구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다음이 물두꺼비이다.

담수어(淡水魚)

속초시에는 쌍천과 청초호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있고 영랑호가 있다. 쌍천의 수질은 양화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가뭄이 심할 때는 유로가 끊기는 곳이 많다. 청초호는 유입되는 소하천의 수량이 적어 담수어 서식에 적합치 못하다.

영랑호는 약 100ha의 넓이를 가진 자연 호수(석호)로 가끔 바다와 연결된다. 따라서 담수어 외에 수종의 해산어도 산출되고 있다.

쌍천과 영랑호에서 서식하는 어종은 다목장어과의 칠성장어를 비롯해 전어과의 전어·산천어·연어 등 41종이다.

제주도 다음으로 특산 식물이 많다(식물)

치 악산은 식물구계(植物區系) 지리학상 한국구의 중부아구에 속하며 북방계 식물 분자와 남방계 식물 분자가 혼생할 수 있는 지대에 위치하며 매우 다양한 식물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식물 분포학상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설악 산맥이 남쪽으로 놓이고 동쪽으로 치우쳐 주봉인 대청봉(1,708m)과 산 아래 사이에 약 12~13℃ 정도의 기온 차이가 있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서 고도에 따라 아한대 기후와 냉온대의 북부·중부·남부 기후대 등 4개 기후대로 구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이 참나무속·단풍나무속·서나무속 등을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 활엽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은 태백 산맥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최고봉이 해발 1,708m나 되기 때문에 과거 지질 시대에 있었던 기후 변천 시대에는 북쪽 식물이 남하하는

통로가 되었고 기후가 회복됨에 따라 남하했던 식물이 북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산정 부근에 잔존하는 고산 식물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설악산의 식물상은 정태현·이일구에 의해 1959년에 642종, 정태현·이우철에 의해 1963년에 785종과 181변종 14품종이, 설악산 학술 조사 보고서(1967년 문교부)에서는 855종, 같은 보고서 1984년 강원도에서는 882종, 임양재·백순달에 의해 1985년에 1,013종이 조사 보고되었고 이 밖에 여러 사람에게 의해 식물상이 조사된 바 있다.

설악산에 자라고 있는 관속 식물은 104과 447속 1,207종으로 밝혀졌고 그 가운데 특산 식물이 65종·희귀 식물이 19종, 특산 식물 중 15종·희귀 식물 중 19종류는 설악산에서만 자라고 있다.

16

교 육

초등 학교에서 전문 대학까지

속초 교육의 여명/이 고장에 닥쳐오는 신학문/강원도
속초 교육청/초등 학교로 불리우기까지의 속내/속초
에불어 오는 중등 교육의 열기/동우 전문 대학

1919년 대포 보통 학교로부터의 신학문

속초 교육의 여명(黎明)

전문 대학이 1981년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른다

속 초에서 최초의 공교육(公教育) 기관은 1919년에 설립된 대포 공립 보통 학교이다. 이전에 양양에는 고려 충숙왕 때 이미 향교가 창립되었고, 조선 왕조, 인조 때에는 사학(私學)으로 동명 서원이 들어서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일제 강점 직전인 1906년 신학문을 가르치는 현산 학교가 설립되는 등 정규 교육 기관이 일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초는 양양에 속하였던 지방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3면 1교(三面一校)' 정책에 의해 최초로 당시 속초에 근대 교육 기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전에는 양양군 지역의 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당 등 개인 교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직후의 속초 인구는 도문면에 590명과 소천면에 640명으로 합해서 1,230명에 불과했으며,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할

때 학령 아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교육 기관 설립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최초로 대포 공립 공립 보통 학교가 세워진 지 거의 80년을 헤아리게 되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속초에는 초등 학교 10개 · 중학교 4개(남녀 각 2) · 고등 학교 3(남녀 각 1개 · 남녀 공학 1) · 전문대 1개가 있다.

초등 학교 194학급에 8,000명, 중학교 79학급으로 4,000명, 고등 학교 75학급 4,000명, 전문 대학 3,000명이며, 15개 유치원과 유아원에도 1,000여 명의 원아들이 있다.

교직자는 초등 학교 230명 · 중고등 학교에 330명 · 전문 대학에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60여 명이 재직하고 있다.

현재 속초 교육청은 속초시와 양양군의 교육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개량 서숙 · 신학 서당

이 고장에 닥쳐오는 신학문

청대 서숙/청호 서숙/초호 의숙

지역 원로들에 의하면, 정규 보통 교육 기관인 대포 공립 보통 학교가 이곳에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서당 교육(書堂教育)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구한 말까지도 신학문 학교의 설립에 대해 유림(儒林)들이 극력 반대하였으며, 양양의 현산 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것이 그 좋은 하나의 예이다. 이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부터 뜻을 가진 민족 지도자들은 신학문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른바 '신학 서당(新學書堂)' · '개량 서숙(改良書塾)'이라는 것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종전의 전통적 서당 교육에서 진보된 형태로 한문을 비롯한 산술 · 체육 · 일본어 등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었다. 교과별로 별도의 교사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속초에서의 최초 '개량 서숙'은 청대리(현 조양동 16통 일대)에 장성헌(張聖軒)이 설립한 '청대 서숙(靑臺書塾)'으로 설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서숙은 대포 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4, 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였을 정

도의 규모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기혼자에서부터 7, 8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연령 격차가 심했다고 한다. 대포 학교의 영향으로 학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들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돌림으로 서당을 운영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부월리 '오동나무 거리(현 '동우 실업' 자리)'를 비롯한 '배다리(현 속초 해수욕장 부근·조양동)' 부락의 이종형·온정리(현 조양동 12통 일대) 김종한 사가로 옮겨 다니며 부지(扶支) 하였으나, 끝내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이때 서숙의 명칭은 '청호 서숙(靑湖書塾)' 이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부월리에는 마을 공동 운영 형식의 '초호 의숙(草湖義塾)'이 설립되어 이인영(李寅永)이 강사로 초대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도 교과목은 개량 서숙의 형태이었으며, 1940년대 초에 폐쇄되었다. 또 다른 개량 서당이 있었으나 그 명칭이나 세부 사실은 전하지 않는다. 당시 속초리라고 함은 현재 영랑동과 동명동 그리고 중앙동 일대를 일컫는 지명으로, 이 서당은 현재 동명동 사무소 동북편에 위치했으며 감리교파의 개신교를 신봉하는 인물로 알려진 오현영(吳鉉泳)이 세웠었으며, 교과목 가운데는 기독교 교리가 있었던 것이 다른 개량 서당과의 차이였다고 한다.

광복 이전 이 고장의 서당 훈장(訓長)들을 원로들의 기억에 의지하여 보면, 도리원 이교민(李教民) 광복 후 심주섭(沈柱燮)이 계승함)·상도문리 오윤환(吳潤煥)·오각환(吳珏煥)·온정리 진동규(陳東奎)·장천리 엄내영(嚴乃泳)·엄주익(嚴柱益)·척산리 차명균(車明均) 등이다.

강원도 속초 교육청(教育廳)

속초시와 양양군의 교육 행정을 관장

강 원도 속초 교육청은 속초시 교동 665-1번지에 위치하며, 속초시와 양양군의 교육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학무과와 관리과로 나누어 학무과는 초등계·중등계·사회교육계·체육계, 관리과는 서무계, 관리계, 시설계, 경리계 등이 속해 있다. 교육장을 비롯하여 장학관·장학사·파견 교사 등 교육 전문직 공무원과 사무관, 주사 서기와 기



술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속초는 수복과 동시에 양양군 자치 위원회에서 교육 행정을 관장하였고, 1954년 11월 수복 지구 임시 조치법에 의해 시군 단위의 교육 자치제가 실시되어 양양 군수가 교육감을 겸임하였다. 1957년 7월 처음으로 양양 교육청 청사가 준공되었다. 1962년 1월 시군 단위 교육 자치제가 폐지되어, 양양군 군청 내에 교육과를 두어 교육 행정을 관장케 하였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11월에 구역이 개편되어 속초 분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음 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속초 교육청이 발족한 것은 속초가 읍에서 시로 승격한 다음으로 1964년 1월 도의 단위로 교육 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속초와 양양은 각기 별도의 교육청을 발족시킨다.

초대 교육장으로는 김석연(金錫年), 양양에 김종극(金鍾極)이 각각 취임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968년 4월에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며, 1973년 부터 교육법의 개정으로 속초와 양양 교육청이 통합되었다. 1991년 도를 단위로 하는 교육 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그 명칭도 '강원도 속초 교육청'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리하는 시설물은 속초시 교동 731-3번지에 위치하는 학생 체육관으로 건평 1,312.7㎡(397평), 수용 인원 250명이다.

열린 교육의 선두 주자 청대초등학교(靑垚初等學校)

청대초등학교는 '94년 11월 5일 141,740㎡의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95년 7월 12일 가칭 청대초등학교로 신설계획 확정을 받고 2년여의 공사 끝에 '97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된 신설학교이다.

이 학교는 속초시 조양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고층APT단지 밀집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대초등학교의 모태인 '71년 3월 1일 개교한 조양초등학교가 문을 연지 실로 26년만의 경사인지라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들의 큰 환대를 받으며 배움의 전당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교장의 초등 교육과 학교 개설

초등 학교로 불리우기까지의 속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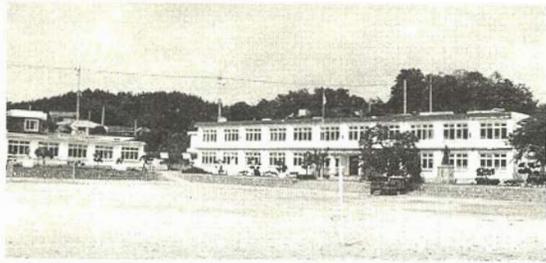
1996년 국민 학교에서 초등 학교로 개칭

일 제 강점기 아래서 그들의 '3면 1교(三面一校)' 교육 지침에 의해서 당시 도천면(道川面) 소재지 대포리에 대포 공립 보통 학교(大浦公立普通學校)가 1919년 4월 1일 개교하기에 이른다. 이는 속초에서는 최초의 학교이며, 양양군 내에서 현산 학교(峴山學校·1906년)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속초·양양·고성, 즉 영북 지방에서는 간성 초등학교(杆城初等學校·1910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교된 근 80년의 역사를 가지는 오래된 학교이다.

6년 후인 1925년에는 천진 공립 보통 학교(天津公立普通學校)*가 개교하기에 이른다.

대포 보통 학교 설립에는 당시 도천 면장 김양규(金兩圭)를 비롯한 인사들이 더욱 적극적이어서 면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학교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크게 없었으며, 주민들이 설립 공사에까지 참여, 교실 4칸(間)을 완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교 당시는 4년제, 2학년과 강습소 1학급으로 편제되었다. 입학금은 1원이며, 월사금은 50전이였다.

김마장평(金馬壯平)이라는 일본인이 초대 교장이었고, 김진익·남필순·서



대포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설악초등학교

재선·정종구 등이 교사로 있었다. 1923년에 이 학교는 6년제로 승격하여 당시 4년제이던 천진·강현 학교생들이 편입하기도 했다. 1936년 대포 공립 심상 소학교*로 개칭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 1939년에 조선 총독부의 국민 학교* 교육령에 의하여 비로소 대포 국민 학교(大浦國民學校)*라고 불리우게 된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11개 학급으로 증설되었고, 광복이 되어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는 그들 교육령에 의해 5년제 소위 인민 학교*로 개편되었으며, 6·25전쟁으로 이곳이 수복되자 AFKA의 원조로 교실 6칸이 증설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한편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면서 속초면으로 개칭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1937년에 영랑 공립 심상 학교*가 세워진다.

당시 면장 박상희(朴祥喜)와 이 교장의 재벌 고재동(高裁東·일명 동환東煥) 등이 개교에, 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처음에는 1개 학급으로 개교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말에는 6학급으로 증설되었으나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이 학교 역시 5년제로 그들 교육령에 의해 인민 학교*로 편제되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이곳을 수복한 국군 제 775부대가 이 학교의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선무 담당 문관 김문선과 이 학교의 임시 교장 김지국(金枝鞠) 교감 오세하(吳世夏)는 수차례 협의 끝에 속초의 지명으로 정하여 속초 국민 학교*로 개칭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 즈음에 전선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맞았고 1951년 봄 수복하였을 때는 이 학교의 건물은 소실되어 있었다. 이에 학교 재건립에 착수하여 현재 강원 은행 속초

지점 부근의 당시 목조 건물을 임시 교사(校舍)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초대 교장으로는 김교국(2대 이영모李英模)·교감 진형선(陳炯旋)이었으며, 유성국·이유원·김순복·이주희·이춘자 등이 교사로 재임되었다. 이들은 규정 당국에서 지원한 탄약 상자를 이용하여 책상을 사용했으며, 사랑방 정도 크기의 교실 여섯 칸에서 수업을 했다.

1952년에 현재 위치에 목조 단층 교사(校舍)를 짓고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 속초초등학교는 이곳이 완전히 수복된 후 세워진 1951년 10월 8일을 개교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랑 학교는 1950년도에 사실상 폐교된 셈이다.

현재 영랑호 옆에 위치하는 영랑 초등학교가 신축된 것은 1955년 12월 1일로 초대교장에 고연재(高淵在)로 속초 국민 학교*에서 분리되어 23개 학급을 받아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겨울 목조 단층 교사(校舍)가 완공, 입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온정 초등학교는 그 근원을 개량 서당(改良書堂) 때로부터 잡는다. 이것으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전쟁 중인 1951년 속초 국민 학교*의 분교로 인가를 받게되어 명칭은 속초 국민 학교* 노리 분교가 되었는데, 1953년 7월에 설악 국민 학교*라는 명칭으로 정식 승격하였으며, 1965년 11월 현재와 같이 온정 국민 학교*로 개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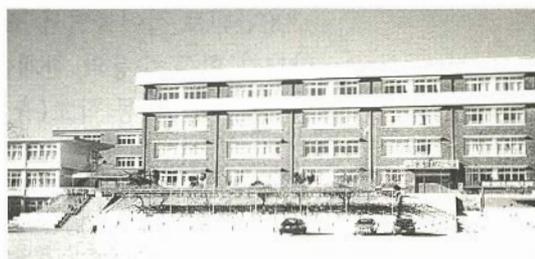
설악 국민 학교*의 변천 과정도 다소 특이하다. 1940년 대포 학교는 상도문리에 주봉 간이 학교로 부설교를 세운다. 이 학교는 1954년에 주봉 국민 학교*로 승격하였으나, 1965년에 외설악 국민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위치는 현재 켄싱턴 호텔이 위치한 자리이며, 설악산 관광 개발로 설악



청초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고동초등학교



조양초등학교



청대초등학교

동에 인구가 급증하여 현 설악동 구단지에 설악 분교를 별도로 세우게 된다. 이 분교는 1974년에 설악 국민 학교*라는 명칭으로 정식 승격되었고, 1979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외설악 국민 학교*를 오히려 흡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청호 국민 학교*는 1958년 4월에 개교하게 되는데, 이는 속초 국민 학교*가 비대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청호동을 단일 학구로 하여 설립하였다.

중앙 국민 학교*가 1963년에 개교하기에 이른 것도 역시 영랑 국민 학교*와 속초 국민 학교*가 비대한 것을 분산시키고자 설립하였으며, 교동 국민 학교*도 1969년에 속초 국민 학교*의 분산책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양 국민 학교*는 1971년에 온정 국민 학교*와 청호 국민 학교*의 일부 학생들을 분리하여 12학급으로 흡수하여 개교하였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조양동에 대단위 APT 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조양 초등학교가 학생 수용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95년 7월 신설 계획을 확정짓고 '97년 3월 청대 초등학교(靑垲初等學校)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주(註) * 별표(asterisk)는 당시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국민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조선 총독부 교육령에 의하여 개칭한 것으로, 국민(國民)은 '황국 신민(皇國臣民)'의 줄임이다. 즉 황국(皇國)에서 '국國'자와 신민(臣民)에서 '민民'자를 따내어 합친 말이다.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1996년 3월 1일, 제77주년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교육법으로 개칭하여, 3월 1일 이후 초등(初等) 학교로 불리우게 되었다.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가르치려는 선구자들

속초에 불어 오는 중등 교육의 열기

전후에는 속초 중학교가 최초의 중등 학교

속 초에 중등 학교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광복 후이며,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설립되었다. 청호동 동우 실업 자리에 당시 속초 인민 중학교가 있었고, 지역 원로들 가운데 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소실되었고, 후에 복원되지 않아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6·25전쟁 중인 1951년 수복되면서 군정 아래에서 세워진 속초 중학교가 최초이다. 당시 민정관 정주벽(鄭珠碧)·기성 회장 전현근(全玄根)·부회장 김

태영(金兌泳) 등이 주축이 되어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 결과 조양동 논산리에 목조 초가(木造草家) 빈 집을 임시 교사(校舍)로 하여 남녀 공학 3학급으로 설립되기에 이른다.

초대 교장에 이철우·교감 이형조·교사(教師)로는 강춘섭·안홍광·김경희 등으로 얼마 후부터는 이조영·오세하 등도 교사로 재직하였다.

첫 졸업생은 1952년 남녀 34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 학교는 교동 657번지로 옮긴 것이 1953년 5월의 일이다. 속초 중학교는 이곳에서 1988년 12월 교동 776-1번지(구 속초 고등 학교)로 옮겨 가기까지 35년 간을 보내면서 이 교장 명문 중학교로 발달옴하였다.

한편으로 속초 고등 학교가 설립된 때도 역시 전쟁 중이었다. 군정 당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1952년 5월 25일이었고, 개교는 6월 2일이다. 이는 교사(校舍) 건립 당시 설립 허가를 기정 사실로 하고 교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지 설립 허가일이 5월 25일이고 개교일이 6월 2일, 그 기간이 1주일이라고 해서 이를 교사 건립 소요 기간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이다. 당시 이 교장에 고등 학교 설립을 간절히 원했던 지역 주민들은 군정 당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대한 청년단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속초 초등학교 서편의 감자밭을 닦아서 교무실과 교실을 각 한 칸씩 짓기에 이른다. 대한 청년단 속초 지부 단장은 김태영이었고, 김현호·김종록·이건석 등이 관계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개교하게 된 속초 고교는 남녀 공학으로 50명을 모집하여 교장에 서창하(徐昌河)·교감에 김치윤, 교사로는 서일갑·이석호·이석록으로 이창희가 서무과장으로 교육



속초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여자중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설악여자중학교

행정사무를 맡았다.

첫 입학생은 정원 50명을 넘어서 62명으로 남자 57명과 여자 5명이었다. 이들은 1955년 2월에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때 교장은 서창하·교감에 노광묵(魯光墨)이었고, 교사진은 김치운(金致潤)·이승균(李昇均)·김응려(金應麗)·조동훈(趙東薰)·지진용(池鎭鏞)·김명현(金明鉉)·이창호(李昌浩)·안정호(安正浩)·김옥규(金旭圭)·김효순(金孝淳)·윤홍렬(尹弘烈) 등이 재직하였다.

속초 고등 학교가 교사를 처음으로 옮긴 것은 1955년 9월로 UNKRA 즉, 국제 연합 한국 부흥 위원회에서 공급한 자재로 제25사단 공병대가 시공하여 영랑동(현 양우 아파트 자리)에 목조 2층으로 12개 교실을 완성시켜 옮기었다.

이 교사는 약 10년 후에 낡아서 한쪽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1966년 3월 두 번째로 현재 설악중학교 교사 자리에 옮기면서 속초 고등 학교는 중학교 병설 인가를 받아 속초 중고등 학교가 되었다.

1971년 9월에 이 병설 중학교는 설악중학교로 분리하여 독립하게 되고, 따라서 속초 고등 학교는 이 교사를 한동안 같이 사용하다가 1973년 설악중

학교에 양도하고 현재 속초 중학교 교사인 건물을 짓고 옮겨서 15년 남짓하게 지나, 다시 1988년 11월 현재 장사동 신축 교사로 옮긴 것이 무려 다섯 번째의 옮김이었다.

속초에서 여성 교육 기관이 탄생한 것은 속초 여자 중학교가 개교한 1955년 5월이다. 속초 중학교에서 분리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속초 중학교에서 수학하던 34명이 1956년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된다.

속초 여자 고등 학교는 1963년에 속초 고등 학교에서 여자 고교로 분리되면서 1970년 3월 속초 여중과 병설로 속초 여자 고등 학교를 설립한다.

세 학급 규모로 현재 속초 도서관 자리에 교실 네 칸을 신축하여 분리시켰으

며, 1965년 이 학교에 부임한 서창하 교장은 속초 고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초 여고 설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속초 여고가 병설 분리되면서의 첫 교장으로는 김명섭이다. 1971년 속초 여자 고등 학교는 상업계 실업반을 신설하면서 속초 여자 종합 고등 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그 다음 해인 1973년에 속초 여자 고등 학교로 명칭이 환원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업계 실업반은 그대로 존속하여 왔으며, 속초 상업 고등 학교에서의 여학생 입학이 허용된 이후에야 비로소 순수한 인문계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교사로 이전한 것은 1984년 12월이다.

속초 상업 고등 학교는 1969년에 설립 인가를 받아 1970년 초대 교장으로 이호순이 부임하면서 속초 실업 고등 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한다. 1973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76년에 속초 상업 고등 학교라고 개칭되었고, 1979년 12월 학급 증설 때에 여학생반 2학급이 신설되면서부터 남녀 공학이 되었다. 이 학교에는 현재 방송 통신 고등 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설악 중학교는 66년도에 속초 고교와 병설로 설립되어 '71년 9월에 분리되었고, 설악 여자 중학교 역시 당시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가 실시됨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1971년에 설립된 학교이다.

1981년 개교, 속초의 유일한 고등 교육 기관

동우 전문 대학(東宇專門大學)

현재 14개 학과 4천여 명 재학

1 980년 11월 3일 학교 법인 동성학원 설립 인가 및 속초 경상 전문 대학 예비 인가(초대 이사장 전재욱 全載旭 박사). 1981년 3월 28일 개교식 및 81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2년제 단기 고등 교육 기관으로 '96년 현재 14개 학과에 총 재학생은 4천여명이다.

이 대학의 설립 이념을 보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을 구유케 하며, 국가 발전과 민족 중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 직업인 양성과,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성인 교육 및 교양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고등교육과, 상위 고등 교육에의 계속적 교육을 위한 기회



동우전문대학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적 교육 이념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며,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사회 교육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산학 협동 체제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

'80년 1월, 법인 설립 총회를 갖고 같은 해 2월 교육부에 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여, 1월에 법인 설립과 전문 대학 개교 본인가를 받게 된다.

그 이듬해인 '81년 3월에 속초 경상 전문 대학(束草經商專門大學)으로 개교하였다가 그 해 10월에 속초 전문 대학(束草專門大學)으로 학교명을 바꾼다. 이를 다시 '83년 9월에 현재와 같은 동우 전문 대학(東宇專門大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속초시 노학동 산 224번지).

17

문 화

문화(文化)란 무엇인가

문화의 보편적 관념/문화재의 정의/우리 나라 문화재의 분류/속초 문화의 특성/실향민의 유입으로 문화의 혼합/일반 대중의 문화 향수(가)

라틴어 경작·육성의 뜻에서 유래

문화(文化·culture)의 보편적인 관념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 양식의 총체,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이며,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제도 따위를 말한다.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이지만 문화의 정의는 한 마디로 내릴 수 없다. 그것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화'는 라틴어 cultura(경작 육성의 뜻)에서 유래된 영어의 culture, 프랑스어의 culture, 독일어Kultur의 번역한 말이다.

통속적으로는 문화 주택,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근대적·서양식·편리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왔다. 이와는 별도로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2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학문·예술·종교·도덕과 같이 정신적 활동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 즉 이념으로서 인간을 충실하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는 뜻을 포함한다.

두번째는 모든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통틀어 문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별 문화는 각각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저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화의 뜻은 무엇일까.

동물의 행동은 오로지 유전과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나 인간은 이에 더하여 경험과 모방 및 언어를 통하여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사고(思考)·감정·행동을 습득하고 획득한 것을 같은 세대와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학습 전달되는 통합성을 가진 총체를 문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예컨대 국가·민족·부족·지역·종교·언어 등의 차원에서 미국 문화·한족 문화·에스키모 문화·오세아니아 문화·이슬람 문화·라틴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한국 문화(韓國文化)는 어떤 것일까. 한국 사람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방식 가치와 체계 윤리관과 행위의 규범 관습 등이 어우러져서 내는 생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말한다.

문화란 천래(天來)의 것이 아니다. 교류와 회전을 반복한 나머지, 그 토양에 적합한 종자가 그 적용된 조건 아래서 발아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한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표면에 나타난 생활 문화에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 그 토양의 성질을 판단할 수도 있을 이치이다.

—김소운金素雲/목근 통신木槿通信

문화재의 정의

유네스코가 정한 포괄적인 서술

문 화재(文化財 culture assets)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물 사상(事象)에서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진 것과 특히,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민속 문화재(民俗文化財) 기념물 문화재(記念物文化財) 전통적 건조물 등을 일컫는다.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UNESCO)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찾으면 가장 상세하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① 건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 해부체 및 고고학적 관심 물체,
-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한 역사에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 ⑤ 비문·화폐·인장 따위의 100년 이상 된 골동품,
-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조각 및 조각의 기술로 만들어진 원작품들,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 ⑧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우표·수입 인지) 등이다.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무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 문화재의 분류

1962년 제정, 1982년 개정

우리 나라에는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있다.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4호로 전면 개정된 법률은 전문 7장 9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를 4가지로 정의 및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古文書)·회화(繪畫)·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記念物)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요지(窯址)·궁지(宮址)·유물 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및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동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民俗資料)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같은 법률 제2조 2항에서는 이들 중에서 지정 문화재라 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장관이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일컫고 있으며, 제4

조부터 제7조까지 이것의 내용이 나와 있다.

- ①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 ③ 무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해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보유 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④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⑤ 민속 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제55조 1항)이며 문화재 자료는 국가 지정·지방 지정 문화재에서 제외된 것 중에서 향토 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제55조 2항)이다. 그리고 이들의 지정 절차·관리·보호·육성·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條例)로 정한다(제55조 5항).

그뿐만 아니라 제43조에서는 토지·해저(海低)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즉 매장 문화재(埋藏文化財) 등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악·해양·자연 부락 문화의 혼합

속초 문화의 특성

전통으로부터의 속초 문화는 있는가

그 지역민들이 오랜 전통으로부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아는 것이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고장의 문화를 민속학자들은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한다.

첫째, 산악 문화의 특성으로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방식과
둘째, 해양 문화의 특성으로 어로 작업을 통한 생활 방식
셋째, 자연 부락 문화의 특성으로 부락 생활 방식 이 세 가지의 혼합된 양상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 변동으로 급조된 양태

전통적 삶의 양식과의 단절

향토 지식층의 해체가 그 원인

현 대 속초 문화의 특성을 논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시간상으로 현대,
공간상으로는 속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현대 속초 문화의 특성은 전통적 생활 양식과의 단절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현대 속초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곳에 대대로 터
잡고 살아오면서 문화 양태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당대의 격심한 사회
변동으로 갑자기 유입된 새로운 세력들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초는 고유 전통 문화의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소 기형적인 문화 양상을 보여왔다.

1945년 일제 강점으로부터 광복과 동시에 국토는 분단되어, 속초는 인공 치
하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이 지역의 지식 계층 즉, 문화 주도 세력들은 광복된
조국의 역군으로 인공에 적극 협조하게 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따라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수복이 되자 이들은 자진 월북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남북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속초 지역은 문화 주도 세력이 소멸되기에 이른다.

실제로 1919년에 개교한 대포 초등 학교가 개교 60주년이 되는 1979년에
이르러 1회 졸업생들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더니, 60여 명의 졸업생 가운데 20
여 명은 이미 작고했고, 20여 명은 속초와 그 인근 지역에 아직 생존하며 나머
지 20여 명은 재북(在北)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보통 학교는 이 고장
유일의 현대 교육 기관이었고 그 졸업생은 이 지역의 지식 계층이라 할 수 있었
다. 이들 상당수가 월북 또는 남북의 형태로 재북 상태에 있었음은 전통 문화

소멸의 원인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예이다.

북한 전역의 문화 대이동

실향민의 유입으로 문화의 혼합

그 실례로 북청 사자놀음이 있다

6 · 25전쟁 후에 이 고장이 북한 치하에서 벗어나 수복되면서부터 북한 실향민 인사들이 대거 이동하여 이질적인 문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실향민 인사들은 함경도 전역과 평안도·황해도 출신들이 고루 섞여 있었으므로 유년 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의 문화적 색깔을 찾아 내지 못함으로써 속초는 오랫동안 문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도 북한 치하에서는 견딜 수 없는 세력, 즉 부르주아지(bourgeoisie) 계층이었기에 각기 자기 지역의 문화 주도 세력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초에는 북한 전역의 문화가 이들의 유입과 동시에 상당한 양이 이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요 무형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북청 사자놀음(北靑獅子一)의 경우를 한 예로 들면 속초에 거주하던 실향민들로부터 재현된 것이 남한에서의 최초의 공연이다. 이들은 1·4후퇴 이후 이곳에 정착하면서 함남 북청 지방 특유의 공적 건물인 도청(都廳)을 짓고 1957년부터 자신들의 민속을 재현했으며 이것이 그로부터 10년 후에 서울을 전승지(傳承地)로 하여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 받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생활 양식에도 변화를 주어 가령 어민들의 경우 그 조업 방식이나 선박 건조 방식 등도 북한 지방의 것이 도입되었고 고기잡이의 노래도 북한 지방의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언어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북한 지방의 방언이 속초 고유의 방언을 밀어내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듯 실향민의 유입으로 속초 문화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되며 고유의 민속 문화는 소수 세력으로 남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게 된다. 사실 실향민의 유입은 속초 뿐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근 고성·양양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향민들 대부분이 어업이나 상업에 종사했고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일부 해안 지역과 도심지만이 실향민들에게 노출되었을 뿐 농경 문화권은 보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속초는 도문동과 노학동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실향민들에 의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유년 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속초 문화는 이질적이고 혼합된 문화 양식을 한동안 보였다.

튼실한 문화 향수의 갈망이 양질의 문화 풍토를 만든다

일반 대중의 문화 향수(享受)

문화의 인식과 취향이 유도되어야

문화의 창출자가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받아서 누리며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생산과 운송, 소비자를 생각할 수 있다. 문화를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문화 향수(享受) 세력이라고 한다. 즉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으로 개개인은 물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각종 단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에는 영북 문화 토론회 설악 문화 연구소를 비롯해 속초 도서관이 구성을 유도한 주부 독서 토론회 등이 있다. 그 밖에 나름대로 밝혀지지 않은 교양 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생 단체이므로, 현황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의 향수 세력의 확장으로는 직업별·연령별·계층별로 문화 인식 정도·취향 정도 등의 다양한 문화 의식 정도가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18

문화재 · 천연 기념물

내 고장 소재 지정 문화재

속초시 소재 지정 문화재/신홍사와 불교 문화재/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설악동 소나무/조양동 선사시대 사적지/극락 보전/도문동 고가옥/보제루/신홍사 부도군

속초시 소재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천연 기념물

문화재(文化財)

1997년 현재

구 분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자
국가기정 (4)	보 물	제433호	향성사지 3층석탑	66. 8. 25
	천 연 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65. 11. 5
		제351호	설악산 소나무	88. 4. 30
	사적지	제376호	조양동선사유적	92. 10. 6
도지정 (7)	강원도 유 형 문화재	제14호	신홍사 극락 보전	71. 12. 16
		제15호	신홍사 경관	71. 12. 16
		제85호	도문동 김종우 가옥	85. 1. 17
		제104호	신홍사 보제루	85. 9. 13

구분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자
	문화재 자료	제 7호	신흥사	84. 6. 2
		제 64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	85. 1. 17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91. 2. 25

발견된 매장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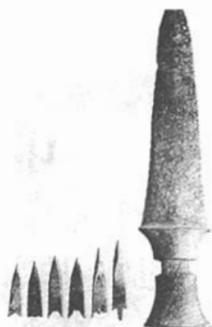
1. 출토품 : 간돌검(마제 석검 磨製石劍 1점 길이 29.5cm
돌살촉(석촉 石鏃) 6점 길이 4.6~4.9cm)

시 대 : 청동기 시대~초기 철기 시대

보 관 : 강원도 향토 박물관

발 견 : 1980년 12월 16일 라기봉

장 소 : 속초시 장사동 산 268-2



2. 출토품 : 청자 상감 우점 문완(靑姿
象嵌雨點文盥) 1점 높이
5.1cm 구경 10.0cm

시 대 : 고려 시대(14세기 말)

보 관 : 국립 중앙 박물관

발 견 : 1986년 6월 29일 김택성

장 소 : 속초시 교동 산 199번지
의 고분에서 출토

유물번호 : 신(新) 1,798



3. 출토품 : 청동숟가락(靑銅飯匙) 1
점 길이 28.5cm 면 9.5
× 3.6cm 손잡이 두께
0.4×0.4cm



시 대 : 고려 후기(14세기 말)
보 관 : 국립 중앙 박물관
발 견 : 1986년 6월 29일 김택성
장 소 : 속초시 교동 산 199번지
유물번호 : 신(新) 1,799

4. 출토품 : 향성사지(香城寺址) 출토 기와 3점. 수막새(수키와) 2점. 납석제(蠟石製 곱돌) 뚜껑 1점.

시 대 : 신라 후기~고려 초기
보 관 : 단국 대학교 박물관
채 집 : 1965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정영호(鄭永鎬) 이종우(李鐘禹)
채 집 : 속초시 설악동 향성사지 일대

5. 기타 유물 : 철모(鐵矛 쇠로 만든 세모진 창(槍)) 4점이 1968년 4월 3일 설악동에서 박공달에 의해 발견되어 국립 중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시대는 통일 신라 시대. 토불 좌상(土佛坐像) 1점은 1982년 8월 18일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에서 홍운표·박일만 등이 발견하여 강원도 향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선사 시대 유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양동(청대리靑垚里)에서는 이전에 돌칼과 돌도끼와 돌살촉,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속초의 진산 설악산의 큰 가람

신흥사(新興寺)와 불교 문화재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25개의 사찰과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대 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雪嶽山新興寺)는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 여왕(眞德女王 신라의 제28대 여왕 ?~654) 6년(652)에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아 지금 켄싱턴 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라는 절을 창건하였으며 이는 중향성 불토국(衆香城佛土國)의 글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孝昭王 신라의



제32대 왕 643~702) 10년(701)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 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 암자인 능인암(能仁庵 내원암內院庵 자리) 터에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했던 선정사는 조선 인조(仁祖 조선 왕조 제16대 왕 1595~1649) 22년(1644)

에 역시 소실되었다. 이듬해에 영서(靈瑞)·연옥(蓮玉)·혜원(惠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신흥사 터를 신성한 땅이라고 점지함에 옛 향성사 뒤의 소림암(小林庵) 터에 새 절을 창건한 것이 오늘의 신흥사이다. 6·25 한국 전쟁으로 극심한 화(禍)를 입었던 것을 완전히 복원하여 오늘의 큰 가람을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통치의 수단으로 우리 나라 사찰을 1912년에 31본산으로 묶었을 때 31본산(本山) 가운데 하나인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로 있었으나 현재는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25개의 절과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최근 들어 이 가람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 1995년 1월 중순에 신흥사(당시 주지 송지홍宋知洪)의 첫 글자를 '신神'에서 '신新'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 가람 '일주문(一柱門)'의 현판도 설악산 신흥사(雪嶽山新興寺)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흥사 소장 불교 문화재

1. 향성사지 3층 석탑

자장 율사가 건립했다는 이 석탑은 캔싱턴 호텔 앞 갖길에 위치하며 1966년 8월 25일 보물 제443호로 지정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으로 꼽고 있다.

이 석탑은 정부의 복원 계획에 의하여 1966년 12월 23일 해체되었을 때 공사 감독을 했던 김주태(金周泰) 문화재 전문위원의 기록에 의하면 3층 옥신석(屋身石)의 중앙에 사리공(舍利孔)으로 생각되는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그 위에 동판 1매가 덮혔었으나 내장물은 도난당했음인 지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석탑은 분명히 신라 양식으로서 전체적으로 규율성이 있어 보이는 하나 일부에서는 예외적인 양식과 조성 기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점이 있다. 현재 탑의 전체 높이는 550cm이며 지대 석 높이가 20cm로 한 변의 길이는 333cm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이 고장의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이다.



천연 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 보호 구역

- 종별 : 천연 기념물 제171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지역
- 면적 : 173,744,811㎡
- 지정 : 1965년 11월 5일

설악산은 주봉인 대청봉(大靑峰 1,708m)을 중심으로 능선의 동쪽을 외설악(外雪嶽) 서쪽은 내설악(內雪嶽)이라고 한다. 외설악에는 쌍천(雙川)과 남대천(南大川)이 동해로 흐르고 내설악에는 북천(北川)과 한계천(寒溪川)이 소양강(昭陽江)으로 흘러 들고 있다. 계류는 곳곳에서 폭포가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며 충분한 습기를 더하여 줌으로써 울창한 숲을 형성하여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남북방계(南北方系)의 남북한선(南北限線)을 형성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하며 많은 생물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희귀종은 다음과 같다.

가) 식물

① 계곡의 남향면(南向面)에는 송림(松林) 북향면에는 참나무류를 비롯한 낙엽 활엽수가 숲을 이룬다.

② 계곡이 깊어질수록 눈썻백이 많아지며 능선에 이르러 눈잣나무 숲이 모아지면서 연결된다.

③ 우리 나라 특산의 금강초롱도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가 증가한다.

④ 눈잣나무와 함께 자라는 설악눈주목과 산기슭에서부터 나타나는 만리화(萬里花)와 설악조팝나무 금강분취를 비롯하여 능선에서만 자라는 산솨다리 등은 우리 나라의 특산종(特産種)이며 능선에서 자라는 눈향나무·이노리나무와 홍월굴도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나) 동물

북방계의 동물로 표범·산양·발곰·까막딱다구리를 비롯한 곤충류가 있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크낙새와 사향노루, 근래에 발견된 물두꺼비 등도 있다. 어류의 분포는 내외의 설악에 걸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설악이 좀 더 풍부하지만 북방계란 점은 일치된다.

수령 500년의 천연 기념물

설악동의 소나무

- 종별 : 천연 기념물 제351호
- 지정 : 1988년 4월 30일
- 수령 : 500년

솔 (松)은 그 수명이 길며 비료를 요구하지 않고 사시장청(四時長靑) 푸르고, 해변과 영상(嶺上), 평야와 산중, 그 곳에 따라 형태가 멋지게 적응하는 운치 있는 나무로서 생활력이 강해,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 기괴한 형태를 자랑한다. 바람 소리가 청아하고 냄새가 신선한 향기를 펼치며 공기를 청신하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점은 다른 나무로는 당할 수 없다. 송이와 송낙 복령(茯苓)은 소나무 아래의 소산이다.



소나무여! 이 세상에 생겨날 쯤 큰 뜻이 있었으리.
사시장춘(四時長春) 푸르러서 한겨울도 물랐어라.
사랑과 은혜 흠뻑 받아 못 나무 중에도 뛰어났거니,
하물며 춘풍 도리와 영화를 다투기나 하였으라.
대궐 명당 낚아서 무너질 때엔
긴 들보 큰 기둥으로 종실을 떠받들고
섬 오랑캐 왜적들이 달려들 때엔
네 몸으로 큰 배나 거북선 만들어 선봉을 꺾었니라.

다산/정약용의 충식송
(茶山丁若鏞蟲食松)

설악동의 이 소나무는 높이 16m, 줄기 둘레 4m이며, 나무의 줄기 윗부분의, 많은 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수관樹冠)은 동서가 21.4m 남북이 19.4m이다. 줄기는 지상 2.5m에서 세 가지로 갈라져 있었으나 남쪽과 북쪽의 두 가지는 죽고 중앙의 가지만이 살아 그 밑둘레는 3.5m이다. 나무의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예전에는 이곳을 지나면서 나무 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서 지나는 사람들이 쌓은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선사 시대에 있어서 요령성 문화의 교류

조양동 선사 시대 사적지(朝陽洞先史時代史蹟地)

- 종 별 :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지 376호
- 소재지 : 속초시 조양동 산 142번지 등 10필지
- 지정일 : 1992년 10월 6일
- 면 적 : 42,553㎡(12,872평) 중 24,295㎡(7,349평)



선사시대 사적지

조 양동(온정리溫井里) 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강릉 대학교 박물관의 발굴 조사(1992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과에 의하면 이 유적지는 기원전(B. C) 7~8세기의 청동기 시대(靑銅器時代) 주거지(住居址) 유적으로서 특히 3호 주거지가 있던 터에서 출토된 굽손잡이그릇은 우리 나라 동북 지방의 신석기 시대(新石器時代)의 말기 유적인 함경 북도 무산 호곡동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것인데 현재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의 말(末)과 청동기 시대 초기에 있어서 동북 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극락보전(極樂寶殿)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신 신홍사의 본전으로 정면 3칸(間) 측면 3칸으로 겹처마 팔작(八作)지붕¹⁾의 다풫집(多包)집²⁾ 단층집이다. 조선 왕조 인조(仁祖) 25년(1647) 영서(靈瑞)·연옥(蓮玉)·혜원(惠元) 등 세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고 조선 왕조 영조(英祖) 26년(1750) 각중(覺重) 등이 중수하였다. 순조(純祖) 21년(1821) 거관(巨寬)·근민(近旻)·부충(芙聰)·승기(勝琦)·창오(暢梧) 등이 중수하였고 순조 27년(1827)에 재 단청(丹青) 하였으며 최근인 1977년에 다시 보수하였다. 공포(供包)³⁾의 아름다움과 단청(丹青)의 다양한 문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면 어간(御間) 사분 합문(四分閤門)의 꽃살문양과 협간(夾間)의 빗살문양이 돋보인다. 극락전으로 오르는 석조(石造) 계단은 하나의 돌로 된 층계로 영조 37년 홍징(弘徵)·홍운(弘運) 등이 쌓았다.

1977년 보수할 때에 세 단계로 개조하였고 하단 양쪽에 용의 머리를 조각하였고 옆으로는 괴면상을 조각하였다. 축대 정면 왼쪽에는 길상초(吉祥草)와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본존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 문화재 14호로 지정되었다.



주(註) 1) 팔작 지붕

우리의 전통 한옥의 지붕 모양으로는 ① 맞배지붕 ② 우진각지붕 ③ 팔작지붕 세 가지의 기본형이 있다. ③ 팔작지붕은 네 귀에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집이다.

2) 다포집

집 기둥머리 위 뿐만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집을 가리킨다.

3) 공포

집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 같은 데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을 말한다. 아름다운 공포는 처마를 한층 돋보이는 역할도 한다.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85호

도문동 고가옥(道門洞古家屋)

속 초시 도문동 김종우 고가옥(東草市道門洞金宗友古家屋)으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도문동(중도문 2리 1186번지)의 고가옥은 1750년경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건립하여 4대를 물림하여 이어 왔으며 이 후에 이주한이라는 문중(門中)의 한 사람이 매입하여 2대째 살았고, 김종우 현재 소유주의 선친(김시중 金是中)이 매입, 2대째 내려오고 있으며 68.30㎡(20.66평)으로 ㄱ자형의 한옥이다.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 밖에 창고 등 부속 건물이 딸린다. 본채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딸리고 마루 뒤에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 벽지의 전형적인 곁집 양식이다. 안채는 전면 5칸 좌측면 2칸 우측면 5칸의 벽돌 기단과 주초석 위에 각(角)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흘처마의 팔작(八作) 지붕으로 안채는 5량(樑)과 외양간은 3량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김종우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64호

도문동 고가옥(道門洞古家屋)

속 초시 도문동 김근수 고가옥(束草市道門洞金根洙古家屋)으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도문동(하도문리 1504번지)의 고가옥은 목조 기와집으로 ㄱ자형이며 63.80㎡(19.3평)이나 확실한 건립 연대와 건립자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년 전에 건립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며 오랫동안 함평 이씨(咸平 李氏)가 관리해 왔으나 그 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걸쳐 현재 김근수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김근수가옥

강원도 유형 문화재 104호

보제루(普濟樓)

추사의 친필이 돋보인다

신 홍사의 본전(本殿) 앞에 있는 장방형의 큰 누각을 말한다. 섬돌로 쌓은 2단의 축대 위에 정면 7칸(間) (22.4m) 측면 2칸(8.5m)의 다락마루로 홀쳐마 맞배지붕이다. 1985년 9월 13일 강원도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 제104



호로 지정되었다.

영조 46년(1770)에 세워진 것으로 누각(樓閣)식으로 아랫층 가운데칸은 본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윗층은 다락으로 되어 있다. 본디 사찰의 본전 앞에 세워지는 누각은 각종 법회를 거행하던 곳이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다. 현재는 기 기능이 사라졌으며 세살(細箭)의 분합문(分閤門)을 달았다. 건물 안에는 직경 6척 비자(櫃子) 나무 통에 황우(黃牛) 6마리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법고(法鼓)와 목어(木魚)가 보존되어 있다. 특히 네 벽에 시판(詩板)과 추사(秋史)의 친필이 유명하다

기타 건물

1) 명부전(冥府殿)

정면 3칸(10.30m) 측면 2칸(6.75m) 겹처마 맞배 익공(翼工) 집으로 지붕의 물매가 급하다. 명부전이란 지장 보살(地藏菩薩)을 주로 하여 염라 대왕(閻羅大王) 등 10대 왕(王)을 봉안한 전각으로 현재 경판(經板)이 보관되어 있다. 신흥사 사적기에 의하면 영조 13년(1737)에 뇌운(雷運)·뇌상(雷尙)이 창건하고, 정조(正祖) 21년(1797)에 창오(暢悟)·거관(巨寬)이 증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근래 1975년에 다시 증수되었다.

2) 삼성각(三聖閣)

정면 3칸(間) 5.9m 측면 2칸 4m 겹처마 익공집이다. 명부전과 같은 양식의 집으로 같은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신흥사 사적에 의하면 고종 29년(1892) 진영각(眞影閣)이 무너지자 선악(仙岳)이 진영각의 남은 재료로 삼성각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조암(繼祖庵)에도 삼성각이 있어 신흥사 사적에 고종 27년(1890) 응화 대사(應化大師)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범종각(梵鐘閣)

정면 3칸(間) 4.55m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八作)지붕 익공집이다. 대종(大鐘)이 보관된 종각이다.

4) 운하당(雲霞堂)

일자형(一字形)의 기와집으로 한끝은 팔작지붕이고 다른 한끝은 맞배지붕으로 풍판(風板)이 달려 있다. 평면 가로 19.35m 세로 16.95m이다. 이곳은 경내 스님들의 식사와 손님 접대에 사용되어 왔다.

5) 적묵당(寂默堂)

정면 7칸(間) 19.70m 측면 2칸(9.18m)으로 된 신흥사의 요사(寮舍)이다. 본디 향성사 창건 때에 건립된 것이었으나 소실되고 인조 22년(1644) 영서·연옥·혜원 등 세 스님이 신흥사를 중창할 때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신흥사 사적에 기록되기는 고종 8년(1871) 상념(尙念)이 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판(經板)

경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형(大形)은 18.5×40cm 소형(小形)은 18.5×30cm 크기의 목판(木板)으로 280장이다. 1장마다 양면에 글자는 한글과 한자로 양각되어 있다. 양각된 글자는 범어(梵語)로 조선 왕조 효종 2년(1651) 고승 호엽(昊葉)이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법화경(法華經)·중례문(中禮文)·예수문(預修文)·결수문(結手文)·제청문(諸請文) 등의 판본(板本)을 장치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 신흥사 사적에서는 현종 2년(1661)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경판을 만든 호엽은 정조 21년(1797)에 처기(處琦)·시택(始澤)·의유(毅有) 등과 함께 해장전 단확(丹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명부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부모은중경 언해본(父母恩重經諺解本)·법화경(法華經)·다라니경(陀羅尼經) 등이 남아 있다. 이 경판은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불교 문화 유산이 명산 설악에 산재하지만 여기에서는 문화 재만을 다루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新興寺浮屠群)

1996년 소공원 매표소 앞으로 이전

신 흥사 부도군은 1991년 2월 25일 강원도가 문화재 자료 제115호 지정한 불교 문화재로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1996년 여름, 소공원 매표소 앞으로 이전하였다.

월암당탑(月岩堂塔) 대원당탑(大圓堂塔) 소련당탑(笑蓮堂塔) 향서당탑(向西堂塔) 은해당탑(隱海堂塔) 용암당탑(龍岩堂塔) 해암 거사탑(海岩居士塔) 백옥당탑(白玉堂塔) 담화탑(曇花塔) 벽담당파(碧潭堂塔) 계송당탑(桂松堂塔) 동파탑(東波塔) 성곡당탑(聖谷堂塔) 인봉당탑(麟峰堂塔) 불공탑(不空塔) 경봉당탑(勁峰堂塔) 요원당탑(遙圓堂塔) 등의 부도와 비(碑)가 한 곳에 모여 있어 부도군(浮屠群)이라고 한다.



19

문화공간 · 전달 · 활동

내 고장 문화의 실체

문화의 전달 기능은 튼실한가/내 고장의 문화 ·
예술 행사/내 고장 예술인들 활동상

새롭게 떠오른 속초 문화 회관이 각광

문화의 전달 기능은 튼실한가

극장은 TV등 영상 매체의 발달로 퇴조 현상

문화는 창출되어 전달되고 또 향수되는 것이라는 주체의 분류 방식은 경제학 분류 방식의 원용이다. 이렇게 볼 때 창출자가 있으면 그것을 향수자에게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바로 문화의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를 문화 전달 세력이라고 한다. 즉 각종 공연장 · 전시장을 비롯해서 문화원 · 도서관 · 극장 · 서점 · 교회 · 학교 · 언론사 · 출판사 등이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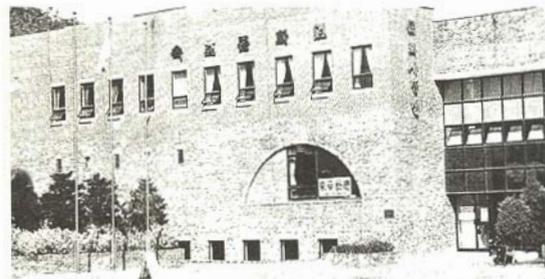
먼저 공연장으로는 새롭게 떠오른 속초 문화 회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750석 규모의 문화 공간으로 연극 · 음악회 · 영화 상영은 물론 각종 공연 행사장으로 각광을 받으며 명실 공히 속초 시민의 문화 전당으로 자리를 잡아 공연 행사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1989년에 건립된 문화 회관은 속초시 소유로



속초시 문화회관



속초도서관



속초문화원



속초시 여성회관

사무관을 책임자로 하는 관리 사무소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 극장은 현재 두 개소가 있다. 얼마 전인 1996년 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극장·대원 극장·중앙 극장 등 세 개소가 있었으나 1962년 12월 28일 개설하여 1996년 여름, 붕괴 위험의 판정으로 34년여 긴 역사를 가졌던 제일 극장과 대원극장은 헐리고 중앙극장(서울 예식장 자리)만이 영화관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동보 극장·중앙 극장 등이 있었다. 동보 극장은 구 현대 극장의 다른 이름으로 동명동 시청 앞에 위치했었으며, 현재 중앙 극장이 아닌 구 중앙 극장은 제일 극장과 같은 해에 세워졌던 것이었으나 낡고 중앙 상가의 신설로 헐려 지금은 그 자리가 상가로 변하고 말았다.

전시장으로는 역시 속초 문화 회관의 전시실이 한몫을 차지한다. 149㎡(45평) 규모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속초 도서관 별관 3층이 최근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밖에 일부 다방·은행 등 도서에 전시 등에 이용되고 있다.

서점은 동아 서점·중앙 서점·시민 서점·문우당 서림·금성 서점·기독교 서점 등 10여 개소가 있어 각종 단행본과 학생 참고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종교·학술 등의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곳은 기독교 서점이 유일하다.

속초 도서관은 1987년에 개관되었으며 금호동에 위치하며 600석 규모의 본관이 있으며 교동에 460석 규모의 분관을 가지고 있다. 보유 장서는 92년 현재로 3만7천여 권이며 연 15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사회 교육 사업으로는 교양 강좌·독서 교실 운영 등이 의욕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속초 문화원이 또한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한몫 하고 있다. 속초 문화원은 1963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각종 문화 강좌 개설과 문화 행사 개최 등의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사단 법인에서 1994년 특별 법인으로 그 위상을 높이었다. 지방 문화원 조성법에 의해 전국 160여 지방 문화원과 함께 향토 문화 진흥에 진력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회원과 10여 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회비나 지역 유지의 찬조금 및 국비·시비·문예 진흥 기금 등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속초 문화원이 펼쳐 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 강좌·청소년 예술 학교·학생 백일장·주부 교양 강좌·연날리기 대회·민속놀이 경연 대회·작곡 발표회·고서화 전시회 '속초 문화'지 발간·경로 잔치와 효부 효자 발굴 표창·향토사 연구소·풍물패 갯마당 운영·문화 가족 구성·문화 은행 유지·설악 문화제 연구단·문화 사랑방 운영 등을 들 수 있고, 1993년 5월에 개관한 속초시 여성회관 또한 여성 교양 함양과 능력 개발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56년 이동 방송국으로 개국한 KBS 속초방송국은 지난 '95년 2월 개국 40주년을 맞아 신축한 새 청사에서 TV국이 개국됨에 따라 영북 지구 주민들에게 끼치는 문화 전달 기능의 폭을 더욱 넓혔다.

신문으로는 지방지 속초신문사 설해 신문사가 주간으로 신문을 펴내고 있다. 종교 단체의 문화 공간은 현재 5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각 장르의 단체가 활발한 움직임

내 고장의 문화·예술 행사

시민들에게 문화 접촉의 폭을 넓히고 있어

예 술 행사라함은 전시·공연·출판 등의 각 예술 장르에 해당되는 행사를 가리키며 문화 행사라고 하면 각종 교양 강좌 및 향토 축제, 민속 등 문화 일반의 여러 행사를 일컫는다. 예술 행사나 문화 행사의 주요 개최의 주체는 각 장르의 예술 단체를 비롯한 문화원과 도서관 등 문화 전달 매체, YMCA 등 봉사 단체·교회·학교·방송국과 기타 자생 단체들이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문

화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이 부담하여 실시하기도 하고 약간의 입장료 또는 참가비를 받고 행하기도 한다.

속초시의 예술 단체들이 벌이는 각종 예술 행사와 중앙의 예술 단체들이 이 고장에서 벌이는 예술 행사가 전 장르를 망라해서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물소리 시 낭송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시마당도 격월로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부정기적으로 문학의 밤 등 행사도 꾸준히 개최한다. 미술 및 사진 등의 전시 행사도 협회 회원전, 학원 단체전 등의 형태로 일반 미술 작품과 서예 작품 등이 전시되며 타지역의 작품들 또한 순회 전시된다.

음악·연극 등 공연도 자주 열리고 있으며, 작곡 발표회와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시립 합창단 발표회 등이 선을 보이고 있고 '예음' 등 중앙 음악 단체가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야외 음악회를 갖기도 한다.

연극 행사로는 연극 협회 속초 지부 산하 연극 단체들이 활발한 공연 활동에 힘입어 꾸준히 일반 연극과 아동극 등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원 연극제가 속초에서 열리기도 했다.

무용으로는 김근희 무용단에서 계속하여 설악산 권금성과 비선대에서 산상 무용 발표회를 열었다. 양숙희 무용 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무용 발표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문화 강좌·청소년 문화 강좌·노인 교양 강좌·주부 교양 강좌·시민 교양 강좌·민속 행사·연날리기 대회·민속 놀이 경연 대회·글짓기 대회·미술 실기 대회·문화 유적지 순례 등이 문화원을 비롯한 동우 전문 대학, YMCA·속초 방송국 등 문화와 예술 전달 기능을 가진 각 단체들에 의하여 개최되어 시민·학생들에게 좋은 문화 예술을 전하고 있다.

문학과 연극 활동이 두드러져

내 고장 예술인들 활동상

예총·민예총과 각 단체를 통한 활동

속 초의 예술 활동은 예총과 민예총 등 각 단체를 구성하여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문학은 설악 문우회와 물소리 시 낭송회 두 개의

문학 동호인 단체에 3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연간으로 동인지 발간과 20여 회의 시 낭송회를 개최하며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인 이성선·박명자·최명길·이상국·김영준·김춘만 등이 왕성한 시작(詩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설은 윤홍렬·이인석 등이 아동 문학으로는 이희갑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속초 출신 문학인으로는 시에 황금찬·고형렬 소설에 김성숙, 희곡에 이반(이명수), 아동 문학에 김종영 평론에 염무웅 등이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작가로는 최재도가 있다.

연극은 연극 협회 속초 지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연 4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고, 전국 연극제 우승은 물론이며 강원도 연극계에서도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소속된 극단은 청봉 극회·파람블 등이 있고, 인형극 전문 극단 굴렁쇠가 있다. 현역 연극인으로는 장규호·김귀선·김태영·신오일·박영미 등이 있으며, 연출가로는 신원하·조수현·이수곤 등이 있다.

미술은 정규 미술 교육을 이수한 미술인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 4회 정도 동문전·회원전 등의 단체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 미전 등 각종 미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서양화 김광수·김영복·박흥기·정봉재 등과 조각에 장국보·박영근, 한국화에 최종국, 서예에 지응준·김동하 등이 현역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향한 미술가로서는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문세관을 비롯하여 이상필·이강석·김상락·최남길 등이 있으며 미술 평론가로는 이재언을 꼽을 수 있다.

사진은 속초 사진 동우회와 청봉 사진 동우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타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여 순회 작품전을 여는 등 단체전 형태의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있으며, 몇몇 작가는 개인전도 자주 열고 있다. 동우 전문 대학에 사진 영상과의 정규 교육을 받은 사진 작가들이 배출되어 사진 예술의 활기찬 활동이 예상된다. 작가로는 원로 최구현을 비롯한 성동규·엄상빈·장상기·김정일·전태극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은 음악 협회와 속초 시립 합창단을 중심으로 음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성악에 이진우, 작곡 및 평론에 임수철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용은 한국 무용가 양숙희가 꾸준한 활동으로 무용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

다.

대중 예술로서는 회원 60여 명으로 구성된 연예인 협회 속초 지부가 청소년
가요제 등을 개최하며 건전한 대중 예술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 연주자로는 한
기학·오세권·홍철 등을 꼽을 수 있다.

20

내 고장의 축제

설악 문화제(雪嶽文化祭)

향토 축제/설악 문화제의 뿌리/설악 문화제의 변천사/
속초 시민의 대축제

그 지역의 범주민적 문화 행사

향토 축제(鄉土祝祭)

속초/설악 문화제 · 양양/현산 · 고성/수성 문화제

향토 축제라 함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표출시켜 지역민들로 하여금 향토에 대한 자긍심과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을 모색하는 범주민적 문화 행사를 일컫는다. 각 지역 문화제와 시군민의 날·예술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80년대 이후 각 지역마다 거의 보편화되어 1건 이상의 향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88년 말 현재 전국 향토 축제는 325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속초의 설악문화제를 비롯한 양양의 현산 문화제·고성의 수성 문화제·강릉의 단오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름의 독특한 문화 행사를 개발하여 향토 축제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자기 고장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셔 이를 숭배하는 형태의 산신제·성황제 등 제례



행사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재현시키는 각종 민속 행사·등산 대회·벚꽃 축제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나 계절적 상황을 이용한 시민 행사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 지역 예술인들이 주동이 되어 전 예술 장르를 망라하여 전시 공연 등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예술 행사,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체력 경쟁을 벌이는 체육 행사 따위들이 향토 축제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에서 89년도에 발간한 소책자 "통계로 본 우리 문화(89. 12. 15 발행)"에 의하면 향토 축제를 크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여 모두 325건의 향토 축제 중 종합 향토 축제가 127건·역사 제의적 축제가 82건·민속 놀이 중심 축제가 31건·경연 대회 중심 축제가 33건·예술제가 52건 등이라고 밝혔다. 향토 축제를 주최 기관 별로 구분할 경우에 각 지방 문화원이 주최하는 것이 89건이며 별도의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 50건·각 시군이 집행하는 것이 50건·보존회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35건·예총 지부가 실시하는 것이 29건·기타 사회 단체가 집행하는 것도 29건이며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4건이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에 서울 7건과 전국을 순회하는 축제 2건을 비롯하여 경상도권에서 100건·전라도권 72건·충청도권 52건·경기권 44건·강원권 38건·제주권 10건 등이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적용하면 속초의 향토 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종합 향토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설악제 추진 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집행하는 행사이며 강원도 38개 향토 축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민속 학자들은 삼국 사기에서 찾는다

설악 문화제(雪嶽文化祭)의 뿌리

명산 대천에 제사, 자연 숭배 사상

김부식(金富軾)

삼국 사기(三國史記)

잡지 제일(雜誌第一)

제사·악(祭祀·樂)

“천자(天子)는 천지와 명산 대천을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명산 대천을 제사한다.”

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名山大川之在其地者。

삼산(三山) 오악(五岳) 이하 명산 대천(名山大川)은 나누어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지냈다.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遼城郡)。

이 고장의 설악제 기원(起源)을 민속 학자들은 우리 나라 최고의 사서(史書)에서 찾으며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이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삼국 사기에서 기원되는 향토제

설악(雪嶽祭)의 변천사

최구현 사진 작가와 이달영 등이 주도

설악제는 1966년 제1회 행사가 개최되어 '97년 현재 32회에 이르고 있다. 설악제는 처음에 예술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를 처음으로 개최한 사람은 사진 작가로 당시 임의 단체 형태로 존속한 예총 속초 지부의 최구현(崔九鉉) 지부장이다.

최구현씨는 작고한 이달영씨 등과 함께 설악산의 봉우리와 계곡을 따라 이름 지어주기와 1957년에는 사진첩을 제작, 설악의 비경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설악제의 시작은 설악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앞장선 홍보 차원에서 개최된 산악 문화 행사로부터 출발했다.

이 행사의 첫 집행은 예총 속초 지부로 하고, 주최는 예총 강원도 지부, 위원장은 속초시장이 각기 맡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최구현씨가 작성한 제1회설악제 개막식 연설문에는 “설악산 개발 10년을 기념하여 이 설악제를 개최하며,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여기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연다”고 하여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술 행사로 비롯 됨을 알 수 있다.

1966년 10월 1일 개최한 제1회 행사내용을 보면 전국등반대회를 우선으로 하여 사진 공모전·사진 촬영·미술 실기·미협 회원전·취주악 경연·음악의 밤·무용의 밤·햇불놀이·취주악 경연·미 공보원 영화 상영 등이다.

산악 행사에는 당시 이기섭(李基燮) 박사가 결성한 '설악 산악회'가 산악인들의 무사고를 비는 제천 행사와 전국 규모의 등반 대회를 개최하며 참여했다. 산악인들은 정고평에서 행사를 시작해 산악 경기, 대회를 통해서 산악왕(山嶽王)을 선발 시상했으며, 이 행사에 참가한 전원이 시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속초 지역의 각 직장 산악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100여 산악 단체가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은상·이승녕·이효상·방일영씨 등의 원로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 무게를 실는 행사가 되었다.

이들 원로 산악인들을 비롯한 일행은 백담사에서 가야동 계곡과 오세암을 거쳐 마등령에 올라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격의 설악제는 제3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예총에서 산악인들에게 넘어간다.

제17회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면서 속초시가 주관 하게 된다. 이같은 시민의 대축제는 이후 관 주도를 탈피하자는 시민들의 여론에 접하면서 제24회부터는 설악제위원회가 결성되어 민소유 민주도 행사로 전환한다.

제30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문화”를 삽입, “설악 문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속초문화원이 “설악문화제 연구단”(단장 속초문화원장)을 두었으며 제31회부터는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순수한 전통민속축제로 탈바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행사를 큰 묶음으로 하면 ① 설악대제 ② 설악산악제전 ③ 통일 염원 제전 ④ 설악 예술축전 ⑤ 해양 문화 제전 ⑥ 향토 민속 축전 ⑦ 거리 문화 축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향토 축제로서의 문화 행사

속초 시민의 대축제(大祝祭)

제32회를 맞이한 설악 문화제-행사 종목

설 악대제-제례(강신·영신·봉안·조전·송신), 제례굿(동해안 별신굿), 제등행렬(위패영송).

설악산악제전-산악인 추모행사.

통일염원제전-실향민의 밤, 통일염원 줄다리기.

설악예술축전-공연(가을콘서트·연극·무용단 초청공연·시립합창단공연·문학의 밤·국악민속단 초청공연·시민노래자랑·사물놀이·자매시초청공연).

전시(사진전·미술전·꽃꽂이전·우표전·공중전화카드전), 주부백일장.

해양문화제전-수산경진대회(범선노젓기·오징어할복경진·보망경진·사태미경진), 수산인의 밤(해상불꽃놀이·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사물놀이), 수산먹거리, 낚시대회.

향토민속축전-농악시연, 민속경기 한마당 잔치, 민속경기(투호·그네·씨



름 · 옷놀이 · 널뛰기 · 제기차기).

시범행사-전통무예, 궁도, 게이트볼, 중학교 축구경기.

거리문화축전-가장행렬, 폭죽놀이, 거리이벤트 (전통혼례 · 거리퀴즈), 거리공연(통기타 연주 · 마임 · 캐릭터 · 페러글라이딩), 거리조형물(오징어 등).

21

종 교

종교 그 어제와 오늘

기독교에서 무속신앙까지

속초시의 종교 그 어제와 오늘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는 말이 있다. 종교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창출 구성된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는 사회적 시각과는 달리 초월적 존재인 신(神)으로부터 영생과 안녕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소위 신적 기원으로서의 종교관도 있다.

모든 종교는 1) 믿을 대상(신神)과 2) 경전(經典)과 믿을 교리 3) 예배 의식을 가지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개개의 종교가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의 농경 민족 시대로부터 제천(祭天)과 경천(敬天)의 고유 종교가 토착되었으며, 삼국 시대에는 유불선(儒佛仙)의 3교가 들어왔으며 조선 왕조 말에는 기독교(基督教)가 전래되어 다종교 사회(多宗教社會)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말기에 사회적 혼란과 핍절을 배경으로 동학(東學)이 발흥한 것을 비롯하여 일제(日帝)와 해방과 분단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현실 부정과 내세 지향성은 수많은 사교 집단을 창출하는 등 심한 종

교적 질곡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속초의 종교 현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속초는 6·25전쟁 이후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과 생계를 찾는 어민들로 인구가 급증했고 1960년대 초에는 정부의 미개척지 개간 정책에 따라 많은 타도민들이 이주하여 온 관계로 속초시는 다양한 지방색과 종교적 혼재(混在)의 소용돌이를 겪게 된다.

속초는 어촌의 촌락에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에 무속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위에 설악 명산에 깃들인 대사찰(건봉사·신흥사·낙산사)의 영향으로 불교세가 타지역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타지역 주민들의 유입과 더불어 천주교 개신교가 전파되었고 현재는 10여 종파에 더 많은 교파의 종교 단체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1927년 속초 감리 교회의 창립으로 복음화

1. 기독교(基督教·개신교改新教)

속 초 지역에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도된 것은 1927년으로 미국 감리교 '쿠퍼' 선교사의 전도로 이영학 등이 신자가 되었고 그들의 연보와 '쿠퍼' 선교사의 도움으로 1927년 5월 17일, 초가 8칸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교회로 '속초감리교회'가 창립되면서 기독교의 효시가 된다.

현재 속초시 관내에는 7개 교파에 13개 교단 29개 교회가 건립되어 있다.

1) 감리교단(監理教團)

'요한 웨슬레'의 개혁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감리교단은 특히 분할 선교 지역으로 강원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속초 지역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설립하였다. 1927년 5월 17일 창립된 속초 감리 교회는 70년 역사를 가지면서 이 지역 기독교 발전에 큰 몫을 하여 왔다.

2) 장로교단(長老敎團)

속초 지역에는 1952년 10월 20일 '속초 감리 교회' 내 장로교인들이 교회 설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11월 9일 당시 속초읍 3구 475번지 신병삼 권사의 집에서 16명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속초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5개 교단 12개 교회가 건립되어 있다.

3) 성결교단(聖潔敎團)

중생(重生)·성결(聖潔)·신유(神癒)·재림(再臨)을 지향하는 성결교파에는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기성)와 예수교 대한 성결 교회(예성)의 2개의 교단이 있어 속초에는 일찍이 1960년도에 기성교단(基聖敎團)의 2개 교회가 창립되어(속초 성결 교회·속초 제일 교회) 교세를 확대시켜 왔다.

1986년 말에는 예성 성결교단의 성초 성결 교회가 개척되어 현재 성결교파에는 3개의 교회가 건립되어 있다.

4) 침례교단(浸禮敎團)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3개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중에서 '속초 침례 교회'는 1958년에 창립되어 속초 초기 기독교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오순절교단(五旬節敎團)

1976년에 설립된 순복음 속초 교회는 1953년 창립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하며, 1987년 개척된 순복음 속초 제일 교회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소위 여의도 순복음 교회 계열)에 소속 교단을 두고 있다.

6) 구세군교단(救世軍敎團)

1978년에 속초 구세군 영문(營門=교회敎會)이 창립되어 줄곧 유아원을 경

영해 오는 등 지역 사회 봉사에 힘을 쏟고 있다.

기독교 연합 단체 및 선교 단체

- 기드온 협회(성경 무료 배포)
- Y's man Club(YMCA 후원 · 지역 봉사)
-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교회 연합 · 지역 사회 복음화 · 봉사)
-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속초 지회(어린이 전도)
- 속초 YMCA(건전 규범 고취 · 사회 봉사 · 복음화)
- 속초시 장로 연합회(교회 연합 운동 · 복음화 · 사회 봉사 · 사회 정화)

신흥사가 가장 오랜 고찰

2. 불교(佛敎)

1) 대한 불교 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

속 초시 관내에 이 종단이 자리잡은 것은 고찰 신흥사(古刹新興寺) 연원으로 보아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의 자리에 있어왔기에 속초시가 발전되기 훨씬 전에는 양양군 도문면에 편성되어 있었고 당시 이 지역 인구의 10%에 가까운 승려가 신흥사에 거주한 것을 보더라도 그 영향 정도를 알 수 있다. (1887년경의 양양읍지에 의하면 당시 도문면 인구 588명 중에 승려가 48명 임을 기록하고 있다.)

신흥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제3교구 본사(本寺)로서 기원 652년 신라 진덕 여왕(眞德女王 6년 · 신라 제28대 여왕) 때 창건된 향성사(香城寺)가 전신으로 소실된 것을 후에 선정사(禪定寺)로 개명하여 중건하였으나 다시 소실된 것을 조선 왕조 인조 20년(1642)에 절을 중건하고 신흥사(神興寺)라 이름하였다.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서 25개의 절과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2) 대한 불교 천태종(天台宗)

속초시에는 천태종의 사찰이 하나로 따로 사찰의 이름을 두지 않고 '대한 불교 천태종 속초 지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대한 불교 총화종(總和宗)

속초에는 1970년에 한 비구니에 의해 총화종단의 백운암(白雲庵)이 건립되었으나 수해로 잃은 것을 1984년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4) 한국 일련 정종 불교회(日蓮正宗佛敎會)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60년 초이며, 속초에는 1971년 4월에 전파되었다.

5) 원불교(圓佛敎)

속초 지역에는 '원불교 속초 교당(圓佛敎束草敎堂)'으로 원불교가 전파되어 있다. 한일 합방 후(1916년)에 '소태산 대종사(少太山大宗師)' 박중빈(朴重彬)에 의해 시작된 원불교는 소의 경전(所依經典)과 일원상(一圓相)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생 종교로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도 도를 얻었으나 발심(發心)한 동기로부터 도를 얻은 경로를 돌이켜 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로 정하노라”고 말한 '소태산 대종사'의 현대화된 불교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3. 천주교(天主敎)

속 초 지역은 로마 교황청 산하의 서울 관구(管區) 춘천 교구에 속한다. 1953년 처음으로 천주 교회가 창립되었으며 현재 동명동 천주 교회가 그

것이다. 1967년에 교동 천주 교회가 건립되고, 설악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들과 관광 여행 중의 교인들을 위하여 1981년에 설악동 천주 교회가 창립되었고, 1985년에는 청호동과 조양동 교인들을 위한 경당(敬堂)을 건립하였고, 1994년 청호동 천주 교회로 승격되어 현재 4개 교회가 있다.

4. 위치 타워 성서 협회(여호와의 증인)

속 초에는 소수의 신도들이 모임을 시작하여 왔으나 1963년 7월에 정식으로 회중이 설립되었고, 1980년경에는 '조양 회중'이 설립되어 현재 2개의 교회가 있다.

5.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 리 나라에는 1904년에 전래되었고 속초 지역에는 1952년 가정 집회로 시작되었으며 1959년에 목조 단층 33평의 교회당을 중앙동 현재 위치에 준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곳의 속초 중앙 교회와 이 교회가 개척한 교동에 남부 교회가 세워져 2개의 교회가 있다.

6.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1 951년에 우리 나라로 전래되었고 속초에는 1985년에 교회가 세워져 많은 미국인 물론교 선교사들이 함께 전도하고 있다.

7.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속 초에는 1975년에 전파되어 현재 '속초 통일 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8. 대순 진리회 및 증산도

성 (誠)·경(敬)·신(信)의 삼법언(三法言)을 수도의 요체로 삼는 민족 종교이다. 믿음 대상인 '구천 상제(九天上帝)'가 인간 강증산(姜甌山)으로 강세(降世)하였다고 믿는데서 '증산도(甌山道)'라고도 불리우는 것이다. 증산도 도장을 가지고 있다.

무속신앙(巫俗信仰)

속 초는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무속이 흥했던 지역의 하나이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해난 사고의 위협에서 용신을 달래고 기복(祈福)하는 신앙 행위가 무당을 부르게 되고 자생하게 되었다.

1970년 무당과 그 관련인들이 사단 법인 '대한 승공 경신 연합회(大韓勝共敬神聯合會)'를 발족하여 전국에 약 10만의 회원을 조직화했을 때 속초 지역에서도 즉각적으로 그 지회가 결성되어 활동했던 것을 보면 속초 지역의 무속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연합회 최남욱 회장의 권고로 속초 지회를 결성하고 지회장은 최순천(여·1925년 출생 동명동 16/5)이었다. 회원수는 100인 정도로 활발했던 시기에는 150인까지 회원수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1년 서울 출신 주용호(朱龍虎)가 정도회(正道會)를 조직하여 일단의 무인들을 규합하다가 1976년 '한국 불교 반공 연합' 속초 지회로 개칭하면서 조직이 확대되어 회원이 200인에 달하였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1985년 주

용호가 작고하자 그 부인 권영숙(금호동 9/1 1935년 출생)이 지회장을 승계하였고 후에 내부의 갈등과 불화 등으로 회원수가 격감하였으며 현재는 제3대 회장 최태경이 맡아서 이끌고 있으며 12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1989년부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40-50인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회원 무속인들의 격감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경신 연합회가 재건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9년 말부터 하의호(河義鎬·1930년 출생, 동명동 16/6)를 중심으로 '대한 불교 경신 연합회(大韓佛教敬神聯合會)'가 강원도 지부의 권유로 속초 지회를 재건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수의 한국 불교 반공 연합회 속초 지회의 회원들이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신 연합회 속초 지회의 회원수는 1990년 7월 현재로 45인(남자 3명·여자 42명)이며 정식으로 재발족한 시기는 1990년 1월이다.

따라서 1990년 현재로 속초에는 약칭 '경신 연합회'와 '불교 반공 연합회'의 지회 형태로 무속인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이 두 조직에 가입된 무속인들은 약 100인에 가깝다. 무속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속초에서 무속업을 하는 무속인의 수는 200인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속인 1인당 단골을 평균 30인 정도로 추산할 때 속초의 무속 신앙자는 약 6,000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는 무교(無敎)로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무속 신앙자인 점과 많은 불교도들이 또한 무속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기복 행위를 유지한다고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무속인들의 생계 수준은 상위 30% 정도는 자기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전세·월세로 무속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실정이다.

22

체 육

내 고장 체육

속초 체육의 싹이 트다/속초 체육회의 탄생과 부흥

1917년 축구 경기로

속초 체육의 싹이 트다

도강 축구부가 그 뿌리

속 초에 현대적 운동 경기(체육)가 선보이게 된 것은 대포(大浦)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과 상천교 바로 건너편 물치리 청소년을 주축으로 강선(降仙)·상복리 청년들이 빈번한 축구 경기를 갖게 되어 우승기를 걸고 시합을 할 때부터인 1917년에 도강(道降)·도천면(道川面)·강선면(降仙面) 축구단으로 불리워진 것으로 시작하였고 연식 테니스는 수산업계의 젊은이들이 원산(元山)과 서울 등지로 소위 경기라는 데에 매력을 느끼고 백색의 긴 하의와 반바지·백색 운동화, 그리고 당시로는 비싼 라켓(뿔채)을 가지고 멋으로 대포 보통 학교 운동장에 나타나 라켓을 빌려줘 가면서 취미 운동으로 1923년에 대중에게 선을 보이었다.

이전에 지역별 경기로는 나무꾼들이 짱치기와 씨름, 쌍천을 중간에 두고 벌

인 석전(石戰)이 있었고 '도강 축구단'이 생겨 지역별로 남녀 응원군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속초 체육의 태동이 되어 자연 부락별로 줄다리기 선수 자신들이 상(賞·주로 주안酒案=술상)을 준비하여 육상·씨름·축구 등의 종목으로 산발적인 경기를 가졌다.

1927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북부 5군 대항(양양·평강·이천·김화)에 출전하는 선수가 선발되었으나 당시는 군청 소재지인 양양면민 중에 선수가 많았다. 속초항 개발과 1937년 속초로 면을 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젊은이들을 위한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축구·테니스·야구·육상·수영 경기 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저변에 크게 확대되어 연평균 6, 7회의 경기를 가져 타 종목보다 우세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축구가 지역세를 떨칠 때 육상·테니스도 저변이 확대되어 '양양군민 대회'에 속초 선수들이 전 종목에 걸쳐 석권하는 등 군청은 양양에 있었으나 속초면의 기세가 양양면의 기세를 압도하는 강세이어서 지역세의 다름이 강하였다. 지금은 전국 체전이나 도민 체전이 순회 개최되지만 그 당시 속초 선수들이 적진인 양양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므로 2, 3일 간에 걸쳐 거행되는 군민 체육 대회에는 많은 응원군과 양양에서의 숙박을 거부하고자 속초의 트럭을 동원하여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수송을 전담한 사실은 당시의 지역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무렵 영랑동 시장이 개설되어 5일 장으로 설 때 통천·고성·양양·강릉 등지에서 선수들을 초청하여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행사 치르기를 수년 간 연례로 계속하였으며, 이때 자전거 경기도 참가하였고 전통 민속 놀이이던 농악·별신굿·씨름·그네·남사당 사물 놀이·연극·서커스 등의 행사를 비롯하여 바다에 수표(水標)를 띄워 장거리 수영 대회·전마선 경주 대회 등도 개최하였다. 지금의 동명항 내에 있었던 '경쟁바위'를 왕복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이곳이 수영 연습장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고장 체육사에 필히 기록되어야 할 것은 축구가 당연히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오랜 전통의 대포 보통 학교 출신의 안세훈(安世勳) 선수는 강릉 농고를 거쳐 이곳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강원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첫 인물이 된다. 이 학교 출신의 서상원(徐相元)이 야구 보급에 전력한 사람으로 또한 꼽힌다.

광복을 맞은 속초에서는 1945년 10월 말께 체육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정주백(鄭周伯), 부회장은 김연수(金演洙), 이사 김석기(金錫基), 이면우(李勉雨),

김인배(金仁培), 전태훈(全泰勳), 신동화(申東和), 김정기(金正基) 등이 맡았다.

또한 육상에는 김인배(金仁培), 김정기(金正基), 이수희(李樹熙), 마라톤 김석조(金石祚), 연식 정구 고재남(高裁南), 씨름 신현식(申鉉植) 등이다.

마라톤의 김석조(金石祚)는 당시 속초 축항 사업소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나 연습에만 전념하여 1935, 40년대까지 강원도 대표 선수로 서울과 평양·함흥 등지의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며 강원도 대표 선수로는 축구의 안세훈(安世勳)과 함께 유일한 존재였다.

속초의 체육 침체 시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체육 행사가 통제되고 젊은이들에게 군대식으로 체육을 권장하는 관계로 군사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었다. 이 시기부터 광복 이후 이 고장이 공산 치하에 있을 때까지 체육에 관련된 행사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그 기간은 10여년 동안 계속 되었다.

우수한 선수 배출

속초 체육회의 탄생과 부흥

선수 육성책이 아쉬워

수 북과 함께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기 위하여 속초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고 휴전을 전후한 전세는 현 위치 방어의 일진일퇴(一進一退)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게 됨을 계기로 군의 부대별 축구 대회가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속초 지역 젊은 축구 동호인들, 박종삼(朴鍾三)·태명규(太明圭)·강복연(姜福淵)·김병순(金炳順)·윤철(尹哲)·허장길(許長吉) 등이 축구 단체를 조직하여 군의 사단·군단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1954년 김상근(金相根)을 회장,姜양모(姜洋模)를 부회장으로 하는 축구 단일 종목의 체육 단체가 조직되자 많은 체육인들이 나타나 각 종목의 경기 단체 창립과 이를 관장하는 체육회가 있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1954년 속초읍 체육회가 정식 발족하기에 이른다.

회장 백유봉(白惟鳳)·부회장 이섭봉(李燮鳳)·최근상(崔根相)·자전거 이섭봉·육상 백근종(白根鍾)·마장건(馬長乾)·강정선(康禎善)·축구 이종락(李鍾洛)·김기용(金器龍)·씨름 김신진(金辛鎭)·이영희(李永熙)·합

성호(咸成鎬) ■ 그네 유봉춘(柳逢春)·강용준(姜龍俊) ■ 탁구 주흥서(朱興瑞) ■ 태권도 박내천(朴乃千) ■ 권투 김철암(金鐵岩)·장창모(張昌帽)·배구 박봉희(朴鳳熙)·빙상 최근상(崔根相).

이러한 진용의 경기 단체별 활동이 각 종목별로 초청 경기를 개최하면서부터 체육 인구가 급격히 확대되어 1955년 영랑동 파출소 앞 조미 공장 일대를 임시 공설 운동장으로 하여 8·15광복 경축 속초읍민 종합 체육 대회에 인접 군민들의 체육 단체들도 참가하여 사실상 영북 지구 전체의 체육 대회를 방불케 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1957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체전에 속초 중학교 김봉만(金鳳萬)·장홍식 선수가 씨름 경기에 참가하였고, 복싱에 김기룡·마명환·최윤정, 탁구에 서진원·조인상·이춘수·강부업 등이 참가하였으며, 속초 고등학교 배구부는 1, 2회가 주축이 되어 손동욱·김종규·정연태·정연호·하만조·박만복·한영태·남상연 등이 참가, 강원도 대표 선수권을 획득하여 전국 체전에 출전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 속초 고등 학교 배구 선수단은 1962년까지 계속 강원도 대표로 전국 체전에 출전하여 4강(四強)에 진출하는 전통을 유지하였다.

광복 경축 체육 대회는 1962년 공설 운동장이 생기면서 다음해인 1963년에는 강원도 체육 대회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1966년부터 강원도 체육회에서는 지역 순회 종목별 도민 체육 대회를 지양하고 전국 체전 출전 선수를 엄정 선발하고자 하는 전 종목 종합 대회를 개최하여 도민 체전을 가지게 되었고 속초 지역은 전체 27개 종목 중 고등부 남자 육상·배구·탁구·태권도와 일반부 남자 육상·축구·배구·탁구·씨름·유도·태권도·복식 테니스·궁도·역도 등 극히 한정된 종목에만 출전하였으나 19개 시군에서 5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속초 시민이 체질에 있어 경기에 우수하고 체육회 각 경기 단체 임원들이 다른 곳에 비해 체육 정신이 진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육의 위상이 설악산 관광 개발 조성 및 설악제 행사 등이 활성화되면서, 8·15 광복절 기념 체육 대회가 중단되고 한편 경제적인 이유로 시 대표 선수 선발을 겸한 시민 체육 대회가 1967년부터 종종 중단되어 1979년에 겨우 6회 대회까지 치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후 각 경기단체별로 선수를 선발, 강원도체전 등 각종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23

항 구

속초항(束草港)과 수산업

속초항/속초의 수산업

수면적 1백 3십6만2천㎡의 양항

속초항(束草港)

1905년 연해 항로가 열려 선박의 기항지로

속 초시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속초항은 동경 128도 15분 1초, 북위 38도 12분 25초에 위치하며 비선장 동단으로부터 정남쪽으로 그어진 선내(청초호를 포함)를 항계로 해안선이 총 9.4km에 항내의 수면적 1,362,000㎡를 보유하고 있는 제1종항이다.

속초시는 고구려 때에 이문현(伊文縣)이라 불리웠고 신라 시대에는 수역(水域) 또는 영현(領縣)이라고 불렸다. 고려 현종 때에 이르러서 현령(縣令)을 두었으며 원종 6년에는 도호부(都護府)로 한바 있고 고종 8년에는 현령을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가 그 후 한때는 덕녕현(德寧縣) 감무(監務)로 격하시킨 때도 있었으며 고종(高宗) 23년에 이르러서는 군(郡)으로 개편되었다.

속초항은 당시 첨사(僉事)가 있었던 곳으로 양양군(襄陽郡)의 문호(門戶)로



되어 있었으며 근해에는 풍부한 수산 자원이 부존되고 있으므로 어민들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에는 우수한 어항으로 되어 있다.

속초항은 1905년에 연해 항로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연안 선박의 기항지로서 선박의 출입이 성행하였으나 한때는 이곳이 육상 교통 시설의 불편으로 인해 화물 수송 등의 지장이 있었으므로 속초 남방 약 4km 지점에 있는 대포항(大浦港)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속초시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청대산(靑大山)을 중심으로 남쪽은 도문면(道門面) 북쪽은 소천면이라고 부르다가 1912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이 두 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이라 개칭하였으며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다. 그 후 1937년 면사무소를 속초로 이전하면서 속초면이라고 했다.

속초항은 천연의 입지 조건이 양항(良港)으로 본격적인 항구로의 발전은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38선이 생겼고 이로써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삼팔선 이북에 속하게 되었다. 6·25전쟁과 국군의 북진에 따라 1951년 8월에 속초가 수복지가 되어 군정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속초읍으로 환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수복된 항만이기도 하다.

1955년 12월 2일 묵호지방해무청 속초출장소(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개소. 동년 12월 12일 개항했으며 1964년 7월 1일 지정항, 1966년 11월 8일 속초항 관할 축항 사무소 개소, 이후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8호로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해안 중심 어항으로서
속초의 수산업

1962년 4월 지정항으로 인정 받았다

수 산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의 채취, 번식, 가공하는 어업 양식 및 수산 제조업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수산업은 경제적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국민의 식용물로서 또한 수출 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나라의 어업은 전근대적인 면을 탈피치 못하였고 수산업의 계층 구조는 대규모적 자본제 어업과 영세 어업의 양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원시적 어업을 면치 못하였으나, 1966년에 이르러 어업의 근대화 계획에 의하여 원양 어업을 위시하여 어선 건조와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데 이르렀고 그리하여 무동력선에서 동력선으로 소형 어선에서 대형 어선으로 개조되어 갔으며 품질 개선과 냉동 가공 시설을 확대하여 어민 소득 향상은 물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초항은 1962년 4월 27일 지정항으로 인정되면서부터 동해안에서 중요한 어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어민수는 총 1,854호에 7,369명(1995년 현재)으로 주요수산물은 오징어, 명태, 꽂치, 멸치, 가리비 등으로 3년간 총 20,133톤에 37,873백만 원의 어획고를 내고 있다.



어선세력은 604척(동력 569척, 무동력 35척)에 18,471톤이며, 어업권은 17건에 726.70ha이다.

24

농업 · 상업

내 고장의 농업과 상업

속초의 농업/채소류 생산량/특용 작물/과실류 생산/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예상 작목/속초의 상업

도시와 농촌의 공존

속초의 농업(農業)

밭보다 논의 면적이 많다

속 초 지역은 영북 지역의 중심이며 서쪽으로 해발 1,708m의 설악산을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해안에 접한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속초시 지역은 시의 규모에 비하여 면적이 넓고 도심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2중적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 단계의 도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은 농업이 담당하게 되는데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서 속초의 농업은 더욱 장려되고 고도화 되어야 할 산업이다. 속초의 농지 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연변의 도문동 일대

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 지대를 지나는 청초천 연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속초시의 농지는 799ha로서 인구는 4,511명으로 강원도 전체 농업 인구 480,890명의 0.94%로 경지 면적에 비하여 농업 종사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지 면적의 전답(田畵) 비율을 보면 밭(田)은 전체 농경지의 35%에 해당하는 283ha이고 논(畓)은 65%인 523ha인데 전국의 평균 전답 비율 40:60이나 강원도 평균 전답 비율 59:41보다 월등하게 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미곡·서류·두류 잡곡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무우와 배추가 주종

채소류 생산량

속 초시 채소류 생산에 있어 주종은 배추와 무우로서 전체 생산량의 89%로서 해마다 생산량은 거의 일정한 수준이지만 재배 면적은 다소 기복이 심한 상태이다. 강원도 전체 무우·배추의 비중은 전체 채소 생산의 78%로서 상대적으로 속초시가 채소류 영농의 다각화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감소 추세

특용 작물

참깨 생산은 증가

속 초시의 특용 작물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 머지 않아 생산이 극소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참깨의 생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숭아와 배가 주종

과실류 생산

속 초 지역의 과실류 생산은 매년 증가되어 1989년 기준으로 500M/t에 달하여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과실은 복숭아와 배로서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시의 발면적이 전체 대비 0.36%인 것에 비하면 과실류 생산은 강원도 전체 생산의 3.6%가 되어 과수 농업은 평균 수준보다 10배 정도 높은 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낭콩에 대한 대체 작목의 권장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예상 작목

들깨를 비롯한 나물과 과실류

농 산물 수입 억제책에 따라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에 있어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 개방화 추세와 함께 실시되는 UR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농산물과 경쟁이 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농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속초 농촌 지도소가 여기에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대체 작목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계획한 영농 계획을 보면 먼저 UR로 인하여 경쟁이 극히 불리한 작목은 속초시의 경우 강낭콩이며 그 다음 열위 작목이 쌀, 옥수수, 참깨, 감자, 고추, 육우, 사슴 등이며 그 외의 작목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농산물로 되어 있다.

강낭콩에 대한 대체 작목은 들깨, 딸기, 두릅, 취나물, 더덕, 도라지, 당귀, 수박, 복숭아, 포도 등이다.

중앙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권 형성

속초의 상업

1990년 현대적인 상가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속 초의 상업은 중앙 시장(中央市場)이 중심지가 된다. 속초의 중심지가 영랑동에서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속초시 중심에 위치하게 된 지역의 큰 시장이다. 부지 면적은 1977년 당시 14,238㎡이었으며 점포수는 293개이었다.

그 외에도 속초 어항 가까이 위치한 청학 시장이 있다. 부지 면적 1,835㎡로 점포 75개소를 갖추었으며 갯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청호동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 후 1980년대 와서 중앙 시장의 부지 면적이 1/3이하로 감소되고 점포 수도 40개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청학 시장은 부지 면적 1,835㎡로 점포 75개소를 갖춘 시장 면모를 보았으며 1980년대에 와서는 중앙 시장의 부지 면적이 1/3이하로 감소되고 점포수도 40개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청학 시장은 부지가 늘어난 반면 점포수가 절반이 줄었으며 청호 시장은 부지 면적이 1/4로 줄면서 점포는 오히려 24개 점포가 늘어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상업 중심지의 심한 변동은 속초시가 안정된 상권을 갖지 못함 뿐만 아니라 어항 경기 변동의 민감한 반응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낙후 되었던 중앙 시장은 1990년도에 구상가 건물을 정비하여 500여개의 점포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시장 건물로 변모하였다.

속초 지역의 상업은 외지 관광객의 유입과 레저 관광 시설의 점차적 증가로 점차 활기를 찾게 되었으며 현재는 도매업 70여개소 사업체의 종업원이 264명, 소매업체가 1,637개처에 종업원 3,326명의 큰 상권을 형성하는 영북 지역의 제일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속초시의 도·소매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1988년 기준으로 57,316백만 원이고 강원도 전체는 1,487,777백만 원이 되어 전체 대비 3.9%에 달하지만 강원도 전체 인구 비례로 볼 때 4.3%에 미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초 관내 산업체와 종사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96년 기준)

분 류 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분 류 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6,453	24,883	숙박, 음식업	1,859	5,455
농업, 수렵, 임업	-	-	운수, 창고, 통신업	235	1,335
어업	-	-	금융, 보험업	86	1,721
광업	2	12	부동산, 임대사업	284	1,078
제조업	425	1,948	공공행정, 국방, 사회	54	2,136
전기, 가스, 수도사업	4	59	교육서비스업	213	1,431
건설업	145	1,120	보건, 사회복지	85	555
도소매업, 수리업	2,408	5,653	기타서비스	653	2,880

25 관 광

아! 설악산

설악산은 관광 자원의 보고/속초 지역의 관광과
그 특성/속초 지역의 관광

남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명산

설악산(雪嶽山)은 관광 자원의 보고(寶庫)

설악산 지역의 소나무는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

설악산(雪嶽山 · 1,708m)현재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과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태백 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강원도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단의 오대산 사이에 있는 명산이다. 철에 따라서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수려한 산세로 남한에서는 제일로 꼽히는 설악산은 수복과 함께 찾은 산이라 더욱 소중한 산악이다.

설악산은 속초시(29.6km²) · 인제군(221.0km²) · 고성군(9.0km²) · 양양군(95.0km²) 등 4개 시군에 걸쳐 총면적 354.6km²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복 전만 하더라도 금강산의 유명세와 교통이 불편한 탓으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으나 휴전 이후에 서서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산이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천연 보호 구역) 제171호로 지정되

있고 1970년에는 국립 공원(174km²)으로 지정되어 1971년 9월 설악산 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를 설립하여 공원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공원 구역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344km²로 범위를 넓혔고, 1977년과 78년에 걸쳐서는 354.6 km²로 다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다.

설악이란 산명에 대한 기록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설산(雪山)·설화산(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양양 군지에는 한계산(寒溪山), 동국 여지승람과 증보 문헌 비고에는,

“……極高峻 仲秋始雪

至夏而消 故名焉

극히 높고 험한 산으로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다음해 여름에

이르러야 비로서 녹는다”고 하였으며, 여류 시인 금원여사(錦園女史)가 쓴 호동 서락기(湖東西洛記)에 이르면,

“石白如雪 故名雪嶽

설악산 돌이 눈과 같이

회어서 설악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했는가 하면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 선생은 설악산은 본래 “솔피”이었으며, 이를 한자(漢字)로 옮겨 설악(雪嶽)이 되었다는 것으로 ‘솔피’의 ‘솔’은 ‘설’의 음역(音譯)이며, 신성·숭고·결백·생명을 뜻한다고 한다.

설악은 흔히 내설악(內雪嶽)과 외설악(外雪嶽)으로 나누어지며, 대청봉(大靑峰·1,708m 설악산의 최고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 산맥이자 태백 산맥이기도 한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을 외설악, 서쪽을 내설악이라 부른다. 외설악은 천불동 계곡을 끼고 양쪽에 창검과 같이 솟은 기암 절벽이 있어 남성적임에 비해 내설악은 백담·수렴·가야·백운·12선녀탕 등의 경관이 우아하고 여성적이다.

설악산의 빼어난 경치는 지질 기반이 화강암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화강암의 관입으로 인한 암질의 차이와 여기에서 비롯된 오랜 세월에 걸친 차별 침식으로 웅장하고 다채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설악은 하침 작용(下沈作用)으로 구혈·담소·폭포 등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며, 편마암의 부정합도 특이한 경관을 이루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악산은 수림이 울창하고 다양한 식물이 자라며 여기에 각종 동물이 서식하여 천혜의 생물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청봉 일대에는 고산 식물의 천국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조팝나무를 비롯하여 94과 392속 939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열목어·크낙새·까막딱다구리 등 90여 종의 조류와 표범·반달곰·사향노루·너구리 등 포유 동물 25종과 곤충류 360종, 에델바이스·금량화·금강초롱 등 20여 종의 희귀 식물을 포함하여 822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본부는 이처럼 다양하고 희귀한 설악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8월 12일 설악산을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의 하나로 지정했으며, 현재 설악동 소공원에는 1983년 4월에 건립한 세계 생물권 보존비가 세워져 있다.

설악산의 권금성과 울산암·천화대 능선 등은 못 산악인들의 암벽 훈련장으로 인기가 높으며 토왕성 폭포 등은 겨울철 빙벽 훈련장으로 애용되고 북주능·서북능·공룡능·용아능·백운능·길골·건폭골·잣은바위골·용소골·설악골 등은 국내 산악 단체와 훈련대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원도는 설악산을 국내 제일의 국립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그 기대가 크다. 설악산은 관광적 매력 외에도 동해와 강릉과의 인접으로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나라 일급 관광지로 꼽힌다.

산과 바다 호수, 그리고 온천이 어우러지는

속초 지역의 관광과 그 특성

비수기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과제

영 동 지방의 종산(宗山)인 설악의 한 지맥이 동으로 뻗쳐 미륵봉·금강굴과 천후산(일명 울산바위)·달마봉을 이루었고 여기에서 다시 양맥으로 갈라져 하나의 맥은 속초시의 중앙부를 거쳐 주봉산·청대산·대포 성지를 이루어 동해에 연하였으며, 또 다른 맥은 북으로 뻗치어 영금정과 송도를 이루었다. 그 나머지 맥은 다시 해저로 뻗치어 해안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다시 두각을 드러내 이를 '용초도'라고 한다.

하천으로는 설악을 기원으로 하여 동해로 흐르는 16km의 쌍천이 양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이 유역을 중심으로 도문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청초호에 이르는 12km의 소야천이 속초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으로 된 속초는 산자수명하고 생활 환경이 좋은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다. 갖가지 형상의 기암 괴석과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설악산의 일부가 1982년 5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설정될 정도로 자연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설악산은 속초시 관광의 제일로 꼽힌다. 푸른 동해와 여기에 펼쳐지는 황금빛 모래톱과 청초호와 영랑호, 척산 온천 등 바다와 산과 호수 그리고 온천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는 실로 한국의 으뜸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 관광 자원과 함께 신홍사를 비롯해서 주변의 불교 문화 유산들이 설악산의 가치를 한결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계절성에서 오는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속초 관광의 숙제이다. 피서철·단풍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겨울철이면 대폭 줄어들어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악 관광지·해안 관광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취미 활동도 변화되고 있듯이 관광객들의 관광 욕구 또한 변화를 가져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 즉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속초 지역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어촌 박물관과 척산 온천 지구에 대대적인 인공 관광 단지를 형성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좀 더 새로운 모습의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도시로서의 발돋움

속초 지역의 관광

설악산 국립 공원에 힘입어

속 초는 예로부터 항포구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고장으로 어업이 그 주종을 이루어 왔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여 왔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바다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이 퇴조를 보이고 때를 맞추어 관광 산업의 발달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 지역은 점차 관광 도시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설악산이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고 설악동에 대규모 국제 관광 단지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부터 산과 바다와 호수가 하나로 이어지는 조화를 이룬 자연환경과 안보 관광지로서의 통일 전망대 주위에 산재하는 불교 문화 유적들이 연계되면서 수산 관광 도시에서 커다란 광역 관광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 관광 도시에서 관광 수산 도시로 탈바꿈이라고 할 것이다. 간단한 일지를 통해 그 변모를 보면

- 1960년 1월 1일
설악산 관광 호텔 개관
- 1963년 1월 1일
설악산 관광 호텔, 국제 관광 공사에서 인수
- 1965년 11월 5일
설악산이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 171호로 지정됨
- 1965년 11월 26일
설악산 관광 호텔 민영화

- 19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 개최
- 1969년 12월 15일
설악 관광(주) 설립
- 1970년 3월 24일
설악산, 국립 공원(354.6km²)으로 지정됨
- 1971년 8월 1일
설악산, 케이블 카(cable car) 운행 개시
- 1973년 공원 보호 구역을 고시
- 1976~1978년에 걸쳐 설악산 구단지 내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소공원화하고 A·B·C지구로 하는 신흥 관광 단지를 조성.
- 1978년 4월 9일
뉴 설악 관광 호텔 개관
- 1978년 5월 12일
(주) 동방 원양 개발 자매 회사, 동방 호산 개발(주)이 발족되어 호수 공원으로 영랑호 개발
- 1980년 4월 20일
설악 파크 호텔 개관
- 1981년 4월 8일
한국 콘도미니엄 개관
- 1982년 2월 1일
명성 콘도미니엄(현 한화리조트) 설립
- 1982년 3월 19일
교원 공제회에서 설악 유스호스텔 개관
- 1985년 4월 19일
척산 온천 휴양촌 준공, 5월 5일부터 개관
- 1990년 7월 20일
코레스코 콘도미니엄 개관
- 1990년 9월 15일
속초·관광 호텔 개관
- 1990년 10월 20일

설악 현대훼밀리타운 개관 등이다.

현재의 숙박 시설을 보면 호텔 6개(460실)에 920명, 콘도 10개(3,287실)에 16,435명, 여관 177개(5,053실)에 10,106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 고장 향토 기업

속초항과 해상 관광 유람선

1996년 6월부터 운항

속 초항에는 해상관광 유람선 2척이 운항 되고 있다.

경주호(105톤)와 태평양호(29톤)로 속초항에서 낙산(1시간 20분소요)과 봉포-송지호(2시간 소요)를 왕복, '96년도에 8만7천여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였다.



237톤, 386인승

속초-울릉도 여객선 운항

카타마란 호 편도 4시간 소요 카페리(car ferry)

속 초-울릉도 간 여객선이 주 2회 운항, 관광객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다.
(주) 대아고속해운 소속 386인승 카타마란호(237톤)가 운항, 편도 운항 4시간이다.



26

호수 · 온천 · 섬과 명소

산수 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청초호/영랑호/보광사/척산 온천/영금정/갯배/새섬

일제 강점기 말에 항구로 개발하여 이용

청초호(靑草湖 · 진성호震成湖 · 논피호 · 쌍성호雙成湖)

금호동 · 청학동 · 청호동의 동 이름은 이와 관련

중 양동 · 금호동 · 청학동 · 교동 · 조양동 · 청호동으로 둘러싸인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瀉湖)이며 속초 시가지는 이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속초와 청초호(靑草湖)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草’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두 지명은 서로 관계가 있는 듯하며, 현재의 금호동 · 청학동 · 청호동의 이름은 이 호수의 이름과 관련하여 지어진 것이 틀림없다.

동쪽이 바다와 트여 호수 북쪽의 속초항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청초호를 큰 항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좁은 입구를 파내고 옆에 축대를 쌓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속초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호수가 크게 오염되어 차라리 매립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



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 대신 청초호가 관동 8경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의 하나로 꼽혔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쌍성호(雙成湖) 부(府) 북쪽 40리 간성군(杆城郡)과의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리에 이른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고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쌍성호는 청초호의 다른 이름이다.

민간측 기록인 '택리지'·'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읍지(邑誌)' 등 관청측 기록에는 모두 '쌍성호'로 기록되었음이 주목된다. 청초호의 또 다른 이름은 진성호(震成湖)·논피가 있다. 논피호는 논산(論山)의 순수 우리말 이름이고, 논피호는 논피라는 마을의 앞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다.

또한 조선 왕조 시대의 '읍지'에는 용경(龍耕)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청초호가 한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마치 논두렁 같이 되는데, 호수 밑에 사는 용이 갈아 놓은 것이라고 하여 용경, 또는 용갈이라고 하였다.

영랑호에는 암룡, 청초호에는 숫용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남쪽을 향해 갈아 놓았을 때는 풍년이 들고,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여 이것으로 다음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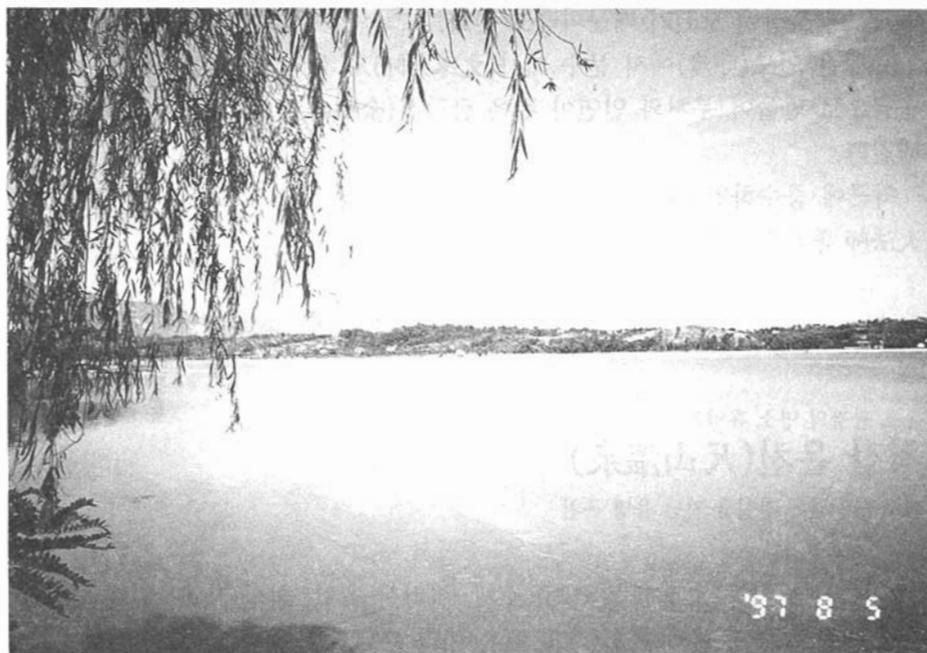
화랑도인 영랑이 즐겼다는 데서 유래

영랑호(永郎湖)

큰 석호로 바다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속 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瀉湖·砂嘴·砂洲 등에 의해 바다의 일부가 바깥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주위가 약 8km이며 영랑동·동명동·장사동으로 둘러 싸여 있고 경관이 빼어나 옛부터 아름다운 호수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신라시대 화랑(花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永郎湖)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1982년 속초시에서 발행한 '설악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시대 화랑이었던 영랑(永郎)이 동료인 술랑(述郎)·안상(安祥)·남석(南石) 등과 금강산(金剛山)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에서 3일 동안 놀고 난 후 각각 헤어져 신라의 서울 금성(金城)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영랑만은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즐기고, 고기를 낚고, 풍류의 멋을 다하였다. 그런 후부터 사람들이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신라본기(新羅本記) 진흥왕 37년과 권 47 열전(列傳) 김흠운(金歆運)전에 신라 시대 화랑도(花郎徒)들의 수행 방법으로 “산수(山水)를 찾아 다니며 유람하였는 데 먼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전국 산천을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기록된 화랑도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금강산과 동해안이 그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몇 안되는 화랑 가운데 영랑이라는 화랑이 삼국유사 권 제3 백률사(柏栗寺)에 기록되어 있다.

보광사(普光寺 · 동명동東明洞 소재)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사찰로서 1937년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세웠으며 보광사라고 한 것은 53불(佛) 중 제1불인 보광불(普光佛)을 이 사찰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53불은 인도(印度)에서 문수 대사(文殊大師)가 삼억가(三億家)의 금을 모아 순금으로 만들어 부처와 인연이 깊은 금강산(金剛山)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전해진다.

최근에 중수하였으며 사찰 입구 암벽에 ‘정화담 대법사 보광사 창건(鄭華潭 大法師 普光寺 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속초 관광의 명소 휴양촌

척산 온천(尺山溫泉)

예로부터 많은 전설을 지닌 유명 온천

속초시 노학동(束草市 蘆鶴洞) 소재. 설악산 초입, 척산(尺山) 밑에 있는 온천으로 일명 설악 온천(雪嶽溫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 예로부터 더운 물이 샘솟는 웅달샘이 있었는데 전설과 지세로 보아 여자의 손길로 수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던 중 1973년에 현재 '척산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희에 의해 발견,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척산 온천은 불소와 방사선 물질인 라듐이 많이 섞여 있는 알카리성 단순천으로 온천 온도가 섭씨 40~52도이고 피부병과 신경통, 류머티증, 위장병, 눈병, 치통, 근육통, 원자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척산이라는 지명은 척산의 그림자를 재면서 농사의 척도를 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동 여지도에도 표기된

영금정(靈琴亭)

오늘날은 찻집들 만이 즐비하다

속 초시 동명동(束草市 東明洞)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있는 넓은 암반(岩盤)을 영금정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이곳이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 육지와 잇닿는 돌산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말에 속초항(束草港) 개발 때 이 돌산을 파괴하여 돌을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돌산은 없으며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이곳을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과거에 영금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유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영금정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데 돌산 위로 오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내려와 목욕을 하면서 신비한 곡조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도 하였다.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비선대로 표기되어 있고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비선대는 부(府) 북쪽 50리 쌍성호(雙成湖·지금의 청초호靑草湖)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老松)이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는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워지면 건널 수 없다.

영금정의 또 다른 이름으로 화험정(火驗亭)이 있다.

오늘날은 횃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북적거리는 관광지로 석벽과 등대와 바다를 끼고 도는 우회로까지 아우러지는 명소가 되었다.



속초 중앙동과 청호동을 잇는

갯배(도선渡船)

청호동과 함께 실향민의 아픔이 서려

속 초시 중앙동과 청호동을 잇는 '나룻배'를 '갯배'라고 부르며 도선장을 '갯배머리'라고 한다. 이 '갯배'는 긴 철선 두 가닥을 매어 놓고 철선 하나에 각각 배를 1대씩 고정시켜 갈구리를 철선에 걸어 당기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다.

'갯배'는 승선한 사람들이 갈구리 철선을 당기어야 이동한다. 이 고장이 수복된 이후로 고성군 봉수리(현재 북한)에서 남하한 조막손이라고 하는 김씨 노

인이 20명쯤 탈 수 있는 '갯배'를 만들어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잇는 교통 수단으로 배삯을 받았던 것이 청호동 '갯배'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당시의 읍사무소가 김씨 노인으로부터 인수하여 5구(현재 청호동) 사무소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는 속초시를 거쳐서 속초시 재향 군인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인과 사진 작가들에 의해 하나의 명물로 '아바이 마을'이라 불리워지는 청호동과 함께 분단의 아픔이 서린 '갯배'이다.



속초의 외로운 섬 하나

새섬(조도鳥島)

'용초도'라고도 불린다

청 호동(靑湖洞) 앞 바다에 있는 속초의 유일한 섬으로 우리말로는 '새섬'으로 불리우며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조도(鳥島)라고 한다.

이용(李龍) 전 강원도지사(江原道知事)가 지사 시절에 이 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초草'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고 이름을 달아 '용초도'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현재 이 정자는 헐리고 조그만 등대가 서 있을 뿐이다.





최근에 중수한 '보광사' (영랑호 동남쪽)



'정화담 대법사 보광사 창건' 이 음각된 암벽. 관리 소홀로 많이 마모되어 있다.

27

명물·명소

설악의 진경이 어디에 있을까

설악산 케이블카/권금성 안락암의 무학송/학무정/
권금성/토왕성

권금성과 소공원 사이 1,100m

설악산 케이블카(cable car)

1971년 7월 개통

우리 나라 제1의 산줄기 백두 대간(白頭大幹)에 우뚝 솟은 설악산(1,708m) 외설악(外雪嶽)의 명물 케이블카, 속초시 설악동 남동쪽에 있는 암벽 해발 660m 높이의 권금성(權金城)과 소공원 사이 1,100m의 길이를 26도 경사로 오르내리는 가공(架空)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려서 운행되는 로프웨이(rope way) 가공 삭도(架空索道)의 케이블카로 설악산 등산길에서 가장 편안한 등정길로 이곳에서는 멀리 동해와 설악동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암벽을 싸고도는 산악미의 진경을 만끽하며 권금성에 오르면, 안락암(安樂庵)과 장대한 기품의 무학송(舞鶴松·1,300여 년의 수령樹齡)이 타는 듯 굽는 절벽에서 등산객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 케이블카는 '71년 7월 개통되어 설악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빠질 수 없는



명물이다.

1,300년 긴 세월 설악산을 지켜 온 노송

권금성 안락암의 무학송(舞鶴松)

술아 삼긴 술아 네 어이 삼겼는가

설악산 권금성(權金城·해발 860m)에는 안락암(安樂庵)이라는 암자가 있다. 이 암자의 동쪽 암벽에 무학송(舞鶴松)이라고 불리는 소나무가 고고한(孤高) 자태(姿態)를 자랑한다. 한 폭의 산수도를 보는 듯한 소나무의 상(像)이다. 이 소나무 앞에 서면 절로 생각나는 시조가 있다.

술아 삼긴 술아 네 어이 삼겼는가 지시간반을 어디 두고 예와 섰난 진실로 울
올한 만취를 알 이 없어 하노라.

—낭원군(郎原君) 조선 왕조 시대의 가객(歌客)—

“여기 천여 년 이상 풍상 설우(風霜雪雨)를 견디며 고고한 기품으로 해발 600m인 높고 험한 기암 절벽 암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노송(老松)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학(鶴)의 형상과 같다 하여 그 이름이 무학송(舞鶴松)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소토왕성(小土旺城) 계곡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청청함은 한 폭의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령(樹齡)은 약 1,300년 정도로 추정되며 수고(樹高) 11m·흉고(胸高) 직경 0.7m로 암반을 싸고 옆으로 뻗은 뿌리에서는 긴 세월 동안 자라온 강인한 생

명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이 설악의 귀중한 자연 자원을 알뜰히 보살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립 공원 관리공단 설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세운 무학송에 대한 안내판의 글이다.

술 숲을 스치며 부는 바람의

학무정(鶴舞亭)

오윤환 매곡 처사의 숨결일까

속 초시 도문동(東草市 道門洞·상도문1리) 쌍천(雙川)가 송림 가운데 위치한 정자로 이 마을 출신 매곡 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이 1933년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들 육모정이라 부른다.

이 정자 6면 중 4면에 정자의 명칭인 현판이 걸려 있는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되어 있다.

정자 안쪽으로는 한시(漢詩)의 현판이 13개나 걸려있고 천정 중앙에는 용(龍)자가 있다. 6면 모두에 분합문(分閥門)을 단 흔적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없다.

오윤환은 조선 왕조 고종 9년(1872) 도문동에서 태어났다. 한학을 전공하였으며 울곡(栗谷)을 가장 숭배하였다.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여 학문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벼슬하기를 꺼리고 고향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만심혈을 기울이었다.

학문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날마다 아침이면 문안을 저녁이면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 목욕을 한 뒤 의관을 단정히 하고 조상의 위패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후 하루 종일 공부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평생을 두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소를 찾았다.

3·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무수한 매를 맞았고 일제의 삭발령(削髮令)과 창씨 개명(創氏改名)에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다. 쌍천가 푸른 송림 속에서 친척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지은 이 정자 학무정에서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여름철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들르노라면 선생의 높은 뜻을 느낄 수 있으리라.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鶴舞亭記念碑)와 1955년에 세운 충효 박지의 비(忠孝朴志誼)가 위치한다.

권씨 김씨 일가의 피난처

권금성(權金城)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

설 악산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로 지금도 몇 군데 돌로 축성한 흔적이 완연히 남아 있다. 현재는 성이 있었던 돌산 일대를 권금성이라고 부르며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기록인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권금성 북쪽 성벽

권금성은 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으로 둘레는 1,112척(尺)이고 높이는 4척이었으나 지금은 반쯤이 남았을 뿐으로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로는 예전에 권씨(權氏)와 김씨(金氏)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인하여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이 성은 늦어도 고려 시대 몽고 침입 이전에 축조된 성이다.

실제로 고려사(高麗史)·고려사 절요(高麗史節要)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몽고는 동해안까지 쳐들어와 고종 40년(1253) 10월 오늘날의 양양, 양주(襄州)를 함락시킨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낙산사 기록대로 이 고장에서는 설악산에 있는 산성(山城)에 웅거하여 항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성은 권금성일 가능성이 크다. 혹은 고종 40년(1253)에 양주성(襄州城)이 함락되자 계속되는 몽고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설악산에 권금성을 새로 축성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튼 험준한 암벽에 의지하여 쌓은 산성이므로 유사시에 피난처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영호(鄭永鎬) 교수는 권금성은 군사적인 성이 아니라 사찰 방어 형태의 성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것은 권금성의 유일한 통로가 칠성봉(七

星峰)죽으로 나 있어 진전사(陳田寺)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권금성에서 출토되는 기와류의 형태와 연대가 진전사지(陳田寺址)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조선 왕조 때 양양군수 이덕원(李德元)과 산적 괴수 길길수(吉吉洙)의 사연을 새긴 비석이 있었다는 데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흔적조차 없는 토왕성

토왕성(土旺城)

오행설에 의해 붙여진 상상의 성일 수도

설 악산 토왕성(土旺城) 폭포 부근에 있었던 성(城). 조선 왕조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토왕성(土旺城)은 부(府) 북쪽 50리 지점인 설악산의 동쪽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로 옛날에 토성(土性)을 가진 어느 임금님이 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이곳에는 폭포가 있어 까마득하게 날듯이 떨어진다.

그 후에도 조선 왕조 후기에 편찬된 거의 모든 읍지(邑誌)에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성의 흔적이 없어 기록들이 의심되기도 한다.

토왕성의 유래에 대하여는 다른 설명도 있다. 토왕성이란 토왕이라는 이름의 성이 있어서 토왕성이 아니라 토기(土氣)가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 괴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행설(五行說)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이다. 즉 토왕성폭포 부근은 토기가 왕성한 까닭으로 기암 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으므로 토왕성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실로 석가봉·문수봉·보현봉·노적봉·취적봉·문필봉 등이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런 이름이 붙을 만하다.

28

탑과 비(塔·碑)

그 높은 뜻을 새기었나니

유물재비/관찰사 선정비/충효 박지의 각과 비
설악산 횡단로 개통 기념비/학무정 기념비
삼연 김창흡선생 추념비/순국 5용사의 비
박상희 초대읍장 송덕비/수복기념탑
자유용사의 비/설악산 지구 전적비/충혼탑
통천군 순국 동지 충혼비/제1군단 전적비
자연 보호헌장비/유정충 선장 동상
세계잼버리대회기념탑/시민헌장탑/해경충혼탑

학자이자 효자로 이름난 선비

유물재비(俞勿齋碑)

비문 예조 판서, 글씨 강원도 관찰사

속 초시 대포동(東草市大浦洞·내물치리<內勿淄里>) 일출봉 헛집 뒤 철길
옆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물재 유선생 유허비(勿齋俞先生遺墟
碑)이다. 조선 왕조 후기에 이 부근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덕말에 거주했던 물
재 유희일(勿齋俞晦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으로 선생은 학자이



자 효자로 이름이 높아 그의 사후(死後) 이 고장의 유림(儒林)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재 속초시 대포동(내물치리) 마을 한가운데 향현사(鄉賢祠)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으나 그 후 사당이 퇴락되자 그 자리에 지금의 유허비를 세웠고 부근에 새마을이 조성되게 되자 현재 위치로 옮겼다. 비문은 당시 예조판서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 연대 : 1748년
- 규모 : 높이 194.5cm
비신(碑身) 138.5cm
폭 60cm 두께 20cm

어느 시대, 누구의 선정비인가

관찰사 선정비(觀察使善政碑)

그 풍진 세월에 비마저 땅에 묻히고

속 초시 조양동(束草市朝陽洞·부월리扶月里) 서쪽 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세워진 관찰사의 선정비(觀察使善政碑)로 글자가 많이 마모되고 또 일부는 땅 속에 묻혔으므로 현재는 윗 부분에 새겨진 관찰사만이 판독될 뿐으로 정확한 연대와 누구의 선정비인지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수(螭首)가 비신(碑身)과 한 돌로 되어 있고 현재 뒷면 5, 6군데가 파손되어 있다. 원래는 현재 위치가 아니고 지금 위치에서 동북쪽 십여 미터 지점에 있었으나 지금으로



부터 십여 년 전에 선정비 자리에 주춧돌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기었다.

- 높이 153cm • 지표 노출된 비신의 높이 약 1m • 폭 58cm • 두께 22cm
- 이수의 높이 53cm • 폭 70cm • 두께 32cm

고종에게까지 알려진 충효

충효 박지의 비각과 비

가선 대부, 동자증추부사 추서

박지의(朴志誼) 효자 비각(孝子碑閣)은 속초시 도문동(東草市道門洞·상도문리上道門里) 숙개골에 위치하고 있다. 박지의는 강릉 박씨(江陵朴氏)로 조선 왕조 후기에 이 고장의 대표적인 효자로 칭송되고 있다.

조선 왕조 정조 23년(서기 1799)에 태어났으며 26세 때인 순조 24년(1824)에는 아버지 박동화(朴東華)가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수혈시켜 소생케 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7일 아버지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시묘(侍墓)살이를 하는 등 효성이 지극한 효자로 알려지고 있다.

51세가 되던 해인 헌종 15년(1849) 6월 6일 헌종이 승하하자 마을 앞의



박지의 효자각



박지의 효자비

쌍천 갯가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현재 학무정鶴舞亭이 있는 곳)을 골라 제단을 쌓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서울을 향해 곡하며 애절하였다.

이 충효가 유림들에 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게 알려져 마침내 그가 타계한 지 33년이 지난 고종 30년(1893) 12월에 정려(旌閼)의 명이 내려 효자 비각을 망곡(望哭)의 터 옆에 세웠다. 아울러 나라에서는 그에게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라는 관직을 추서했다. 그러나 홍수로 비각이 유실되자 1937년 비각을 다시 그의 묘가 있는 위치로 옮겨 세웠고, 1984년 봄에 속초 시장이 비각의 단청을 새롭게 하고 주변을 정화했다.

또한 비각이 있었던 도문동(상도문1리) 쌍천가 학무정 옆에는 1955년에 후손들이 비(碑)를 세워 오늘까지도 그의 충효(忠孝)를 깊이 새기고 있다.

강원도 지사에 의해 시공

설악산 횡단로 개통 기념비

설악동에서 비선대까지의 횡단로

- 1 968년 설악산 횡단 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세운 비. 설악산 비선대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에 설악산 횡단 도로는 현재의 설악동에서

비선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하는 것 같다. 비석의 높이는 140cm · 폭 80~85cm 정도 두께는 10~24cm 정도이다.

앞면에는 “설악산 횡단 도로 기념비”로 뒷면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1968년 박경원 강원도 지사에 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청 속초 시청 · 산악 회장 이기섭 · 관광 협회장 이달영 · 시공자 김영근 1968년 10월 9일 속초 시장 이건웅.”

이 고장이 낳은 선비 매곡 처사의
학무정 기념비(鶴舞亭紀念碑)
도문동 상도문리 사리치

속 초시 도문동(상도문1리)에 있는 학무정(鶴舞亭)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를 건립한 이 고장의 학자 오윤환(吳潤煥) 매곡 처사(梅谷處士)의 후손 오수현(吳秀鉉)이 1971년에 세웠으며 학무정 바로 옆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 성리학의 대학자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三淵金昌翕先生追念碑)
비룡 충담 · 소야 팔경 등 그의 작품을 새겼다

김 창흡(金昌翕 1653~1722 조선 왕조 시대의 대학자로서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며 이단상(李端相)의 문인. 현종 14년(1673)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숙종 10년(1684)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 수



항(壽恒)이 진도(珍島)의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자, 형 창집(昌集)·창협(昌協)과 함께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경종 1년(1721) 집의(執義), 다음 해 여러 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으며 성리학(性理學)에 뛰어나 형 창협과 함께 이이(李珣) 이후의 대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경종 2년(1722)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유배된 형 창집이 사사당하자 지병이 악화되어 그 해 죽었다.

이러한 당쟁 풍파를 멀리하여 내설악(內雪嶽)에 들어 설악의 물소리·솔바람으로 번거로운 세상사를 씻으면서도 설악의 웅자와 동해의 창파를 벗삼아 속초의 선비들과 어울려 시회(詩會)를 가지며 술과 노래로 풍진 세상을 잊기도 했다.

“산천은 의구(依舊)한데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는 길재(吉再)의 시구(詩句)가 절로 떠오르는 그 정이 그리워 그가 읊은 비폭 층담(飛瀑層潭)과 소야 팔경(所野八景)을 새겨 세웠다. 이 비는 속초시 노학동(蘆鶴洞) 사무소앞 갖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2년 속초시의 도움으로 속초 문화원이 건립하였다. 이 곳을 소야 평야(所野平野)라고 한다.

1961년 8월 15일 건립

순국 5용사비(殉國五勇士碑)

김덕범·지창하·이기구·김병선·김화수

속 초시 동명동 보광사(束草市東明洞普光寺) 뒷편 언덕 오용사(五勇士)의 묘 옆에 있었으나 5용사 묘가 없어지면서 비도 없어졌다. 순국 5용사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김덕범(金德範·함경 남도)·지창하(池昌河·함경 북도)·이기구(李基九·함경 남도)·김병선(金炳善·평안 남도)·김화수(金化壽·평안 남도) 등이었다. 5용사는 6·25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

년 10월 22일 태백 산맥에 근거를 두고 속초 지역의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던 북한 패잔병 출신 공비들과 영랑호에서 교전하다 전사한 용사들이다.

속초 지역민들은 영랑호 동남쪽 보광사 뒷편에 5용사의 유해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 오고 있었으나 1981년 4월 5일 유골을 화장하여 영령만을 보광사에 봉안하였으며 1961년 8월 15일 강원일보사 속초 지사에서 순국 5용사비의 건립을 추진하여 재향 군인회 속초 지회 서재홍(徐在鴻) 전 회장이 건립비를 부담함으로써 이들의 높은 순국의 얼을 더욱 빛나게 했다.

비석의 규모는 비석 기단 높이는 39cm, 비석 높이는 75cm, 경내 면적은 66.116㎡(20평)이다.

속초항 개발의 선구자

박상희 초대 속초읍장 송덕비(頌德碑)

1992년 설악산 진입로 입구에 새롭게 세워졌다

일 제 강점기인 1942년 10월 1일 조선 총독부 부령(府令 제104호)으로 속초면에서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도천면 면장을 역임한 박상희(朴祥喜) 전 면장을 속초읍 초대 읍장(束草邑初代邑長)으로 추대하였다.

박상희 초대 읍장은 1890년 속초시 장사동(束草市章沙洞·장천리章川里)에서 태어나 일찍이 한학(漢學)을 공부하였으며 청년기에는 도문동(道門洞·중도문리中道門里)으로 옮겨 이석범(李錫範)이 세운 쌍천 서숙(雙川書塾·글방)에서 신문학(新文學)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3·1운동에도 참여하였고 그 후에는 강원도 평의원(評議員)을 지냈으며 1930년 속초 청초호(束草靑草湖)를 축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속초가 커져 1937년에는 도천면(道川面)의 소재지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따라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미시령 도로 개설에도 크게 공헌해 당시 주민들에게 큰 인물이란 칭송을 받았다. 1948년



향년 59세로 별세하였다.

박상희 초대 읍장의 송덕비는 처음에는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동명동 방파제 위로 옮겨지고 다시 수복탑 옆으로 옮기었던 것을 1992년 8월 15일 속초 문화원과 속초시 그리고 후손이 함께하여 새로운 송덕비를 속초시의 관문인 설악산 진입로 입구에 세웠다.

망향의 한이 서린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

1954년 5월 10일 건립, 1983년 11월 17일 복원

속 초시 동명동(東草市東明洞)에 위치한 이 탑은 속초가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수복된 지역임을 말하는 유일한 상징물이다. 이 탑이 흔히들 수복탑이라고 부르는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이다. 1954년 3월 당시의 읍장이었던 김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 박상선(朴相善) 소장,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朴成柱) 등이 수복을 기념하고 피난민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제1군단 민사처 전형운(全亨胤) 소령을 통해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장군의 승낙을 얻어 피난민의 회사금과 속초읍 부담금 600만원, 제1군단의 차량 지원 등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탑의 설계는 이형찬(李亨贊),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 조각은 박칠성(朴七星),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이라는 제호는 전형운(全亨胤) 제1군단 민사처 보좌관(육군 소령), 모자상에 부치는 모자상부(母子像賦)의 글은 장호강(張虎崗) 시인이 맡았다.

그러나 아깝게도 1983년 4월 27일 새벽 몰아친 강풍으로 모자상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 탑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는 시민들의 성화 독촉(星火督促)으로 1983년 5월 초순에 범시민적인 수복 기념탑 복원 건립 위원회가 발족되어 시민 성금 4천여 만 원과 시비(市費) 1천여 만 원으로 수복탑을 재건립하여 그 해 1983년 11월 17일 기념비적인 제막식을 가져 오늘에 이른다.

원래의 모자상을 조각하였던 박칠성 조각가의 담당으로 복원된 이 탑은 좌대폭 4.6m 탑의 높이 7m 모자상 높이 2.55m, 탑의 전체 높이는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이 높다. 탑신은 상하로 구분하여, 위의 탑신에는 4면 모두 수복 기념탑(收復紀念塔)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 휘호는 원형에서 그대로 옮긴 전형운 소령(서예가)의 작품이다. 아래층 탑신 동쪽면에는 수복 기념탑 복원기(復元記), 서쪽면에는 장호강 시인이 새로 지은 모자상부, 남쪽면에는 당시의 동우 전문 대학 한상갑(韓相甲) 학장이 쓴 민족 통일(民族統一)이란 휘호, 북쪽면에는 청동으로 조각한 민·경·군(民警軍)의 입체 복진상을 새겼다.

설악의 땅에 이름을 물었거니

이름 모를 자유 용사의 무명자유용사비(無名自由勇士碑)

영평의 탑으로 그대들을 기억하리라

속 초시 설악동 소공원(束草市雪嶽洞小公園)에서 비선대 방향으로 약 2.4 km 지점인 정고평(丁庫坪)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무명 용사의 비(無名勇士碑)로 불리워진다.

6·25한국 전쟁 때 설악산 전투에서 중공군(中共軍)을 맞아 용감히 싸운 수도 사단·제11사단·제5사단 순국 장병과 군번이 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학도 결사대 호립 부대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5년 10월 30일 한국 일보사(韓國日報社)에서 제1군 사령부와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반공 애국 유적 부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다. 당시 한국 일보사 이구형(李錄滢) 강원 지사장의 발의로 제1군 사령부 지일권(池一權) 작고 전 속초 문화원장) 출입 기자단장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시공은 국제 토건 회사(사장 박찬규朴贊奎)가 맡았으며 공사비는 강원도 내의 각 기관

과 독지가에게서 모금한 성금 2백만원과 쌍용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300포를 지원하였으며 제1군 사령부에서는 장비를 지원하고 공사 감독은 제1군 사령부와 한국 일보사 마일연(馬一淵) 기자가 담당하였다.

‘이름모를 자유 용사의 비라’는 휘호는 당시 육군 참모 총장 김용배(金容培) 장군이 썼으며 비문은 시인이자 당시 제38사단장 장호강(張虎崗 수복 기념탑 모자상부 작자) 장군이 지었다. 탑의 기단 높이 1.3m 높이 13m이다.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넘들이 고이 쉬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아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 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에 부를 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지어다.

1965년 10월 30일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산 지구 전적비(戰蹟碑)

천만 년을 이어 갈 꽃말이다

설악산 소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6·25한국 전쟁 때 설악산 지구의 치열했던 전투의 전적비(戰蹟碑)이다.

전적비를 세우게 된 속내는 이러하다. 1976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교통부 연두 순시 때 6·25 전적지 개발을 촉진하라는 지시의 하나로 이루어져 설악산 지구 전적지 개발 사업은 1978년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 해 들어 상반기까지 개발 대상지 답사·측량·전사(戰史) 자료 수집과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사업 설계를 7월 8일 완료하였다. 전적비 건립은 최기원(崔起源) 조각가의 작업으로 11월 10일 완공하였으며 12월 11일 제막식을 가졌다.

규모는 기단 높이 70cm, 높이 3m. 동상(銅像)은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돌진하는 국군의 용감한 모습을 조각



한 것으로 날렵한 국군 용사의 상이다. 전적비에는 설악산 지구 전사문을 비롯한 비문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여기 관동의 영산, 풍광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다. 그 해 2월에 삼척 부근에서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 수도 사단(맹호 부대)이 4월에 관모봉 한계령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승 폭포 부근에 도사린 북한군 제6, 제12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맹호들이 청봉을 단숨에 뛰어넘고 노호를 터뜨리며 적구를 향해 공격해 갔으니 그 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욱이 높은 봉, 깊은 골이 첩첩하여 식량과 탄약이 미처 따르지 못하매 악전 고투가 계속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 보급을 받아 가며 난관을 극복하고, 공격 개시 5일 만인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인제에서 하전부리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 사단은 그 곳으로 달려가 그 적을 막아낸 다음, 반격을 재개하여 5월 말에 일사천리로 이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기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몸 바친 젊은이의 넋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청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들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설악산 지구 전사문

여기, 청봉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 년을 이어 갈
역사의 표말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가 짓밟을 때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향로와 건봉이 저기에 있으리오.

오월 초목
단심으로 물들인 충혼,
이 돌과 더불어
길이 남으리라.

-비문

비의 건립 개요
주관/교통부 집행/국제 관광 공사
후원/국방부 제작/최기원
준공/1978년 11월 10일

한 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워두고

충혼탑(忠魂塔)

꽃봉오리 이곳에 안식하고

속 초시 도문동(東草市道門洞 중도문2리中道門二里 하도문리下道門里) 경계인 신문덕에 위치하고 있다. 속초 출신 전몰 군경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

충혼탑(忠魂塔)은 본디 1964년 5월 동명동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시비(市費) 9만 원을 들여 영랑호 남동쪽 현재 체육공원 자리로 옮기어 같은 해 현충일을 맞이하여 제막식을 가졌으나 다시 1987년 12월 15일 이곳에 새로 세웠다. 탑의 앞면 좌우에는 국군의 활약상을 조각한 청동상(靑銅像)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비문과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돌에 새긴다

한 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워두고
여기 깊이 잠들었는가
길손이 묻거든 대답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 나라 대한 민국을 지키다가
꽃봉오린 채 이곳에 안식한다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여
식지 않는 땅 열렬한 지평 위에

찬란한 역사와 함께 살아 있노라
 젊은 목숨들이 바친 보석 바꾸니
 겨레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네
 이 빛나는 자유 조국의 하늘 아래
 호국의 영들이여 길이 광명하라

—황금찬

서기 1987년 12월 15일
 속초 시장 윤태경(尹泰景)

통천 출신 반공 전몰 용사의 넋을 기리는

통천군 순국 동지 충혼비(殉國同志忠魂碑)

1969년 건립, 1990년 새롭게 단장하였다

영 랑호 동남쪽에 위치하며 통천군(通川郡) 출신으로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평화·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북한 공산당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반공 전사자와 6·25한국 전쟁 전몰 용사 140명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영북지구 통천 군민회(通川郡民會)의 신세묵(辛世默) 회장을 비롯한 5명이 발기하여 박용학(朴龍學) 정주영(鄭周永) 강서룡 등 전국의 통천 군민(通川郡民) 150명의 출연금(出捐金) 120만원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오랜 세월로 낡아진 것을 1990년 5월 30일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의 규모는·기단 높이 110cm·둘레 17m·비신(碑身)·높이 625cm·둘레 5m로 충혼비 앞면에는 비문과 순국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방의 금수 강산
 아름다운 내 조국
 자유·평화·정의의
 깃발 아래
 일신을 초개같이 던져
 북한 공산 도당과 싸우다
 아깝게 순국한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이 비에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여기에 모시고
 반공과 통일을
 다짐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비문 전문

속초·양양·간성을 투혼으로 사수한

제1군단 전적비(第一軍團戰蹟碑)

1991년 6월 6일 제막

속 초시 조양동(束草市朝陽洞) 속초 해수욕장 입구, 당시 상령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1군단은 한국 전쟁 때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과 향로봉(香爐峰) 등지에서 적과 싸워 이 지역을 사수하는 큰 공을 세웠다. 참전했던 용사들의 무훈을 기리고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제8675부대에서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여 '현충일'에 맞추어 그 하루 전날인 1991년 6월 5일, 제막식을 가졌다.

전적비의 높이는 7m이고 그 위에는 눈을 부릅뜬 채 북쪽을 향해 돌진하는 2.5m 높이의 청동제 용사상이 세워져 있다. 비의 양면에는 '비문'·'6·25

전쟁 당시 제1군단장' ·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6·25전쟁 중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제1군단은 1950년 6월 시흥에서 창설, 1951년 6월 6일부터 1952년 12월 22일,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 월비산 전투에서 양양·속초·간성을 필승의 투혼으로 사수하였다. 육군 전 장병과 지역 주민들은 이 전투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값진 희생과 무용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이 전적비를 세운다.

1991년 5월 30일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진삼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 초대 : 소장 김홍일('50. 7. 5~'50. 9. 1)
- 2대 : 소장 백선엽('50. 9. 1~'51. 3. 29)
- 3대 : 소장 백선엽('51. 4. 7~'51. 12. 2)
- 4대 : 소장 이형근('52. 2. 2~'54. 2. 2)

건립 개요

건립 : 육군 제8675부대

부대장 중장 김태섭

후원 : 속초시

시장 홍순호

조각 : 관동대학 교수 오세원

글씨 : 양양군수 정명시

자연 보호 헌장비

속 초시 설악동 소공원에 소재하며 1978년 10월에 건립되었다. 헌장비는 조수를 형상화하였으며, '자연 보호 헌장'을 탐의 받침돌 표석에 새겨, 이곳을 찾는 이들을 계도하고 있다.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 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 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 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살신성인(殺身成人)의 벅사람

유정충(兪禎忠) 선장 동상

1991년 1월 9일 제막식을 가져

속 초시 금호동(束草市琴湖洞) 근로복지 회관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370마일 동지나해에서 선원 21명을 구하고 하나호와 함께 운명한 유정충(劉禎忠)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되었다.

'하나호 선장 유정충 상'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 위에 유 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홀로 남아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과 추진 위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 동상의 제작은 춘천 교육 대학 이길종(李吉鍾) 교수가 맡았다.



세계 청소년 화합의 상징

'91세계 잼버리 대회 기념탑(제17회)

속 초시 대포동(내물치리)에 소재하며 강원도 고성군 신평리에서 개최된 바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기념탑의 중앙 부분은 청동을 소재로 소년 소녀상을 조각하고 둘레는 원형으로 장식하여 세계 청소년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높이 솟은 기념탑은 봉송대의 형상으로 그 정상에 지구의 형상과 비둘기를 조각하여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성금으로 세운

시민 헌장탑(市民憲章塔)

1994년 6월 13일 건립

속 초시 영랑동(束草市永郎洞) 속초 문화 회관(束草文化會館) 광장 좌측에 동해를 향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이 헌장에 담긴 의지를 몸소 실천하고 생활의 지표로 삼아 화합 동참하는 문화 시민상을 정립해 나아감은 물론 길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총의에서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시의 지원금으로 건립하였다.

이 탑은 1994년 6월 13일 시민 성금과 시의 지원금으로 세워졌다.

탑의 높이는 11.8m로 앞면 기단 위에는 화강석에 시민 헌장이 새겨지고 왼쪽에는 날개의 상징물, 오른쪽, 파도와 배의 키, 1단과 2단 사이 앞으로 돌출



된 배의 상징 단 위에는 5인의 시민상이 청동으로 세워져 약진하는 모습의 상을 보여 주고 있다. 탑의 정상에는 정면에 속초 시기(束草市旗)가 돌출되어 있다.

이 탑은 1993년 10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건립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뒷면에는 건립기가 새겨져 있다.

공기/1993년 10월 2일

착공/1994년 6월 13일

규모/높이 11.8m(기단 0.75m 탑신 11.05m)

재질/화강석 청동

사업비/97,017천원

• 성금 47,017천원

• 시지원금 50,000천원

조각/박영근

휘호/김광희

1994. 6. 13

속초 시민 현장탑 건립 추진 위원회

장사동 흰 고개 서낭산의 충령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민족 청사에 빛날 영원한 젊음들

속 초시 장사동(束草市章沙洞 사진리沙津里) 흰 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동서남 해상에서 해상 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 중 꽃다운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해양 경찰 대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대에서 세웠다. 기단부는 해경 함정 형태로 조각되고 그 위에 정복과 전투복의 해경 경찰상이 청동으로 세워졌으며 탑이 이들을 뒤로 높이 솟아있다. 뒤에는 비문과 순직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해경 충혼탑 비문(海警忠魂塔碑文)

이 나라 동서 남해(東西南海)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 영령들이
여기 태백산(太白山) 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도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가
숭고한 희생으로 영원(永遠)하시니
세월이 흘러가도 해경인(海警人)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도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민족 청사(民族靑史)에 충혼(忠魂)들
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 경찰대 충혼탑을 세워
이들 충령(忠靈)을 한 자리에 모시어
호국 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 역사에 귀감(龜鑑)을 삼고자 하
노라.

서기 1986년 12월 30일
해양경찰 대장 치안정감 권복경



29

전 설

내 고장의 전설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울산바위를 지킨 동자승
권금성에 얽힌 이야기/계조암 부근의 매미떼
계조암과 목탁바위/도문동 벼락바위에 얽힌 효심
노학동/과명당과 학/영금정과 징바위/수음바위

울산바위/울산바위와 동자승/권금성/계조암의 매미

속초에 전해 오는 전설(傳說)들

계조암과 목탁바위/벼락바위/과명당과 학/영금정/수음바위

전 설(傳說)은 사전적으로 말해서 어떤 집단이나 일족(一族)의 내력이나 잔
연물의 유래와 체험 등이 예로부터 민간에 구전(口傳)되어 오는 이야기
를 말한다.

사람들의 나긋한 정화(情話)와 처절한 슬픔과 열띤 의지(意志)를 흐름에 신
고 흘러 흘러 오랜 세월을 헤이게 되면 전하는 이야기가 유역(流域)에 쌓이고
그리고 흐트러진다. 이것이 전설이나 풍토처럼 고유(固有)한 역사이기도 하
다.

-유주현(柳周鉉)/임진강

달이나 바람을 교수형에 처할 수 없는 것처럼 전설을 처형할 수는 없다. 전설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이다.

-C.V 게오르규/키라레사의 학살

금강산 참여에 시기 놓친 울산바위

울산바위에 얽힌 이야기

설악산 주역으로 그 위용을 자랑

울산바위는 원래 지금의 설악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경상도 울산에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경상도 울산에 있었던 울산바위는 조물주가 강원도에 천하의 명산 금강산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전국 각지에서 웅장하고 수려한 풍모를 지닌 산봉우리들을 뽑아서 1만2천 봉이나 되는 많은 봉우리들로 명산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울산바위로서는 평소에 자신의 용모가 남달리 수려하고 웅장함에 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일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주위의 많은 산봉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틀림없이 좋은 성적으로 뽑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다녔다.

울산바위는 떠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위의 산봉우리들에게

“나는 본래 자질구레한 너희들과 이곳에 머물 몸이 아닌데 지금까지 어찌다 같이 머물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야 나의 수려한 용모를 과시할 때가 온 것인 바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리라 확신하며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호언 장담하면서 울산을 떠났다. 이 바위는 말이 바위이지 실제로는 산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크기와 용모가 거대하여 오히려 바위산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린다. 울산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하는 울산바위는 워낙 몸집이 커서 걸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걸었다.

울산바위는 태백산맥을 따라 발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하여 다다른 곳이 설악산 현재 울산바위가 위치한 곳이다.

“빨리 가야 금강산의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도 하루쯤 쉬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왕에 쉴 바에는 경치 좋고 편안한 곳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울산바위 자리에 하루를 쉬게 되었다. 정말 편하고 살 것만 같았다. 하루 쉬고 다음 날 일찍 감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조물주를 만나기 위해 금강산 어귀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미 금강산은 기암 괴석과 우람한 연봉들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울산바위는 자신의 용모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도 자신이 있을 자리쯤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조물주를 상면키로 했다. 조물주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난 후에

“조물주께서 보시다시피 제 몸집이 유난히 커서 걸음을 빨리 걸을 수 없어 다소 늦었습니다. 혹 늦었더라도 굽어 살펴 주시고 웅장하고 준초한 용모를 잘 보셔서 금강산의 주역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원하였다. 조물주는 울산바위의 모습을 잘 살피고 나서

“이만하면 금강산의 주역 노릇을 할만 하지만 아깝게도 경연을 마쳤으므로 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가상히 여기어 앉을 자리는 없으나 산록에 가서 단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바위는 이 말을 듣자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

“나도 체면이 있소. 금강산에서 단역을 할 바에야 차라리 돌아가는 길을 택 하겠소.”

하고 그는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다. 무작정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선뜻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울산을 떠나 올 때 주위의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떠나 왔으니 다시 간다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달리 갈만한 곳이 있을리도 없지 않은가. 그는 궁리 끝에 어제 저녁 하루를 쉬고 온 외설악의 그 자리가 떠올랐다. 설악산에서 주역을 하는 것이 훨씬 체면이 서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울산바위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울산에서 온 바위라 오늘까지도 울산바위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울산바위를 지킨 동자승(童子僧)

설악에 있게 하라

조 선 왕조 때 유생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의 일이다. 울산 고을의 원님이 설악산 구경을 하러 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곳의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다음날 울산바위를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생각하니 정말 웅장한 그 모습이 아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설악산에 대한 시기심도 함께 발동하기에 이른다.

밤새도록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그는 생각을 굳혀 이른 아침 신흥사(新興寺·1995년에 '신神'을 '신新'으로 바꾸었음. -편저자 주)로 들이닥쳐 주지승을 불렀다. 주지승이 나와 보니 위의를 갖춘 고을 원님의 행차가 절 앞뜰에 좌정하여 있고 수행하는 나졸들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을 원은 다짜고짜로

“나는 경상도 울산 부사로 내 고을에 있었던 울산바위가 이곳 사찰림에 와서 설악산의 경관을 더욱 빛내고 있음에도 너는 지세를 물은 적이 있느냐? 몇 해를 기다려도 지세를 한 푼도 물지 않기에 내가 오늘 직접 찾아 온 것이니 네 그리 알고 지세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호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유행들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지내던 승려들인지라 아무 소리 못하고 지세를 곧 물겠노라고 승낙하고 말았다. 그 뒤로 해마다 울산에서는 지세를 뜯어가기 시작하였다. 지세가 워낙 많아서 신흥사는 지세를 물기에 벅찼다. 급기야는 절의 재정이 바닥이 날 형편에 이르렀다.

며칠 후에 지세를 또 받으러 올 터인데 주지승은 지세를 마련하지 못하여 밤잠을 설치며 수심에 가득찬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자나깨나 수심에 찬 주지승의 모습을 대하는 동자승이 그 걱정거리를 모를 리 없었다. 동자승은 어느 날 주지승에게

“스님께서서는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기에 날마다 시름에 젖어 계시은지요. 혹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이온지요.”

하고 여쭙었더니

“네가 알 것이 아니다. 설령 네가 그 걱정거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

하고는 긴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자승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같이 생각해 보면 일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게 속시원하게 걱정거리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하고 다그쳤다. 망설이던 주지승은 동자승이 예견한 대로 울산바위 지세에 대한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동자승은

“스님, 그 울산바위 지세 문제라면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꼭 믿어주세요.”

하고 주지승에게 대답하였다. 주지승은 기특하기도 하고 또한 달리 뽐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동자승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세를 받으러 오기 전 동자승은 주지승에게 자리를 피하도록 권하고 신흥사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날 울산 고을의 원이 보낸 지세를 받으러 온 자들이 들이닥쳤다. 주지승을 찾자 동자승은 시치미를 떼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맞았다.

“울산 고을 원님이 보낸 지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니 잔말 말고 주지승을 불러오라.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내놓겠다.”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자승은 그 자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들에게

“우리 절에서 지금까지 억울한 지세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물었던 것은 할 수 없고 금년부터는 지세를 물 수 없으니 울산 고을의 원께 그리 전하기 바랍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 고을의 바위가 이곳 설악산에 와서 경관을 빛내 주었는데 무슨 소리라며 지세를 더 받아야 된다고 호통이 대단하였다. 그러자 동자승은 침착한 어조로

“그 웅대한 바위가 우리 신흥사 사찰림에 와서 있는 바람에 그 앉은 곳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자라지 못했으니 금년부터는 우리가 반대로 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흥사에 세를 내기 싫으면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이 바위를 가져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를 물던가 결정을 내리시오.”

하고 단호하게 나갔다. 그들로서도 동자승의 의견이 틀리지 않아 이야기를 더이상 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와서 결정하겠다고 돌아갔다. 다음 날 그들은 밤새 궁리한 대로 동자승에게 그들 요구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네 말대로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옮길 것이니 옮겨 갈 준비를 해줄 수 있겠느냐? 만일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울산바위를 우리에게 넘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세를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동자승도 갑작스러운 제의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네가 재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엮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자 동자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로 새끼를 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묵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울산에서 온 자들이 제아무리 신통하다고 하더라도 재로 새끼는 풀 수 없으리라 믿고 수군거리며 숙소로 돌아갔다.

잠시 절을 피했던 주지승이 몹시 궁금하여 돌아와 보니 동자승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자초지종을 동자승으로부터 다 듣고 난 주지승은 지금까지 너의 지혜는 뛰어났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재로 새끼를 어떻게 짜서 울산바위를 엮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재로써 새끼를 풀 수도 없으려니와 울산바위를 엮어낼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다.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네가 어찌하려고 그자들과 터무니 없는 약속을 하였느냐!”

하고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자승은

“제게 생각이 있으니 모든 일을 제게 맡기고 구경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신흥사의 스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동자승의 지시에 따라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밤낮으로 새끼를 꼬기 시작하여 울산바위로 옮기게 되었다. 새끼로 울산바위를 엮고 그 새끼에 불을 당기니 울산바위는 온통 재로 끈 새끼로 가득하였다. 울산 고을의 원이 보낸 자들에게 연락하여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울산바위를 가져가라

는 통보를 하였다. 그들은 의아하여 울산바위에 다달아 보니 재로 끈 새끼로 울산바위는 얽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그로부터는 울산에서 설악산 신흥사로 울산바위의 지세를 받으러 오는 일은 없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권 장사와 김 장사가 쌓은 피난처

권금성(權金城)에 얽힌 이야기

두 장사의 성을 따서 권금성이라 했다는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권 장사와 김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병난을 당하여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피난을 가야만 했다. 피난을 간 곳이 지금의 권금성 터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산등성이라 적이 온다면 방어할 아무런 지형물이 없는 곳이었다.

두 장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권 장사가

“적병이 오기 전까지 성이라도 쌓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김 장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오늘 밤 안으로 성을 쌓아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구려.”

권 장사도

“맞는 말이요, 그러나 성을 쌓을 돌이 이 산정에는 없으니 어찌하겠소? 여기 저기 산 속에 돌을 찾는다 해도 운반하기가 힘들겠지만 돌을 많이 구해 올 수도 없으니 말이오.”

김 장사도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큰 일인데…”

한참 골똘히 생각하던 권 장사가

“여보시오 김 장사,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책일 것 같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돌이 많이 있는 곳은 저 아래 개울가 밖에는 없지 않소. 그러니 내가 내려가 저 개울의 돌을 이 위로 던질 것이니 김 장사

는 받아서 성을 쌓기 바라오.”

하고는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 장사도 그 방책이 최선이라 생각되어 권 장사의 의견에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권 장사가 시냇가에서 던져 주는 돌을 김 장사는 산등에서 받아 밤새도록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두 장사는 서로 던지기과 쌓기를 교대해 가면서 이 성을 쌓았는데 바로 이 성의 이름을 권(權) 장사와 김(金) 장사가 쌓았다 하여 훗날 권금성(權金城)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도사의 도술을 피해 온 피난처

계조암(繼祖庵) 부근의 매미떼

전설로 유명한 매미의 우는 소리

예로부터 계조암 부근은 매미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한여름의 계조암에서 듣는 매미의 우는 소리는 자연의 합창인 양 경이롭기만 하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경상도 울산에神通한 도사 한 사람이 있어 그의 하루는 도를 닦는 일 외에는 거의 먹고 자는 일이 전부이었다. 낮에는 어기지 않고 낮잠을 자기에 한밤에는 깊이 잠들 수 없게 되는 연유가 있었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밤낮으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 까닭은 한 밤에 울어대는 개구리의 소리가 그의 심사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개구리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일일이 잡아서 가둘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자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도술을 쓰려고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구리들의 우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도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방도로 궁리를 모색하여 그 도술을 터득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런 결과 마침내 그는 개구리의 우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도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 해 여름 개구리 우는 소리가 한창 기승을 부리자 주문을 외우면서 부적

을 써 들판 가운데 던지자 잠시 후에 들판에서 개구리의 우는 소리가 멎게 되었다. 물론 도사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자신의 도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시끄러운 개구리 우는 소리를 제거한 것이 그의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개구리의 우는 소리는 해결하였으나 낮잠을 방해하는 매미 우는 소리가 그에게 또 성가신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구리에게 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매미에게 술수를 부리려고 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매미들을 병어리로 만들 양으로 부적을 써서 하늘에 날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매미들 가운데 이 낚새를 알아차린 대다수의 매미들은 무리를 지어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있던 눈치를 차리지 못한 매미들은 도사의 도술에 걸리어 병어리가 되고 말았다. 매미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는 매미는 그 때 도술에 걸리지 않은 매미이며 울지 못하는 매미는 그 때 도술에 걸린 바로 그 매미들의 후손인 것이다.

한편 도사의 도술을 피하여 떼를 지어 도망친 매미들은 의논 끝에 산수가 수려한 강원도로 갈 것을 작정하였다. 며칠을 계속 날아와 산수가 수려한 강원도 산간에 이르르니 바로 그 곳이 설악산이었다. 매미들은 마침 설악산에 자기들 고향에서 온 울산바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울산바위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곳 매미는 다른 곳의 매미보다 더욱 우는 소리가 극성스럽다고 한다. 이리도 극성스럽게 우는 까닭은 경상도 울산 지방에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다 병어리가 된 매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더욱 극성스럽게 우는 것이라고 전한다. 계조암은 바로 이 울산바위 아래에 있는 암자이기 때문에 이 암자에서는 유난히 요란한 매미들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까닭에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란다.

득도가 빠른 암자로 소문난

계조암(繼祖庵)과 목탁바위

훌륭한 고승들이 계속 이어져 나온 암자

이 암자를 계조암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계조암에서 수도하면 득도하기가 쉬워 조사(祖師)라고 일컬을만한 훌륭한 고승들이 계속하여 나온다고 해서 암자를 계조암 즉 조사가 이어서 나는 암자로 부르게 된 것이다. 다른 암자에서는 득도를 이루는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라면 이곳 계조암에서는 몇년 걸리지 않고도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소문과 함께 전국에서 수도승들이 득도를 이루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암자에는 한 사람만이 수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승들은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수도승 중에서 수도를 통해 득도를 하기 위함보다는 왜 이 암자가 다른 곳에 비하여 득도가 빠른가를 알기 위하여 수도를 원하는 한 수도승이 있었다. 그는 계조암이 득도가 빨리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득도를 속히 이루고자 하는 수도승들을 위해 이와 같은 암자를 더 짓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수도승은 이 암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많은 수도승들이 수십년을 걸려서 득도를 하는 어려움을 덜게 하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지



닌 채 이 곳에 머무르게 되는 데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계조암이 다른 암자와 다른 것은 석굴 암자라는 사실 밖에는 다른데가 없다고 이 수도승은 생각하였다.

이 수도승은 수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한 궁리로 세월만 보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전한다.

하늘이 감동한 효녀의 이야기

도문동 벼락바위에 얽힌 효심

전설을 말할 듯한 쌍천가의 갈라진 바위

도 문동에 벼락바위라고들 부르는 바위가 있다. 그 큰 바위가 벼락을 맞은 것 같이 가운데가 갈라져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바위의 이름이다. 이 바위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바위 앞으로는 쌍천(雙川)이 흐르고 있어 한여름이면 피서와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즉 이 마을은 설악산의 정기가 이어져 내리는 그런 조용한 곳이기에 학문과 수련을 쌓기에 여러모로 좋은 환경을 가진 마을이다.

이 마을에 성은 모(牟)씨요, 소위 거사(居士) 라고 부르는 모거사(牟居士)가 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불교의 도를 터득했다고 자부하는 터이므로 수도승들이 출가와 삭발을 거쳐 수도하여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는 그러한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불교의 도를 깨우친 자칭 도인 거사라고 했다.

“나는 모거사이다.”

하며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절이나 암자를 짓지는 아니하였지만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추었다고 한다.

그는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여 상당한 경지에까지 올라 있었다. 식구라고는 열다섯 살 난 딸 뿐이었는데 그 딸은 효심이 지극하여 늘 아버지의 시중을 들며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살고 있었다.

이 거사의 소일거리는 매일 그 쌍천에 나가 낚시하는 일이었다. 그는 고기를 낚으면 다시 물에 놓아 살려주고 다시 잡으면 놓아주는 낚시로 하루를 소일했다. 딸은 째째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낚시질을 지켜보면서 잔심부름이라든가 여러 일을 거들며 아버지의 무료함을 풀어주고는 하였다.

하루는 거사가 낚시를 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던 딸이 가만히 보아하니 낚시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딸은 졸고 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아버지는 번쩍 잠이 깨어 일어나 낚시대를 들어 올렸다. 그는 아주 기뻐하며 고기를 잡아서 다시 냇물에 던져 놓고는 다시 낚시대를 물에 드리웠다.

이때 어디선가 한 스님이 이 거사의 낚시터에 나타났다. 이 스님은 파계승으로 이 마을을 지나다 거사라고 자칭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난을 칠 요량으로 이곳을 들르게 되었다. 그는 모거사의 낚시하는 광경을 살피다 불쑥

“이제 객이 날이 저물어 쉴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거사 댁에서 송구스럽지만 하룻밤을 묵으려 하니 편의를 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청하였다. 거사는 이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낚시에 열중할 뿐이었다. 파계승으로서는 은근히 화도 나고 패섬한지라

“아무리 거사기로서니 남의 청에 대답도 없다는 것이오.”

하고 거사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거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낚시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파계승은 더욱 화가 치밀었으나 달리 방도가 없는지라 그저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로 버티다 해가 저물었다. 거사는 시치미를 떼고 낚시를 거두어 집으로 향했다. 파계승은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 할 수가 있는가, 좋다 나도 속셈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사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거사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파계승은 딱한 처지에서 그대로 따라갔다.

파계승은 거사의 뒤를 따라 방에까지 들어앉았다. 조금 있으니 거사의 딸이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상에 오른 것이 산나물에 감자를 넣은 죽 두 그릇뿐이었다. 거사는 죽 두 그릇을 게눈 감추듯 해치우고 말았다. 굶은 파계승은 손 쓸 사이도 없이 거사에게 당하고 만 것이다.

거사는 그래도 의식하지 않고 벽에 기대인 채 눈을 감기 시작했다. 파계승으로서는 굶기는 물론 계속 거사에게 당하기만 하여 이 보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통쾌할까를 골똘히 생각하던 가운데 드디어 좋은 묘안이 하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파계승은 이때로구나 생각하자마자

“거사 어른”

하고 정중하게 청하였다. 거사는 지긋이 눈을 감고 있다가 귀찮은 듯이

“왜 그러는가?”

하고 대답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림새가 어술한 중인데 이곳에 온 것은 거사 어른께 볼 일이 있어 온 것이오.”

“그럼 무슨 일인가 들어나 봅시다그러.”

“내가 실은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 귀한 것이 무엇이오.”

“아주 귀한 것이라서…”

“귀한 것이라…”

“실은 내가 부처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부처의 씨를 말이오.”

거사는 부처님의 씨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처의 씨라, 부처의 씨… 그래도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파계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발이 필요하니 발을 좀 주시오.”

이 말을 들은 거사는

“나는 발이라고는 감자를 부치는 자그만 발 한 뼘이 전부인데 당신을 줄 발이 어디 있겠소.”

“에이, 이 거사 양반아!”

“아니…”

“아주 좋은 발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는데 시치미를 떼다니…”

“정말 나는 발이 없소이다.”

“하 거참, 거사의 딸이 있지 않으오?”

거사는 이제야 중의 속셈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패씹하고 고약하여 파계승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럼, 당신은 파계를 하겠다는 말이오.”

“파계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하면서 보따리 하나를 풀더니 상자를 하나 거사 앞에 내놓으면서

“이 상자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며 상자를 여니 값진 보석이 가득하였다.

“이 보석은 내가 부처의 씨를 그 밭에 심어서 얻은 종자로 하여금 절을 크게 짓고 그 절을 통하여 불법(佛法)을 펼 계획에 필요한 재물이니 그리 아시오.”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이 보화를 가지고 곳곳을 다니던 중에 이곳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고 발길을 돌렸으니 집의 딸을 내게 시주하시오. 집의 딸을 말시오.”

그러나 중의 요구가 영큼한지라 거사는

“쓸데없는 말 마시오. 나는 딸을 줄 수 없오.”

거사의 말이 단호하자

“그럼 나하고 내기를 하나 합시다. 당신이 이기면 이 보화를 차지할 것이고 내가 이기면 거사의 딸을 내가 차지할 것이고…”

그러자 거사는 무슨 내기인지는 몰라도 중과 내기를 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설 것 같아서

“그렇게 합시다. 어서 이야기를 하시오.”

하고 다그쳤다.

“좋소이다. 이야기하리다. 이 보화를 이 집에도 100장 이내에 숨겨놓을 것이니 100일 동안에 찾으면 당신 것이고 찾지 못할 때에는 당신은 딸을 내게 시주하게 되는 것이오.”

거사는 자신이 있었다. 100일 동안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소이다.”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그날 밤 중은 보화계를 어딘가에 숨기고 사라졌다. 그 다음날부터 거사는 보화계를 찾기에 정신을 쏟는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하던 낚시도 팽개치고 그 보화계를 찾기 위해 사방을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음에 이 부녀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거사로서는 보화계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찾지 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덧 99일이 지나가 버렸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딸을 파계승에게 빼앗겨

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다달았다.

“내가 도를 터득한 거사라고 자만하고 다닌 일 때문에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벌을 받고야 말았구나. 이 일을 어찌면 좋을까…”

하고 긴 탄식을 늘어 놓았다. 그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 다시 도를 닦기 위해 입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99일 되는 날 설악산으로 홀연히 들어가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딸은 아버지를 말릴 수도 없이 뒷모습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딸은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늘에다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이 딸의 효심이 하늘에 무심치 않았던가 얼마 후에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천둥에 번개를 치며 천지 개벽하는 광음과 섬광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늘 낚시터로 삼았던 바위를 벼락이 내려치는 소리가 우지직하였다.

처녀는 미친 사람처럼 바위를 향해 뛰었다. 바위는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으로 파계승이 숨기고 간 보화궤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동네에서는 벼락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은 다름아닌 이 처녀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내린 은혜라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였으며 이 벼락바위는 오늘도 그 옛날의 전설을 말하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쌍천가를 지키고 있다.

지관이 정해 준 자리에서 학이 날아오르고

노학동의 파명당(破明堂)과 학(鶴)

학사평(鶴沙坪)은 이로써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노 학동에는 옛날부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았다.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였던 사람도 많고 학문이 높은 경지에까지 오른 대학자도 많았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이 집안은 어느 때부터인지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점차 과거에 급제하는 후손이나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불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집안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는 풍수지리를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 선조의 묘소를 둘러보기로 의논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름있는 지관을 모시어 선조의 묘소를 살피게 되었다. 그 결과 묘소 앞이 산사태로 땅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발견하였다.

지관은 유실된 곳을 유심히 살피더니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 때문이구나 생각했다. 이 유실된 자리는 설악산에서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지관은 이씨 문중의 사람에게 알려주며 명당이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문중의 운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기에 이르렀는데 좋은 방도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씨 문중의 한 사람이 묻자

“글쎄, 파명당을 명당으로 복원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될는지 말하기가 어렵소이다.”

“지관 어른, 속는 셈 치고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요.”

지관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나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도 이와 같이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하고 복을 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으니 하여튼 이 파명당을 복원하여 보시지요.”

파명당을 다시 일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를 즈음하여 이씨 문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돌아가셨다.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에 관하여 의논을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명당 자리에 모셔야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되고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그곳에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있었다. 갑론 을박하며 몇 차례 숙의를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파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다.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지관은 생각끝에 그러면 모시기로 하는데 너무 깊이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알려주었

다.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정해진 깊이만큼 파 내려가는데 한 인부가 잘못 건드려 그 이상으로 삽질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 원래 학사평은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있었다. 많은 선비(士)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학이 내려앉고 부터는 이곳이 모래도 많은 곳이라 '학(鶴)'자와 '사(沙)'자를 써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다. 이 학은 학사평에 잠깐 머무르다 지금 노학동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노학동은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노(蘆)' '동(洞)' 하여 노동(蘆)이었으나 학이 머무르다 갔다고 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라는 지명을 얻게 하였다고 전한다.

신령스럽고 영험한 신비의 거문고 타는 소리

영금정(靈琴亭)과 징바위

징 소리 나는 징바위가 있었다던 데...

속 초시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은 예로부터 재미있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영금정은 정자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신비한 소리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로 한 면이 육지와 맞닿아서 길게 바다로 나와있는 형상이라 다른 해안보다 더욱 파도가 심하다. 이에 돌로 이루어진 석산인 영금정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세차게 들리는 곳으로 영금정의 꼭대기에는 자그마한 자갈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러한 지평과 어울려 까치 정자를 이루고 있는 모양으로 파도가 쳐서 자갈 덮힌 곳에 부딪히면 그 소리가 마치 거문고 켜는 소리와 흡사하여 '영(靈) 금(琴) 정(亭)'으로 쓰며 이는 바로 신령스럽고 영험한 거문고의 선율이 들리는 정자

모양으로 생긴 석산(石山)이라 하여 영금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거문고를 타는 그런 신령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하니 그 파도가 자갈에 밀려와 부서지는 소리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모양이다.

영금정 위에는 한 사람이 바위를 치나 여러 사람이 치나 꼭 같은 징 소리가 난다는 징바위가 있고, 언덕에는 말발굽 자국처럼 생긴 형상이 있는데 이는 천마(天馬)가 달려간 자국이라 하여 이곳에는 신선의 왕래가 있었다고도 전한다.

설악산 계조암 앞의

수음바위(手淫岩)

설악산 계조암 앞에는 수음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어 그 모양이 마치 여인이 앉아서 방뇨를 하는 모습이라 한다. 그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암자에 있는 스님 가운데는 힘센 장수가 많았다고 한다.

날이 가물어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수음바위 건너편의 흔들바위를 수음바위 쪽으로 밀면 물이 더 나왔다고도 한다. 옛날에는 흔들바위가 두 개이어서 마치 남자의 남근과 같았다고 한다.

조선왕조 초기에 유교를 신봉하는 강원도 관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수음바위의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는 말에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바위 하나를 밀어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고부터는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그 후로는 장수가 설악산에서 나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관찰사는 여러 곳을 다니며 절에 개금 불사(改金佛事)가 있으면 술가지 불로 이곳을 검게 칠해 놓는 등 불교를 박해하였다. 이 관찰사는 울진 방면으로 가면서 여러 산자수명한 곳에 들러서는 시 한 수를 지으려고 붓을 입에 물고 흥얼거리다가 취 줄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붓대에 목을 찢려 죽었다고 한다.

30

성터와 흔적

그 옛날 성터와 남긴 자취

계조굴이라는 각자/비선대 각자/덕산 봉화/대포성터
장골성터/수군 첨사가 거느린 부대터/
어느 시대의 군량장일까

강원도 관찰사이자 서예가 윤사국이 쓴

계조굴(繼祖窟)이라는 각자(刻字)

계조굴 옆 바위에 새겨진 글자

계 조암은 신흥사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한 자연 석굴의 암자로 계속하여 유명한 조사(祖師)들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계조(繼祖)라는 이름이 붙여진 불교의 유명한 수도처이기도 하다. 그 옆의 바위에는 많은 글자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계조굴(繼祖窟)이라는 큰 글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글자 역시 양양 현산지에는 윤순의 글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계조굴이라 새겨진 글자 옆에 분명히 윤사국이 글을 썼노라고 한자로 윤사국서(尹師國書)라 새겨져 있다.

윤사국(尹師國)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 정조(正祖) 때 서예가이자 역시 판서(判書)를 지냈으며 정조 14년(1790)에는 강원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명

필가의 한 사람이다.

그 밖에도 암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열하 일기(熱河日記)의 저자 연암 박지원(朴趾源)이란 이름도 눈에 띈다. 양양 부사(襄陽府使)를 지낼 때 이곳을 들러갔던 것 같다.

비선대 넓은 마당바위에 새겨진

비선대 각자(飛仙臺刻字)

조선 왕조 영조 때의 윤순 예조 판서의 명필

비 선대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岩盤)으로 옛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겼으므로 바위에는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비선대(飛仙臺)라고 한 자(漢字)로 새긴 것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새긴 글자(각자刻字)에는 특별한 표시도 없고 그동안 관광객들에 의해 짓밟혀 글자가 닳아서 거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나 유심히 살펴보면 '비선대'라고 한자 초서체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자 하나의 지름이 1m 정도이다. 이 글자는 이야기처럼 양사언(楊士彦)이 쓴 것이 아니며 윤순(尹淳)이 쓴 것으로 양양의 읍지(邑誌), 현산지(峴山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윤순(1680~1741)은 조선 왕조 영조 때의 문신이며 서예가로 대제학을 거쳐 공조 예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서예는 미남궁체(米南宮體)를 터득한 명필의 한 사람이다.

대포동 외옹치리 봉끝에 있었던

덕산 봉화(德山烽火)

세종 실록 지리지에까지 실린 봉황독

속 초시 대포동(束草市大浦洞·외옹치리봉外甕峙里峰)끝에 위치했던 봉화대(烽火臺)¹⁾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전까지 이 터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봉화대의 흔적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지만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천면 외옹치리 부락에서 북동쪽으로 약 백 칸(百間) 떨어진 해안 반도 봉근(峰筋)에 있으며 주위 약 20칸(間)의 돌로 쌓은 주위에 반원형의 토류가 있음. 초완전(稍完全).

이라고 하여 당시까지는 석축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있었던 봉화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세종 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²⁾·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여지도서(輿地圖書)·양양읍지(襄陽邑誌) 등 조선 왕조 시기의 문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덕산 봉화(德山烽火)는 남쪽으로 양양의 수산(水山) 봉화·초진산(草津山) 봉화·양야산(陽野山) 봉화와 연결되었고 북쪽으로는 고성군의 죽도(竹島) 봉화·정양산(正陽山) 봉화·수산(戍山) 봉화로 연결된다.

주(註) 1) 봉화대는 봉화독(烽火一)으로 봉화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

2) 세종 실록 지리지

세종 실록 중에 있는 지리지(地理志)로 조선 왕조 단종 2년(1454)에 정인지 등이 편찬하였다. 사본, 8책, 각 도(道)의 연혁·고적·물산(物産)·지세(地勢) 등 각 방면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의 바탕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문헌의 기록일 뿐인

대포성(大浦城)터

·유무의 확실성이 불투명

속 초시 대포동 마산재(束草市大浦洞), 마산재(마성대馬城臺) 위에 있었던 성터. 지금은 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성의 존재가 의심되기도 한다. 조선 왕조의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제 강점기 문헌인 1926년 도천면 면세 일반(面勢一般), 1942년 조선 총독부 발행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

등에 기록되어 있다. 어느 시대의 성이며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근래 발행되는 대부분의 문헌에는 조선 왕조 중종 15년(1520)에 둘레 1,469척·높이 12척의 돌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이 기록은 오늘날의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造山里)에 위치했었던 조선 왕조 때의 해군 부대 대포영(大浦營)의 성에 대한 기록이다. 대포영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양양 도호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의 다른 문헌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포영은 부(府) 동쪽 12리에 있다. 성종(成宗) 21년(1490)에 강릉 안인포(江陵安仁浦)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영에는 수군 만호(水軍萬戶) 1명이 있었다. 조선 중종 15년(1520)에 둘로 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469척이고 높이가 12척이다.

동명동 법원·검찰청과 천주교회·감리교회 일대

장골성터

흔적 없는 성터로 그 옛날의 이름일 뿐이다

속 초시 동명동(東草市東明洞) 장골은 지금의 법원과 검찰청, 천주 교회와 감리 교회로 둘러 싸인 골짜기 마을의 옛날 이름이다. 일명 장안골이라고도 했다. 이곳은 지금 그 흔적도 없지만 나이 많은 토착인들은 성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42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속초리 성지(東草里城址)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노학동 탄봉 마을의 수군 부대터

수군 첨사(水軍僉使)가 거느린 부대터

조선 왕조 어느 때인가는 알 수 없다

속 초시 노학동(束草市蘆鶴洞·척산리尺山里) 탄봉 마을에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¹⁾가 거느린 부대가 있었던 터가 있다. 이는 1926년 도천면(道川面) 면세 일반(面勢一般)에도 기록되어 있다.

주(註) 1) 수군 첨절제사

조선 왕조 때 각 도(道) 수군(水軍)에 두었던 종3품(從三品) 외직 무관(外職武官) 첨사(僉使)는 준말.

비석만이 그 터임을 알리는

어느 시대의 군량장(軍糧場)일까

정고평을 지나 비선대로 가는 길가에 있다

옛 날에 군대의 식량을 보관하던 터로 설악산 소공원에서 정고평을 지나 비선대쪽을 향하여 가는 도중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어느 시대의 유적지인지는 알 수 없고 현재는 다만 그 터에 군량장(軍糧場)이라고 새긴 비석만이 서 있을 뿐이다. 비석의 높이는 180cm이고 뒷면에는 1968년 10월 9일 속초 시장 이건웅이라고 새겨진 것이 그 전부이다.

31

인 물

향토 인물(鄉土人物)

(가나다순)

고재동 高裁東(1890~1946)

중앙동 출신. 일찍이 일본인들의 연안 조업이 기업화될 것을 보고 처음으로 개발된 어장구를 도입하여 현대 수산업을 시도한 수산계의 선각자이다.

1936년 영랑 초등학교 설립에 있어 전액 단독 부담하였다.

주민들은 공의 회사를 치하하여 학교 입구 도로변에 공덕비를 건립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반동의 비라고 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김기용 金器龍(1915~1990)

길주농업학교 졸업, 체육인, 속초시 축구협회 회장, 강원도 축구협회 부회장, 강원도 축구협회장 공로패 수상, 대한축구협회장 공로패 수상, 속초시민상 수상(제1회 체육부문)

김덕기 金惠基(1890~1951)

조양동(부월리) 출신, 독학으로 외국어를 전공하였으며 탁월한 재질과 명석함에 일경 수뇌부에 의하여 특별히 발탁되어 관계에 투신하게 된다. 일본의 정략으로 치안직에 전보하여 평안북도 경찰부 고등과장으로 발령한다. 후에

는 일반 행정으로 전보되어 함경남도 상공부장, 경상남도 참여관을 역임하였다. 민족정신이 투철하여 창씨에 불응했다.

김두환 金斗煥(1921~1986)

홍남공업학교 졸업, 수산인, 속초선주협회장, 속초시 수협 감사, 영북지구 함경도민 회장, 민정당 강원도 지부 부위원장.

김복남 金福男(1933~1995)

장사동 출신,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 AFKO를 설립, 가나국에서 제일 가는 수산업을 경영.

가나국 올림픽 위원, 교민회 회장, 유럽지구 교민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했다.

모교인 영랑초등학교에 약 15년에 걸쳐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내었으며 속초시를 통해서도 불우한 후학들의 양성에 써달라고 거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김용식 金龍式

공은 도문동(중도문리)에서 1896년 출생하여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의지를 지닌 학구파로서 뜻한바 대로 변호사업을 개설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앞장 섰으며 광복후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 지방 법원장, 부산지방 법원장, 대구 고등 검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1960년 4월 19일 학생 의거 당시 혁명 검찰부장으로 크게 활약했다.

김우규 金雨圭(1877~1947)

관향 안동, 자는 시약(時若), 호 감호(鑑湖) 조양동 출신으로 한학자, 한일 합방에 격분한 공은 그 의분을 교우들과 시론으로 달래며 주민에게 동학을 장려하는 지역의 지도자였다. 동학도 남궁 역의 권유로 소천면장으로 관직에 투신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하는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도천면장 이석범의 간청으로 수석 호기(首席號記·지금의 부면장)로 리(里)의 구획과 지적 정리 등이 지역의 새로운 행정 기반을 구축한 행정가이다.

김정진 金廷鎭(1899~1984)

일제의 강점기에 평소 우애가 두터웠던 춘천의 이종순(李鍾淳 제헌 의원)으로부터 속초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을 책임지고 맡으라는 밀명을 받고 1백여 명의 동지들과 태극기를 만들어 기미년 3월 4일 부월리(扶月里 현재 조양동) 마을 회관 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도천면 대포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양양 경찰서 점거를 위해 대포고개를 넘다가 일경과 격돌, 체포되어 고문

으로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공은 부자유한 운신과 감시 대상으로 본가에서 농사일을 돌보면서 반일, 반공사상 고취에 헌신한 독립 유공자이다.

김종율 金鍾律(1926~1994)

영랑동 출신, 대포공립학교 졸업,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 시민의 선두에 서서 투쟁한 야당인, 4·19후 민주당 시절 속초읍장을 역임하였다.

김주혁 金周赫(1904~1975)

행정가, 조양동 출신, 유년기는 한학을 후엔 신문학에 뜻을 가지고 춘천 공립 농업학교를 졸업과 함께 관계로 진출하였다. 양양군수로 수복행정 초기에 행정 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힘쓰며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철규 金哲奎(1879~1953)

안동 김씨로 호는 송하, 공은 농사에 전념한 독농가로서 부유하면서 일생을 근면으로 일관하여 자수 성가한 인물이다. 또한 1932년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속초해수욕장 부근에 염전을 경영하였으며 속초지역의 산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김치룡 金致龍(1912~1995)

함남 덕원 신학교 수료, 속초읍장, 속초시장 서리,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속초토지개발조합장, 영북지구 영흥군민회장, 보사부, 문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해수 金海洙(1893~1980)

산림 보호자, 동명동 출신, 독농가이며 성품이 활달하여 주민들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현장에서 즉결, 화해시키는 지도력을 가진 인사로 한일 합방 후 산림의 도벌과 산주의 임의 채벌을 막기 위해 부락면 자의에 의한 송계를 조직하여 임상을 보호한 사실은 오늘날 산림보호의 선각자라고 하겠다.

김환기 金煥基(1889~1955)

함흥 한의원 강습소를 수료하고 주로 조양동, 영랑동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3·1운동에 관여,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에 반일 투지는 더욱 굳어져 광복 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당 무리들이 날뛰자 공은 항일의지를 반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니 1946년 3월의 이른바 속초 90인 사건의 주역이다. 서북 청년회 영동지구 본부 고문으로 전후의 수습과 지역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홍종 金興宗(1921~1950)

통영수산학교를 졸업하고 장전 건착망 조합에 근무중 광복을 맞았으나 공산당 세력이 날로 극성을 부리자 월남하여 수산 기사로 강원도 수산과를 거쳐 주문진 수산시험장의 장으로 재직, 6·25전쟁으로 국군이 북진하자 귀향하여 애국 청년들을 규합, 수복지구 치안 확보에 전심하였으나 1950년 11월 북한 패잔병 후퇴병력 소탕에 나섰다가 청초호에서 그들에게 피납되어 무참하게 사살되었다.

박기필 朴基弼(1812~1903)

자는 현여(賢汝) 1901년 정3품 통정 대부겸 종2품의 칙명을 받음, 국내부 주사 및 중추원 의관 역임, 유택은 속초시 노학동(적산 밀밭골)

박상희 朴祥喜(1890~1948)

본관 밀양, 호는 초은(樵隱),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태생, 1928년 도천면 장으로 천거되었다. 공은 협소한 대포리가 당시로는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속초의 지형을 면밀히 관찰하고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항구 도시의 설계를 만들어 당시 고미 지사(高尾知事)를 충동하여 총독부로 하여금 1930년 속초 축항공사를 착수케 하였다. 1937년에는 면사무소를 속초로 이전하였으며 1942년 속초를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켰다.

박성용 朴省龍(1923~1996)

진남포 공립 상공학교를 졸업, 양양경찰서 속초지서 주임, 반공연맹 속초시 지부장, 속초시 자문위원, 속초·양양 경우회장, 재속 황해도민회장, 조계종 제3교구 신도회장, 화랑무공훈장, 대통령 훈장.

박세교 朴世敎(1937~1990)

고려대 의대졸업, 속초고 동창회장, 독립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박세교 산부인과 의원 원장.

박지의 朴志誼(1799~1859)

자는 윤지(允之), 호는 이재(彝齋) 가선 대부, 효성을 다함은 물론 충효를 겸비하여 헌종이 승하함에 쌍천변 학무정 옆에 제단을 마련, 삼시곡배(三時哭拜), 사람마다 충신 박지의의 단(朴志誼之壇)이라 칭송하였으며 사람이 보호하여 정려(旌閭)하였다. 도문동(상도문리 사리치)에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다.

박창후 朴昌厚(1679~1727)

자는 자수(子壽), 1717년(숙종 43) 사마시(司馬試)에 급제, 다음해 봉렬

대부, 행호조 좌랑의 교지, 벼슬은 고령현감, 청주목사를 지냈다.

박춘복 朴春福(1911~1994)

이천공립보통학교 졸업, 수산업 경영, 속초시 수협 조합장(2대), 속초시 자문위원, 강원수산 주식회사 대표.

박태귀 朴泰貴(1909~1980)

행정가, 함남 고원군 고원읍 고도리 출신, 원산 보광학교를 졸업하고 고원읍 사무소, 고원 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청백한 행정가라는 신망으로 고원읍 의원을 역임하였다. 광복 후에는 반동으로 몰려 행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가옥도 창원군 인민위원회로부터 빼앗기고 갖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6·25전쟁으로 국군이 진격하자 고원 부군수에 봉임되었다. 속초읍 부읍장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과 공정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은 적법하고 타당한 인허가도 친인척에게는 불허하였으며, 권한 남용과 정실을 철저히 배제한 청백리의 으뜸이었다.

박하영 朴夏榮(1912~1987)

금화군 출신, 1932년 보통문관시험 합격, 양구, 영월, 명주, 양양군수, 민주공화당 강원제7지구당 사무국장, 속초농지개발조합장, 속초시 행정자문위원회 의장.

방효근 方孝根(1918~1993)

강원일보사 영복지사장, 영복지구 함경북도 도민회장, 속초시 개발위원회 회장, 속초시 정책자문위원, (주) 설악관광 사장, (주) 대건사 이사.

서창하 徐昌河(1904~1976)

속초고등학교를 창설한 선생은 1904년 11월 30일 함남 고원군 군내면 비서창리에서 출생, 선생은 고향에서 함흥 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광복전까지 함남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제가 우리나라 청년들을 강제 징병을 할때 장남과 함께 함흥고보의 동기였던 박동명(전 농수산부장관·대한교련 회장·전 성균관 대학교 총장)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임시 교사로 채용, 징병을 면하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1·4후퇴로 남하하여 6·25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1952년 3월 20일 고성군 동광중학교를 설립하고 같은해 5월 25일 속초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다시 같은해 6월 2일 이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신철원의 갈말중학교·신철원 농업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말년에는 다시 속초 여자 중등학교 교장

으로 근무, 유택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속초 중앙교회 묘역에 마련되어 있다.

신현순 申鉉淳(1910~1979)

대포 공립보통학교와 일본 와세다 대학과 경운 의숙 경제과 등을 수학, 광복 후 속초 농민회장을 맡아서 농민운동에 투신하였으며 수복직후에는 속초읍 부읍장으로 봉직하였다.

심태섭 沈泰燮(1929~1993)

속초고 졸업, 수산인, 속초고 동창회장, 속초청년회의소 회장, 특우회장, 속초시 정책자문 위원.

안국준 安國俊(1932~1995)

원산고급중학교 졸업, 속초시 수협 조합장, 인권옹호 속초지부장, 영북지구 이북5도민회장, 속초시 의회 의원(금호동).

유성국 劉成國(1925~1984)

조선대 법학과 졸업,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속초시 수협 조합장(3대), 수산청 수산심의 의원, 속초시 행정자문 위원.

유정충 劉楨忠(1946~1990)

함남 북청군 신포읍에서 출생하여 월남, 부산에서 성장하여 23세에 속초로 옮기어 어선의 선원과 선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3월 1일 어선 하나호를 타고 제주 남방 동지나해 37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에 풍랑으로 어선이 침몰하자 동료선원 21명을 구하고자 구명정 승선을 자신은 포기한 채 끝가지 어선에 남아서 구조 신호를 타전하며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했다. 이 감동적인 사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각 언론사가 크게 다루어 거룩한 희생정신을 어민들은 물론 전국민에 깊이 새겨 주었다. 현재 금호동 근로자 복지회관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유희일 俞晦一

호는 물재(勿齋) 창원 태생으로 조선 후기 학자, 이 고장에 머문 학자로서 그의 학덕과 효절을 향인(鄉人)들이 흠모하여 사당을 세워 추모하였으나 지금은 유허비(俞墟碑)만이 대포동(내물리치)에 세워져 있다.

이국범 李國範

한말지사(韓末志士) 일찍이 한학에 전념하여 유림으로 정평이 났으며 신념이 강하고 민족 사상이 투철했으며 영웅적인 심리 또한 컸다. 한말의 민족적

비운에 분을 품고 민족운동에 뜻을 두었으며 만세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공은 고향인 양양으로 귀향하여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규한 李圭漢(1889~1943)

지역 지도자, 노학동 출신, 가세는 대농으로 한학은 이수하였으나 신문학은 없었으나 신문물에 밝았다.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수원을 경영한 독농가이며 역대 면장과 당시의 김양규 면장 권유로 면서기로 출발하여 농촌 진흥에 진력하였으나 3·1운동 만세 사건으로 퇴직한 반일 운동가이자 지역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달영 李達永(1921~1981)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출신, 경성 공립 직업학교 졸업, 육군(소위), 경찰관(경위)으로 6·25에 최일선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그 이후 대한반공청년단 양양군 단장으로 계속 반공 투쟁에 앞장섰으며 국제인권 보호 속초시·양양군 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동해출장소 행정자문위 부위원장, 속초시 번영회 부회장 등을 맡아 지역 발전에 헌신했다. 속초시 전력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한전 위치를 앞당기는데 큰공을 세웠다. 내무부장관, 강원지사, 강원도 교육감 표창과 강원도 체육공로상을 수상했다. 공의 별세 때는 속초시 개발촉진위원회장을 거행하여 애도하였다.

이상봉 李商鳳(1898~1955)

지역 지도자, 노학동 출신, 1930년 축항공사, 미시령 국도 개설, 면사무소 속초로 이전, 대포공립보통학교, 노리 간이학교(비정규 불우 아동 취학), 영랑 공립 심상 소학교 설립 등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대포 금융조합의 감사를 역임하였다.

1950년 10월 3일 수복된 이 지역에서 군정의 요청으로 면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상혁 李相赫(1890~1947)

동명동에서 출생, 한학을 이수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개화된 인사로서 농업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천면 농업 단체 조직에 투신, 특히 양잠 전수에 몰두하여 양잠을 지역에 널리 보급시켜 농가 소득을 높인 지도자이다.

이석범 李錫範(1859~1932) 자는 사일(士一), 호 설초(雪樵) 왕조 군부주사(軍部主事),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에 임명되어 국정을 심의하고 지방에서 날뛰는 도둑의 떼를 평정하며 신흥사 파산을 복고하였으며 대포항(大浦港)

개설 등에 크게 공헌했다.

공은 1926년 이상재(李商在)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고 강원도 지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장인원 張仁源(1886~1950)

청대리 출신, 춘천 공립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관리가 되어 일제에 협력하기를 기피한 공은 자신이 수학한 기능을 이 고장에 기여하고자 결심하고 당시 미개발 분야이면서 농가 소득의 전망이 밝은 잠업에 눈을 돌리어 출생지인 청대리에 별동 잠실을 건립하고 직접 양잠 잠종 채종업을 하면서 잠업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실업가(實業家)인 동시에 항일 의식이 강하여 3·1독립 운동에도 앞장서 3년의 옥고를 치른 의사이기도 하다.

전성우 全星宇(1909~1979)

함북 경성 출신으로 1925년 경성 공립보통학교와 1930년 경성중학교를 졸업, 경성 남하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만주로 옮기어 광복이 될 때까지 간도성에서 살았다. 1947년 국립 경찰 전문학교를 졸업, 강원도경 수사계장으로 군무 중 6·25전쟁으로 도경 제36대대 대대장, 전투경찰 제8대대 제1중대 중대장을 거쳐 김화경찰서장, 부산 지구 포로 심사 위원, 장성 경찰서장, 주문진 경찰서장, 1956년 12월 속초읍장으로 임명되었다. 유택은 노학동공상수도 배수지 부근 함북 도민회 묘역에 있다.

정주벽 鄭珠碧(1901~1983)

사업가, 대포동 출신으로 고재동·홍락현 등과 함께 속초 지역에서 수산업을 크게 일으킨 선구자. 유풍(裕豐) 동해 전기 회사를 설립하여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1964년 한국 전력을 이 고장에 유치하는데 큰 공적을 남겼다. 사업에는 치밀하면서도 호방한 성품으로 도량이 넓었다. 지금 수협이 전신인 대포어업 조합장·속초 수산 관리 소장으로 어구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수산 행정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현재 수산업 협동 조합의 기초를 닦았다.

지일권 池一權(1927~1993)

함남 원산 출신. 함흥 고보, 원산 교육 대학 수료, 한국일보 기자, 속초문화원장, 속초시지 편찬 위원장을 맡아 시지를 편찬하는 등 속초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진범화 陳凡華(1845~1891)

자는 윤현(允鉉), 행통정 대부 돈령부 도정 겸용양위부호군을 지냈다.

진대범 陳大範(1794~?)

자는 대석(大錫), 가선 대부, 호조 참판, 동지의금부사를 지냈다.

진용기 陳庸起(1820~1895)

자는 기용(起龍)으로 1891년 행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 창덕궁 위장, 1892년 용진만호를 지냈다.

허옥 許玉(1923~1951)

대포동(내물치리) 태생, 서울 중동 중학교(5년) 졸업, 강직한 성격으로 광복후 북한 공산 치하의 학정을 뿌리치고 1946년 6월 월남하여 서청 주문진 지구 단장으로 반공 투쟁에 앞장섰으며, 1948년 경찰에 투신, 6·25전쟁으로 전선에 투입되어 함남 영흥까지 진격, 후에 전우와 피난민들의 후송을 끝까지 돌보고 주문진에 귀환하였으나 은신 공비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홍경호 洪景昊(1854~1945)

흥운당(興雲堂) 평양 출신, 청년기에 반일 사상이 투철하여 일본 관헌에 항거, 일경에 쫓김을 당하여 산사(山寺)에 피신, 이를 계기로 불문에 출가, 신흥사에서 수도끝에 주지가 되어 약20년에 걸쳐 사찰 관리와 포교에 진력하는 한편으로 불도들에게 배일 조국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편저자의 말

모 든 일에는 통고가 따르게 마련이며 맡겨진 무게가 예사롭지 않을 때는 더욱 큰 진통을 겪게 된다.

더욱이 두고두고 읽혀야 할 속초의 속내를 담는 그릇임에는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읽는 서책에서 보는 서책으로서의 시대 흐름도 간과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무섭게 채찍질하면서 누구나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초등 학교생으로부터 일반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큰 짐으로 다가왔던 365일이었다.

버거운 일을 하는 동안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진기와 수첩까지 휴대하고 간간하게 물어 오던 초등교생들이며, 선생님과 함께 찾아 왔던 여중교생들,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문의를 챙기는 젊은 주부와, 더욱 얼마 전에 개교한 초등 학교에서는 학급 이름을 우리 고장의 식물들 이름을 붙이어 부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어 기쁨을 주었고, 이렇게 내 고장의 역사를 알려 주고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움트고 있을 때, 이 마음들이 자라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로 다져지리라는 믿음을 신앙처럼 가질 수 있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며 느낀 만큼 본다고 하였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느 지난 시대 문인의 말이지만 오늘과 같이 말이 망하는 시대에서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남는다.

바라건대 '속초문화원' 이 그동안 발간한 향토사료집 《속초의 지명》·《속초의 민속》 등과 함께 널리 읽혀 내 고장을 알기 위한 길라잡이의 몫을 단단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서책이 나오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1997년 여름

속초(束草)라는 명칭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면 조선 왕조 시대인 영조(英祖) 36년(1760)에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의 속초리이다.

속초리는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집은 86호이며 인구는 남자가 90명, 여자가 182명으로 272명이라는 기록이다.

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속초는 조선 왕조 시대에 양양 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라는 한 동리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청초호(靑草湖)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서 인접한 속초리가 점차 커지면서 1937년에는 도천면(道川面·일제 강점기인 1914년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 도천면) 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 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의 이름이면서 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본문 '속초 지명의 유래'에서.

